

천주교 정체 파악 시리즈 ②

# 천주교에도 성령이 계시는가?

-천주교의 관상기도와  
은사운동, 마리아 신격화의  
전말(顛末)-

김진원 지음

도서출판 경건

천주교 정체 파악 시리즈 ❷

# 천주교에도 성령이 계시는가?

-천주교의 관상기도와 은사  
운동, 마리아 신격화의 전말(顛  
末)-

천주교 정체 파악 시리즈 ②

# 천주교에도 성령이 계시는가?

-천주교의 관상기도와 은사  
운동, 마리아 신격화의 전말(顛  
末)-

도서출판 경건

---

지은이 소개

---

## 김진원

갈빈신학교(갈빈대학 전신) 2학년 수료  
한남신학교 졸업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교육원 졸업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사계속교육원 수료  
전주노회에서 목사안수 받음  
(전) 선거, 학암, 치상, 오류, 성수, 여울,  
이백, 용합교회, 전주노회 전도목사 시무.  
(현) 전주노회 공로목사

---

---

## 천주교에도 성령이 계시는가 ?

---

지은이/ 김진원  
발행일/ 2014년 7월 25일  
발행처/ 도서출판 경건  
발행인/ 한인수  
등록/ 1995년 9월 6일 제22-912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55-5  
서초월드오피스텔 1910호  
우편번호/ 137-072  
전화팩스/ 02) 3472-3952, 063)236-3020  
이메일/ 77jwg33@hanmail.net  
값 12,000원  
ISBN 978-89-86558-66-1 03230  
본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창작물이므로  
무단복제와 무단전제를 금합니다.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추천사

오늘날 로마천주교의 실제적인 위협은 대단히 큰 문제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사실적인 문제 제기는 너무나 희박하고 무지한 실정이라 안타깝다.

그러나 참된 인간의 올바른 지성과 양심으로 들여다봐도 로마천주교는 인류와 사회에 결코 정당한 유익을 줄 수 없는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로마천주교가 이제는 참된 기독교회에 큰 대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한국교회가 교회연합운동의 중요한 활동으로 로마천주교와도 깊은 연합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천주교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본서는 그런 문제를 다룬 책으로 이제까지 한국에서 출간된 천주교에 대한 다양한 비판 서적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천주교라는 종교의 토대부터 그것으로부터 드러난 다양한 종교적 현상까지 본서는 명확하게 잘 정리해 놓았다.

그러므로 모든 개신교 목회자들과 신학도들과 일반 신도들은 본서를 필독하되 정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진리를 바르게 알고 가르치는 것과 함께 거짓 종교의 실체를 잘 알고 경고하는 것도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사회는 로마천주교가 얼마나 큰 위협을 몰고 오는 종교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본서가 중요하다.

저자이신 김진원 목사님께서 오랜 수고와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천주교의 뿌리부터 그 사악한 열매까지 다 드러낸 본서는 모든 이들

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책이다. 이제 이 책으로 주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는다. 또한 종교 개혁자들의 교회개혁의 불을 크게 밝히려 여겨진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 요한 계시록 18장 10절 -

선민개혁장로교회,  
밴드 오브 퓨리탄스 대표  
오인용 목사

## 목 차

추천사	5
서언	9

### 제5장 천주교의 영은 성령인가 다른 어떤 영인가? 17

1. 천주교와 성령에 대한 한 진실한 천주교 학자의 폭로 18 /
2. 성경과 성령은 일치한다. 23 / 3. 천주교의 영성훈련과 관상기도는 성령의 역사와 일치하는가? 43 / 4. 천주교의 오순절(은사) 운동도 성령과 일치하는가? 131 / 5. 천주교와 기독교 은사주의 운동의 실체 153 / 6. 성령과 악령의 구별 165 /
7. 천주교 은사주의의 영이 다른 영이라고 하는 이유들 183 /
8. 천주교와 성령의 구체적인 상호관계의 추적 199 / 9. 천주교의 영은 성령인가 다른 어떤 영인가? 209

## 제6장 마리아를 한 없이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216

1. 마리아에 대한 허황된 교리 217 / 2. 각처에 출현(발현)하는 마리아 이야기들 219 / 3. 인위적이고 거짓된 마리아 교리들 232 / 4. 마리아에 대한 문제점들 251 / 5. 천주교의 실질적인 최고신은 마리아가 아닌가? 274 / 6. 마리아가 실질적인 천주교의 최고신이라는 근거 278 / 7. 결국 천주교는 마리아종교로 종착하게 되지 않을까? 288 / 8. 천주교에 대한 마지막 경고 293 / 간곡한 권면 301 / 결언 302 / 하나님의 격려 말씀 303

## 부록

## 305

최근 천주교의 급격한 인본주의(뉴에이지, 프리메이슨)화 현상에 대한 의혹 305

존 밀턴의 애도 시 317

# 서 언

필자는 원래 천주교에 대하여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일생을 독신으로 온전히 헌신하여 봉사하는 신부들과 수도사들과 수녀들에 대해서는 같은 인간으로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아 왔다. 지금도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들의 정숙하고 단정한 모습과 천주교의 단일체제로서의 일사불란함과 엄숙한 미사광경 등은 인간적인 감동을 주었다.

그런데 우연히 천주교의 역사와 교리를 연구하면서 이러한 천주교에 대한 아름다운 인상과 호감이 불행하게도 깨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산산 조각이 나고 말았다. 진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필자는 고의로 천주교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 우연히 천주교에 대한 책 몇 권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천주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별 관심 없이 지내 왔지만 이제는 모르는 척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천주교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연구하기 시작 하였다. 몇 년 동안 느리게 연구하며 글을 쓰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천주교에 대하여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비 성경적인 어처구니없는 교리들과 역사적인 탈선들과 비기독교적인 의식과 행태들을 볼 때에 도저히 잠잠할 수가 없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눅 19: 40)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의 돌이 되어 소리치기로 하였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골

리앗 앞에 물맷돌을 던진 심정으로(삼상 17: 41-54) 펜을 들어 보았다.

필자는 감히 이런 글을 쓰면서 통탄(痛歎)과 애석(哀惜)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만약 천주교의 중요한 교리가 성서와 일치하고 지엽적인 문제들만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기쁘게 연합해서 힘을 합하여 복음을 전하고 서로 협력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천주교는 매우 안타깝게도 16세기의 종교개혁 시에라도 신앙 양심이 조금만 살아있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켰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종교 개혁의 와중에서 개최한 트렌트 공의회는 정통 기독교와 완전히 담을 쌓고 다시 건널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고 말았다. 기독교를 완전히 변종시키고 기독교와 결별하고 말았다.

도리어 그들은 끝내 추호도 회개가 없었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개혁자들과 그들과 합세하는 양심적인 무수한 신앙인들을 온갖 방법으로 탄압하고 무참하게 살육하는 것을 즐겨 자행(恣行)하였다. 그리고 5백여 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그들의 그릇된 교리들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추가되었고 악화되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천주교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며 일반 사제들이나 수사나 수녀들과 평신도들은 오히려 피해자요 억울한 희생양들이니 더욱 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따름이다. 그러므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속히 가련한 희생양들을 교권을 쥔 잘못된 지배자들의 손에서 해방(구원)시켜주시기를 간곡하게 기도드린다.

그러나 천주교가 기독교에서 완전히 전락 하였으면서도 정통 기독교

교 행세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천주교만이 참 기독교이고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혹 세무민(惑世誣民)하고 있으니 늦었지만 돌들이라도 소리쳐서 그 거짓을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에서 완전히 변종된 천주교에 대하여 양심 있는 다소의 비판서들이 나왔으나 좀 더 자세한 글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므로 부득이 주님만 의지하여 붓을 들어 보았다. 못 다한 복음사명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미력을 기울여 본 것이다.

본서에서는 먼저 천주교의 거짓된 정체를 가능한대로 들춰내어서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았다. 부디 독자 여러분이 천주교의 허황한 정체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그 허상에 속지 않고 그 참 정체를 세상에 알려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천주교에 대해 굳이 비판할 필요가 있는가?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본서를 쓰면서 필자에게 말씀하신 몇 분의 충언은 본인이 애당초부터 생각했던 바와 같이 매우 뼈아픈 것이었다. 현재 한국 기독교회만 보더라도 그 타락의 도가 실로 심각한데 어떻게 천주교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내 코도 석자인데 어떻게 남 간섭을 하겠느냐는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깊이 동감하면서도 천주교가 역사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정통 기독교에서 완전히 이탈 하였으면 서도 태연하게 자기들만이 정통 기독교이며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기만 때문에 도저히 침묵 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필을 들게 되었다. 무엇보다 통탄할 일은 천주교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한 해아

릴 수 없는 살상행위들과 이단 척결의 미명으로 어느 종교나 어느 집단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공산당 다음가는) 살육을 자행했다는 엄연한 기록들을 보면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면서도 일치운동이니 에큐메니칼 운동이니 하면서 정통적이고 복음적인 기독교를 통째로 삼켜서 제2의 암흑세계(중세)를 만들려는 저들의 간계(奸計)를 볼 때에 더욱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 본서의 기록목적

본서는 천주교의 교리들을 일일이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릇된 중요 교리들의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점들을 측면에서 폭로하여 알리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혀드린다.

천주교의 교리들과 의식들의 정체는 허상(虛像)이다. 신기루와 같은 허상들을 걷어내고 남는 정체는 거짓(기만)과 무(無)뿐이다. 이러한 헛된 사상누각과 공중누각을 믿고 추종하는 교도들의 실망과 불행은 어떻게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천주교의 정체가 거짓(가짜)교회라는 말은 천주교의 대명사와 같이 보인다.

본서는 1장에서 8장까지에서 거짓 교회로서의 천주교의 거짓된 여러 가지 정체의 측면들을 기술하였다.

<시리즈 ①>에서는 제1장 거짓 연옥, 제2장 거짓 성 화상(우상), 제3장 거짓 성찬(미사), 제4장 거짓 구원 그리고 <부록>으로 마리아의 충격적인 종말 사계시(마리아와 프리메이슨의 최후 결전)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시리즈 ②>에서는 제5장에서 성령을 떠난 천주교의 다른 영의 역사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피고, 제6장에서도 거짓 마리아에 대하여 좀 더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시리즈 ③>에서는 제7장에서 거짓교회인 천주교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살펴보았고, 제8장에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연합운동 문제를 좀 더 철저하게 추적하여 보았다. 이것도 거짓 연합(야합)운동이다 이상과 같은 천주교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좀 더 직선적이며 간략하게 다루어 보았다. 그리고 거짓교회의 불행한 종말에 대해서도 예측하여 보았다 원래 한권으로 썼는데 예상외로 분량이 많아져서 부득이 세 권으로 출판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오늘날은 세계적으로 천주교만이 정통 기독교 인양 미화되고 선전되는 경향이 날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국만 보아도 사회의 거의 모든 언론 매체들이 정통 기독교 사냥에 총동원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6세기와 같이 21세기에도 천주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기독교의 사활(死活)이 달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21세기에도 여전히 천주교를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수십 권의 책으로도 부족할 줄 안다. 그러나 정면으로 천주교의 완곡(婉曲)하고 위장된 교리들을 일일이 들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들의 크게 잘못된 교리들을 측면에서 핵심을 꼬집어 내어서 실제적으로 간략하게 밝히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본서에서는 먼저 천주교의 정체가 정통 기독교가 아니며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양한 측면의 실제적인 문제를 들어가면서

폭로하여 알리려고 하였다. 그리고 일찍이 거의 시도된 적이 없는 천주교의 불행한 최후에 대해서 가능한대로 기술하여 보았다. 이 사실은 성경의 예언과 천주교 내부의 예언들과 현재 천주교내외의 국제정치 상황에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

기독교 내부의 탈선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분들의 질책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본인은 우선 시급한 이 외부의 공격에 대하여 방어하지 않을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필을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삼가 부탁드립니다.

본서가 빛을 보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다.

먼저 이 적은 글이 나오기까지 제일 부족한 종중의 종을 일평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아버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없었다면 이 글은 결코 성취될 수 없었다고 진실로 고백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곁에서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보살펴주신 전주노회와 전북노회의 모든 선후배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리며 주사랑 목양회의 목사님 내외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많은 지도와 조언과 격려와 도움을 주신 한인수 교수님, 유태주 교수님, 그리고 송화섭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원고의 타이핑과 교정을 위하여 분주한 시간을 쪼개어 많이 수고해 주신 전주말씀교회의 여러 자매들과 형제에게 심심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더욱이 바쁘신 중에도 본서를 꼼꼼히 정독해 주시고 귀중한 「추천서」를 써주신 도서출판 《밴드 오브 퓨리탄스》 대표 오인용 목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 줄고의 출판을 흔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모로 수고하여 주신 도서출판 《경건》의 한인수 목사님과 박정희 전도사님에게 더욱 큰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말없이 일생을 희생해준 아내와 물심으로 협력해 준 사랑하는 딸 아들과 사위 며느리 손자들에게 진정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주후 2014년 5월

김진원 목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5:18)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24:35)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  
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  
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벧전 1:24-25)



세상은 참으로 위험한 곳이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방관하는 자들 때문에 더욱 위험한 곳이다.

- 아인 슈타인 -

선한 사람들이 침묵을 지킬 때 악은 만연한다

- 매튜 헨리 -

# 제 5 장

## 천주교의 영은 성령인가 다른 어떤 영인가?

(성령을 이용도구로 사용하는 천주교)

서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서의 목적은 천주교의 특정 교리들을 일일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리들의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파헤쳐 밝히는 데에 있다. 따라서 천주교의 성령교리를 밝히는 데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기술하는 것을 양해하기 바란다.

## 1. 천주교와 성령에 대한 한 진실한 천주교 학자의 폭로

천주교는 겉으로는 고대 기독교를 이어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본장에서는 천주교의 성령관을 구체적인 실화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그들의 성령관이 성경과 초대교회나 개혁교회의 정통적 성령관에서 실제적으로 완전히 이탈한 사실 앞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먼저 현존하는 한 진실한 천주교 신자이며 양심적인 학자인 게리 윌스의 진솔한 글을 소개하겠다.

### (1) 천주교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폭로

(천주교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증거들 :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성령을 배제한 천주교 중심으로) (기만구조 교황의 죄, 488-491 참고)

현재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게리 윌스 교수는 「기만구조 교황의 죄」라는 그의 책에서 천주교와 성령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는 교회에 성령의 현존(계심)을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길로

서 성령이 계시는 곳에 존재하는 parrhesia(행 4:31; 팔레시아: 담대히, 거침없이, 솔직히, 자유롭게, 숨김없이)가 있는가를 보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와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다.) 내용이 좀 길어서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겠다.

- 1) 교회는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천주교는 사탄과 합세하여 가해자가 되었다. 그러니 성령이 현존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 2)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찬란한 길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 하는 것인데 천주교는 그와는 반대이다.
- 3) 진실을 은폐하는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4)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성차별을 하지 않는데, 천주교는 그렇지 못하다
- 5)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사제들을 성변화(빵의 실제변화)의 마술사들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 6)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교황을 교회 군주로 떠받들지 않을 것이다.
- 7)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교황이 성령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 8)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폭력적인 현실제도의 상징을 끌어와서 마리아를 황후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 9)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자유로운 성령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않을 것이다.
- 10)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신자들과 직결되는 교리를 억지로 떠안기려는 음모를 꾀하지 않을 것이다.
- 11)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음모, 기만을 일삼으며 언론자유를 억

압하지 않으며 그리고 신자들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12) 공의회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특성들, 비밀과 강요와 기만은 하나같이 성령의 특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13)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위에서 폐지하신 낡은 희생 제사를 다시 복원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 희생제사에서 오로지 신자들이 교황권이라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지 않을 것이다.

14) 성령이 함께 하는 교회는 완전한 함구를 요구하지 않고 맹목적인 굴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15) 성령이 함께 하는 교회는 기만으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다.

16) 성령이 함께 하는 교회는 진리를 선포할 목적으로 거짓을 활용하는 가장 사악한 거짓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17)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기만이라는 새로운 교황의 죄가 성령이 영혼에 다가가지 못하게 안에서 방해하는 영적인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18) 성령이 함께 하는 교회는 신중한 술책, 교묘한 조작, 성과를 얻어내는 냉정한 행동, 계획적인 무지 빛을 거부하는 마음의 창에 덧문을 치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충실한 천주교인이면서도 천주교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추호의 사정도 없이 솔직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상에서 저자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천주교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들을 자세하게 열거하여 폭로하고 있다. 저자의 진실함과 용기에

---

1) 게리 윌스 지음, 『기만구조 교황의 죄』, 박준영 옮김, (서울 : 도서출판 중심, 2005), pp. 488-491.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를 보낸다.

## (2) 성령의 은총을 사유화(私有化)한 천주교의 교황과 교도권과 사제들(게리 월스가 지적한 천주교의 성령사유(私有)행위들)

게리 월스는 위에서 천주교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고 폭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천주교(교황과 사제들)가 성령을 사적(私的)소유물과 같이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물질이나 힘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 1) 교해실 안에서 은총(성령이 베풀어준 은혜)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은총은 팔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되었다.
- 2) 은총은 천주교의 인가받은 신심(예배, 기도 사도직 활동, 회생, 봉사 등등)행위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었다.
- 3) 교회 안에 끊임없이 현존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 되 항상 전체에 활력을 주시는 성령 대신에 은총은 사적(私的)으로 소유하는(또는 상실하는) 재산이 되었다.
- 4) 성령은 근래에 성 삼위 가운데서 일종의 잊혀진 위격(位格)으로 전락해 버렸다.(도미니코 신학자 이브 쿡가)
- 5) 그동안 인간의 대리행위가 신(성령)의 자유로운 활동을 대신해 왔었음을 암시한다.
- 6)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서로 통교하시는 가운데 불고 싶은 대로 불어가는 성령의 현존 대신에, 은총은 교황이 관장하는 영적 수로와 저장탱크 장치에 의해 통제되는 물질로 변해버렸다.
- 7)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우상숭배 속에서, 교황은 아예 성령을 대

신하고 있는 셈이다.

8) 교황 비오 12세도 교회를 교화하는 당사자는 성령이 아니라 바티칸의 교도직분이라고 썼다.

9) 요한 바오로 2세가 그의 전임자 비오 12세에게 탄복하고 있는 부분도 이처럼 전권을 쥐고 성서와 성령을 대신하는 하느님의 사자로서의 교황의 전형 이었다고 하였다.<sup>2)</sup>

이상에서 윌스는 천주교 안에 성령의 부재뿐만 아니라 성령 자체가 부인되고 자신들의 사유재산으로 전락시켜 사용하는 크나큰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이 사실을 다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줄 안다.

1)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은총)가 고해실 안에서 물건처럼 팔리고 있다.

2) 이 성령의 은혜는 천주교의 인가받은 신심행위를 통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취득할 수 있다.

3) 성령의 은혜는 살아계셔서 교회 안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항상 전체에 활력을 주시는 참 성령대신에 아무나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상실할 수 있는 재산이 되었다.(즉 사유물이 되고 말았다.)

4) 성령이 성 삼위 가운데서 잊혀진 위격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말은 성령이 망각되고 배제되고 있다는 말이다.

5) 교황이나 사제들의 대리행위가 성령의 자유로운 활동을 박탈하고 대행하여 왔다

6)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 소위 성령을 베푸는 은혜(은총)는 교황이

---

2) 같은 책, pp. 274-276.

저장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여 이용하는 물질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7) 일종의 천주교의 새로운 형태의 우상숭배행위 가운데서 교황은 처음부터 성령을 대신하여 행동하고 있다. (자신이 성령역할을 하고 있다.)

8) 교황 비오 12세는 천주교를 교화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교황청의 가르치는 직책이라고 했다.

9) 비오 12세는 전권을 쥐고 성서와 성령을 대신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전형이었다.

게리 월스가 이와 같이 성령에 대한 천주교와 교황의 대죄들을 폭로하는 것은 천주교가 기독교의 생명인 성령을 배반하여 저버리고 말살하여 자신들이 성령행세를 하는 엄청난 죄악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줄 안다. 천주교는 말마다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셨고 성령이 도와주셨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을 배제하고 저버리고 모독하는 신성모독집단인 것을 온 천하에 스스로 드러내 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성경과 성령은 일치한다.

천주교의 성령교리를 밝히는데 있어서 제일먼저 생각할 것은 성경과 성령의 관계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1) 마틴 루터

우리가 아는 대로 마틴 루터는 성경 말씀(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고 성경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수행하였으며 성경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에 일생을 바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 루터가 한 때에 이런 말을 하였다.

### 성령과 사탄 즉 세상 신이 지배하는 곳의 차이

(말씀을 향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증오와 경멸이 있는 곳)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을 스스로 느끼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꺼이 듣고 말하고 쓰고 생각한다면 그로 하여금 그것은 사람의 의지와 이성의 작용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임을 알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이러한 일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말씀에 대한 증오와 경멸이 있는 곳에는 사탄과 세상 신이 지배한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혼미케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한다(고후 4:4). 「갈라디아서 주석」 (Commentary on Galatians), pp. 296-297.3)

이 말은 아주 짧은 단락이지만 성경과 성령의 관계를 요약하여서 잘 표현해 주고 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쁘게 경청하며 전파하며 글로 써서 전하며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성경과 성령

---

3) 휴 T. 커어 편저, 『루터신학 개요』, 김영한 편역,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p. 119. 재인용.

은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라는 말이다.

2) 이와 반대로 성경말씀에 대한 증오와 경멸이 있는 곳에는 사탄과 세상신이 지배한다고 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1965년 이후)에는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이유는 천주교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1965년) 후 부터는 점점 성경에 대하여 개방하며 심지어는 읽고 쓰고 공부하기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천주교 신부들이나 신도들 중에 진정으로 성경말씀을 사랑하고 그 안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전파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루터의 이 원칙은 그들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즉 그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일이야 말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두 손을 들고 기뻐하며 환영할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을 장려하며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나 그 지도를 받는 신도들에게 진정한 성경과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의 의무나 정책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비록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성경말씀에 대한 증오나 경멸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저 의무적으로 상부의 지시에 복종하거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령이 함께 할 리가 없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성경말씀보다 교황이나 천주교회의 교리를 더 높이며 진정한 구원의 복음을 외면하고 싫어한다면 더 더욱이 성령이 함께하실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이 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이니 구원이니 복음 등을 외칠지라도 진실로 성경말씀대로의 신앙을 가지지 않고 그릇된 비 성경적이거나 또는 반 성경적인 교리들을 더 믿고 주장한다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깨닫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천주교의 모든 일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잘 이뤄졌다는 등의 상투적인 주장들은 전혀 타당치 않다고 할 것이다.

## (2) 존 칼빈

존 칼빈은 위대한 종교개혁을 수행하면서 저술한 유명한 신학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과 성경의 불가분리성을 자세하게 밝혔다. 이 강요 제1권 제9장은 성경을 떠나서 직통계시로 비약하는 모든 종류의 광신자들(천주교 포함)을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광신자들은 경건한 신앙생활의 모든 원리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성령과 성경의 분리할 수 없는 일치성을 강조하여서 광신자들과 닮은 천주교의 성령 일변도의 크게 잘못된 사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계하고 있다.

1) 성령과 성경의 관계 (<기독교 강요 상> 제 1권 제9장 1, 2, 3. 참고)4) (광신자들의 성령에 대한 잘못된 관심)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 9장 1,2,3 절에서 아래와 같이 7가지로 성령과 성경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① 성령과 말씀은 일치한다.

칼빈은 광신자들이 성경말씀을 무시하고 직접 성령과 통하여 인도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4)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상』, 김종흡 외3인 공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2005, 33쇄 발행), pp. 162-165.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사 59:21)는 말씀은 성령과 말씀이 일치됨을 극명하게 선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 성령과만 통하여 인도를 받는다는 저들의 주장은 천주교의 주장과 닮은 것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하였다.

②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는 영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13)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말씀하고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서 성령과 성경의 동일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였다.

③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 (성령은 성경에 의해 인정된다.)

성령께서는 사탄이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잠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성경에 인 쳐놓은 그 자신의 형상대로 이해되기를 원하신다. 즉 성경에 의하여 점검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였다.

성령은 (1) 성경의 저자이시고, (2) 변하실 수도 없고 자신과 달라질 수도 없는 분이시며, (3) 성경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그대로 영원히 존속되어야하는 분이시다. 이는 결코 성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다.<sup>5)</sup>

5) 장수민, 『칼빈의 기독교 강요 분석 I』, (서울 : 칼빈아카데미, 2006, 재판), p. 103.

칼빈은 이렇게 성령은 자신이 기록하신 성경에 보여주신 그대로 계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과 성경은 서로 모순됨이나 불일치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광신자들이나 천주교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④ 성령과 말씀은 결합되어 있다.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보여주신 자신의 진리와 아주 굳게 결속하여 계시므로(렘 31:33) 그 말씀이 당연한 존경과 위엄을 받아야만 성령께서도 비로소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신다 상호간의 일종의 결속을 통하여 주님은 그의 말씀의 확실성과 그의 성령의 확실성을 그렇게 결합하셨다(the Lord has so together the certainty of his word and his spirit).<sup>6)</sup> 라고 하였다. 칼빈은 성령과 말씀은 떼어내서 따로 생각 할 수 없게 밀착된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성경말씀과 관련 없는 광신자들이나 천주교의 주장들은 거짓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⑤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말씀에 대한 완전하고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된다.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께서 두 제자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과 같이(눅 24:45) 성경은 저자이신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읽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확신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성령과 성경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임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⑥ 성경이 멸시되면 성령도 소멸된다.

---

6) 같은 책, p. 103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을 때 (1) 즉시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과 연결시켰으니(살전5:19-20), (2) 이는 예언 곧 말씀이 경시되면 성령도 소멸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한 것이다. 이 말씀에서 암시하고 있는 바는 곧 성령의 빛은 예언들이 멸시를 받게 될 때 즉시 꺼지고 만다는 것이다. 성령을 앞세우며 강조하는 광신자들이나 천주교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안다.

### ⑦ 말씀과 성령의 불가분리적 생명의 관계

칼빈은 마지막으로 (1)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떠나서는 말씀(진리)이 생명을 잃는다고 생각하며 (2) 그리고 말씀은 주님께서 성령을 신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라고 생각하며 (3) 또 그들은 친히 사도들안에 거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 이외에는 다른 영을 몰랐으며 (4) 그리고 그 성령의 말씀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듣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즉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히 깨닫도록 성령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이다.

성령과 성경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일체의 관계이고 어느 한 쪽만 가지고는 신도들에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한 생명의 관계라는 말이다.

이상과 같이 칼빈은 성령과 성경의 관계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주고 있다. 즉 성령과 말씀은 일치되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는 영이며 성령은 말씀으로 알 수 있으며 성령과 말씀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에 말씀에 대한 안전하고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되고 성경을 멸시하면 성령도 소멸되며 말씀과 성령은 분리 할수 없는 일체의 관계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의 권위를 말살하고 자신들 (교황과 교도권)을 그 위에 최고

의 권위로 군림시키고 거기에다 인간들의 전통들을 성경과 동일한 하나님의 구전(口傳)된 말씀(제2의 성경)이라고 하며 인간문학서(구약외경)를 성경속에 추가 삽입하여 혼합시킨 천주교의 영을 도저히 성령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 말씀 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성경정경)으로 인친 성경 말씀(66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외경들을 추가한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결코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잡다한 전통들을 <구전(口傳)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서 성경 말씀의 권위를 말살한 천주교가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했다고는 절대로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 2) 말씀과 성령의 불가분리성(일치성)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8장 “신조에 대한 교회의 권위: 교황 제도 하에서 교회는 임의로 교리의 순수성을 완전히 더럽혔다”의 13절에서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다."는 소제목 아래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로마 가톨릭은 잘못 주장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므로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또는 말씀과 별도로 무슨 일을 제정 하더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2. 하지만 교회의 권위는 말씀에 부속되어야 하며 말씀에서 분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치신 곳에서 자신의 지혜도 멈추는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

3. 교회에는 받은 약속들을 전적으로 확신함으로써 믿음을 지탱하는 훌륭한 수단을 가졌으니 따라서 진리의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1) 이때 성령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분리되지 아니하신다(요

16:7, 13, 14:26). (2) 크리소스톰(Chrysostom):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자랑하지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거짓으로 성령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따라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12:50) 자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신 것과 같이(요 12:49, 14:10) 우리도 복음과는 관계없이 성령의 이름만을 빙자하여 제시되는 것은 일체 믿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심과 같이(롬 10:4) 성령은 복음의 완성이시다

4. 우리의 논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이상한 교리를 추천하기 위해서 성령의 이름을 사용할 뿐이지만 성령께서는 끊을 수 없는 유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되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에 성령을 약속하실 때에 이 점을 확인하셨다. (1) 주께서는 교회에 근신의 자세를 명령하셨다(벧전 1:13, 4:7, 5:8 기타 참조). (2) 주의 말씀에 무엇을 가감하는 것은 금하셨다(신 4:2, 계 22:18-19).7)

이 분석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이 부분의 내용을 간결하게 잘 요약하고 있다.

① 천주교는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천주교가 성경이 없어도 성경을 넘어서 또는 성경과 별도로 무슨 교리를 제정 하더라도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 주장은 천주교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불가 분리한 관계를 모르고 잘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성령이 성경의 저자로 그치지 않고 성경 없이나 성경을 넘어서거나 성경과 별도로는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바로 위 의 ①②③④을 보면 크게 잘못된 것임을 확인 할 수

7) 장수민, 『칼빈의 기독교강요 분석Ⅱ』, (칼빈아카데미, 2006), pp. 852~853.

있다.

② 천주교는 자신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므로 그들의 권위는 말씀 밖에 있다는 것을 주장이다. 하지만 칼빈은 교회의 권위는 말씀에 부속되어야 하며 말씀에서 분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제자이니 그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며 그 선생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질서이다. 그러므로 천주교도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며 자기생각대로 무엇을 제정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치신 곳에서 자신의 지혜도 중단해야 한다(<기독교 강요> 上, 193p.)고 했다. 천주교는 진실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이러한 귀한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③ 천주교회는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성령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분리되지 아니하신다(요 16:7-13,14:26). (2) 교부 크리소스톰은 성령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쳐 놓고 자기생각을 말하는 자는 거짓으로 성령을 자랑하며 성령의 이름만을 빙자하는 자들이니 그들의 가르침은 일절 믿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셨고,(롬 10:4) 성령은 복음의 완성이시다고 한 말을 명심해야 할 줄 안다. 천주교는 이와 같은 말씀과 권고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④ 그러나 천주교는 성경에 없는 이상한 교리들을 추천하기 위하여 성령의 이름을 사용할 뿐이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끊을 수 없는 유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되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에 성

령을 약속하실 때에 이점을 확인하셨다(요14:16-17, 15:26-27, 16:13). 그러므로 우리는 천주교의 이러한 거짓되고 불경(不敬)한 주장들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할 것이다.

천주교는 하나님과 성령이 주신 이 신성불가침의 명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과는 별도로 성령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 같이 말한다.<sup>8)</sup> (천주교가 말씀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배될 수 있다고 공상함: <기독교강요 4권> 271p.) 그러나 우리는 천주교가 이와 같이 성령과 성경의 불가분의 관계를 깨트리고 말씀의 권위를 말살하고 성령의 미명하에 계속하여 자기들 인간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 (3) 성경을 기록한 선지, 사도들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 (특별 계시(성경) : 성령의 영감)

R. A. 토리 박사는 그의 명저 「성경의 교의」에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역사한 성령의 특별 계시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 1) 선지자 및 사도들에 의한 성령의 역사의 독특한 성격

선지자와 사도들은 성령의 특별한 계시의 역사로 성경을 기록하였다. 이는 특별계시나 성령의 영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토리박사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8) 존 칼빈, 『기독교강요 하』, 김중흡외 공역, (서울 : 생명의말씀사, 2005, 26쇄 인쇄), p. 194.

① 사도와 선지자에 의한 성령의 역사는 다른 신자에 의한 성령의 역사와는 다른 것으로 성령은 사도 및 선지자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은사를 분여(分與)해 주셨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교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고전 12:28-29)

현대에 있어서 아주 일반화하고 있는 교리인 전도사나 교사 및 보통 신자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는 ... 사도나 선지자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와 비교하여 종류는 동일하나 그 정도만 다르다는 교리는 아주 비 성서적인 것으로 써 진실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은 같으나 은사나 직임은 다르다는 것(고전 12:4-6)과 모든 사람은 선지자나 사도는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의 깊게 설명하고 있는 사실을 빠뜨리고 보는 일이다(고전 12:29)<sup>9)</sup>

토리는 여기에서 일반 조직신학에서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책은 첫째와 둘째로 거명한 바와 같이 일반 은사와 성령은 같으나 은사나 직책은 다르다고 하여서 특별히 차별된 직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성경을 오류 없이 성령의 뜻대로 기록하는 특별한 은사와 직책을 받은 것이다. 이 은사는 타고 났거나 교육받은 명필가나 유명한 저술가로서의 재능과는 전혀 다른 특별은사로 특별계시라는 것이다.

9) R. A. Torrey, 『성경의 교의(教義)』(상권), 이성호 역, (서울 : 혜문사, 1971), p. 353.

## 2) 선지자 및 사도들에 의한 성령의 역사의 결과

① 여러 해 동안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어 발견되지 않고 인지(認知)의 소박한 방법으로 찾아낼 수 없었던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사도나 선지자에게 계시되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엡 3:5)

성경은 인간이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만약 인간만의 능력에 맡겨져 있었다면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진리이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큰 은혜로 인하여 이 진리를 그 자신의 종인 선지자와 사도에 의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기에서 인간의 추리(推理)나 「크리스천의 의식(意識)」으로 결론을 내려 성경의 기사(記事)를 분석(分析)하고 연구하는 등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이성(理性)을 초월하는 것이다 진실(眞實)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의식(意識)이 성경의 기사(記事)와 다른 경우에는 그것은 아직 충분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으로써 그러한 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들의 인식(認識)의 표준까지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까지 높이는 일이다.<sup>10)</sup>

여기에서 토리는 이렇게 해설하고 있다.

첫째 성경에는 인간만의 능력으로서는 영원히 절대로 발견할 수 없었던 고귀한 진리들이 기록되어 있다.

---

10) 같은 책, pp. 354-355.

둘째,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계시를 받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특별한 계시로 전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방법으로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이나 분석이나 연구로 판단하려는 어리석음은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 계시인 성경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높고, 깊고, 넓은 것이다.

넷째,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이해가 잘 안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표준으로 끌어내릴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인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까지 높여서 믿고 순종하여야 할 것이다.

② 선지자들에게 보여진 계시(啓示)는 그들 자신의 사고(思考)에서는 떠나 독립(獨立)한 것이었다. 그 계시는 그들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靈)에 의해 그들에게 보여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계시의 의미(意味)는 그들 자신의 마음에 대한 질문(質問)의 주제(主題)로 되어 있었다. 계시는 실로 선지자의 사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靈)의 사상인 것이다.<sup>11)</sup>

토리는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는 그들 자신의 생각과는 관련이 없이 전혀 독립된 것이었다고 한다. 그 계시는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 그들에게 특별히 보여 주신 것으로 그것은 선지자의 사상이 아니고 성령의 사상이라고 한다.

---

11) 같은 책, p. 355.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 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벧전 1:10-12)

③ 선지자 자신의 뜻대로 된 예언적 발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예언은 하나님에 의해 전해진 것이며 예언자는 성령에 감동되어 말한 사람이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21)<sup>12)</sup>

예언은 선지자 자신의 뜻대로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다.

④ 예언을 말씀하신 분은 성령이었다. 선지자의 혀 위에 있었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었다.

선지자는 성령의 단지 입일 뿐이며 그것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쓰신 인간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볼 때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선지자는 다른 인간과 한 가지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자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시는 때에 또 그가 성령에 잡혀 성령에 의해 감동될 때 그 가르치는 바는 그릇 될 수 없는 것으로 된다. 그 구원은 선지자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으로 된다.

---

12) 같은 책, p. 355.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써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의 경우 그는 생래(生來)의 사람으로서는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사도로써 성령의 능력에 지배(支配)되어 가르친 때에는 그는 잘못할 수 없는 이었다. 실제에 있어서 그를 통하여 가르치신 성령께서는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므로 그 성령에 감동되어 한 그의 가르침도 잘못이 없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히 3:7)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 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히 10:15-16)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흠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행 28:25)

여호와와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심이여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삼하 23:2)<sup>13)</sup>

이상의 말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언자들(시 95편 예레미야, 이사야, 다윗)을 통하여 이 네 곳의 말씀을 예언하신 분은 성령이시다. 인간 선지자들은 성령께서 영감으로 말씀을 주시는 통로일 뿐이며 그것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둘째 선지자들은 성령께서 쓰시는 일 외에는 다른 사람과 동일한 인간으로 다른 인간들과 동일하게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 그가 영감을 받을 때에는 그 가르침

---

13) 같은 책, p. 356.

이 그릇 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선지자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⑤ 사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사상과 개념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을 표현하기 위한 말씀도 가르치셨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전 2:13)

이 놀라운 책의 기사(記事)로 씌어져 있는 어구(語句)를 주의 깊게 정세(精細)하게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씌어진 언어(言語)의 정확함에 다만 경탄될 뿐이다. ...그리고 성경 중에는 정확한 말씀이 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주의하여 배운다면 성경에 관한 가지가지의 난점(難點)이 곧 해소됨은 실로 현저한 사실이다.<sup>14)</sup>

토리는 성령께서 사도들 안에서 영감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사상과 개념을 정확하게 가르치셨으며, 그 사상을 표현하기 위한 말씀도 주셨다고 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바울사도가 교인들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는 성경은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도록 기록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친히 사도를 통하여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경탄할 만큼 정확한 언어들을 사용하였으며

---

14) 같은 책, pp. 357-358.

이 사실을 주의하여 배우게 되면 성경에 대한 온갖 난점이 현저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한다.

<질의> 만약 성령이 성경 말씀의 저자라고 한다면 문체나 어법과 말투들이 다른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기록한 사도들의 말투대로 다르게 기록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해답>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하여 전달하실 때에 현명하게 극히 쉬운 언어를 쓰신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 할 때에 그 기록하는 사도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들과 그의 표현 어구와 형식을 써서 그 사람의 특별한 개성을 그대로 살려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언제나 광범위하게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여 기록되게 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15)</sup>

#### ⑥ 사도나 선지자들이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우리들이 이들 말씀을 읽고 있는 때에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다.<sup>16)</sup>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막 7:13)

여호와와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심이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삼하 23:2)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살전 2:13)

---

15) 같은 책, pp. 358-359.

16) 같은 책, p. 359.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다. 그들이 인간의 전통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준엄하게 책망하셨다. 그리고 다윗왕은 그의 예언 시(詩)에서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예언이 성령께서 자신의 혀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선포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을 통하여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가 아니고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 (4) 성령과 성경에 관한 말씀

##### 1)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셨다(딤후 3:16).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다(행 28:25).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시편에 말씀하셨다

모든 예언은 ...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신 것이다(벧후 1: 21).

##### 2) 성경은 성령의 검이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 6:17)

##### 3) 성령은 성경의 해석자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 14:16)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요

16:14)

#### 4) 성령은 신자들에게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고 믿게 하신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23).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딤후 3:5).

#### 5)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신앙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확실히) 믿을 수 없다 이 성령의 조명을 받은 믿음을 통하여서 진실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이 믿음을 성령의 증거라고 한다.

말씀이 당연한 존경과 위엄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성령이 권능을 발휘하신다.<sup>17)</sup>

사람이 그저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만 하면 성경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①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는 중에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

② 어떤 경우는 성경 주석이나 설교집 등 좋은 복음적인 저서들을 읽을 때 성경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믿음을 얻게 하기도 하신다.

---

17)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상』, 김종흡 외3인 공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2005, 33쇄 발행), p. 164.

③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하거나 성령의 신임 받는 이들의 전도나, 간증이나 설교 등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구원신앙, 성경 신앙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천주교에서의 성경 읽기나 공부나 연구나 강의나 설교 등은 아무리 강조하고 장려하고 하여도 성령의 조명이 없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 같다. 헛수고만 하는 것 같다. (단,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인을 구원하시려면 그들 중에도 성령이 가셔서 조명해 주시면 믿음과 구원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 3. 천주교의 영성훈련과 관상기도는 성령의 역사와 일치하는가?

천주교의 역사를 보면 두 가지 극단적인 조류가 뒤섞여 흘러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인위적이며 이방종교적인 교회조직과 제도, 그리고 미신적이며 이교적인 의식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 반대로 속세를 등지고 묵상과 기도 등으로 신비를 추구하며 환상과 꿈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양 극단이 조화를 이루며 버티어온 것은 신기 하게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상부상조(相扶相助)와 상생(相生)의 법칙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서로간의 공통점의 끈에 매여서 이끌리어 온 것인가?

어쨌든 이중에 묵상과 기도 등의 신비운동은 천주교 역사의 한 쪽을 끈질기게 이어오고 있다. 주로 동방 수도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이들 신비주의 운동은 영성훈련과 관상기도라고 하는 형식으로 유지

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천주교 역사의 한 쪽 날개가 되어온 영성훈련과 관상기도가 성령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인위적이거나 어떤 다른 영을 따른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실을 구별하는 것은 천주교의 정체과약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1) 영성(靈性)이란 무엇인가?

먼저 천주교에서 영성이라고 사용하는 말의 정의부터 살펴보아야 하겠다. 천주교 용어사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영성이란 일반적으로 신령한 성품이나 성질, 또는 천부(天賦)의 총명을 말한다. 그리스도교의 영성이란 다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비 물질성, 즉 물질에 의존하지 않는 정신적인 것의 속성을 지칭한다.<sup>18)</sup>

한편 이동희 박사는 『경건과 영성』에서 영성(spirituality)이란 단어의 뜻은 ‘영적인 것’을 가리킨다. 영성주의자들은 영성이란 성령을 따라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영성’이라는 명칭 자체에서부터 영성철학이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서 빛나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sup>19)</sup>고 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영성은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현존(presence)을 경험하는 것이라 하며 인간이 경험하는 신은 관념의 세계 안에 초월하거나 내재해 있는 절대자를 가리키며, 영성의 활동으로 그 신과 교제를 갖는다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영성개념은 헬라철학에 근

18) 최형락, 『천주교 용어사전』, (서울 : 도서출판 작은 예수, 2차 개정 초판 1쇄, 2006), pp. 338-339.

19) 이동희, 『경건과 영성』, (서울 : 쿰란출판사, 2011), p. 112.

거한 동방과 서방교회의 산물이며 이는 금욕주의와 신비주의가 연합하여 절대자와 연합되어 자신과 절대자가 일체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막의 수도사들은 삭막한 모래사장과 광활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말이 필요 없이 자신과 창조주가 일체되는 것을 시도했으며 이러한 활동의 산물을 성경의 ‘성령’이 하신 것 이라고 해석하며 여기에 ‘영적인 것’ 곧 ‘영성’이라고 명칭을 붙여 부른 것이다<sup>20)</sup> 고 하였다

성경에는 ‘영적’이나 ‘신령한’[프뉴마티코스]이라는 단어는 있어도 명사형인 ‘영성’(spirituality)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오며 이 단어들은 성경의 의미로 볼 때에 헬라철학이 의미하는 신비사상은 내포되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엡 2:8-9) 얻는 것이지, 결코 수도원의 고행이나 명상같은 행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신령한[영적인](고전 2:13-15)이라는 형용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천국백성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sup>21)</sup>고 하였다.

이상의 정의들로 보면 ‘영성’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 할 수 있을 줄 안다. 우리는 먼저 ‘영성’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므로 오늘날 천주교의 영성훈련이나 여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개혁신교회들을 올바르게 지도 할 수 있을 줄 안다.

영성이라는 말은 관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동희 박사는 먼저 “영성이란 신을 ‘보는’ 과정을 통하여 ‘사고’ 하고 ‘관념화’ 하고 ‘개념화’ 하여 대상을 마음속에 생각하는(관상) 과정과 결과를 말한다.<sup>22)</sup>고 하였다.

20) 같은 책. pp. 121-122.

21) 같은 책. P. 116.

22) 이동희, 『경건과 영성』, (서울 : 쿰란출판사, 2011), p. 60.

영성이란 관상(contemplation)을 통하여 인간 내면의 자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신격화(deification)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근거를 플라톤철학에서 찾는다 또한 영혼은 삼위일체(Trinity)를 반영하고 영혼 속에 지성과 의지와 기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도 플라톤철학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sup>23)</sup>

위에서 영성이 성경적인 용어가 아님을 밝혔거니와 또한 이러한 영성이라는 말이 관상이라는 말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비성경적인 영성이라는 용어가 헬라 플라톤 철학의 관상사상과 결합되어서 관상기도라는 비성경적인 기도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영성훈련이니 영성운동이라고 부르며 잘못된 기도운동으로 오도하고 있음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천주교가 잘못 도입한 기도방식을 오늘날 기독교에도 전염시키고 있으며 그것으로 기독교를 천주교에 흡수통합하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2) 관상(觀想)과 관상기도란 무엇인가?

관상과 관상기도는 어원(Contemplatio)이 같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견해를 통하여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1) 「한글-라틴 라틴-한글 사전」에서는 관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23) 같은 책. p. 60.

관상(觀想): 마음이 사색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사랑에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응시하는 기도의 경지.<sup>24)</sup>

간략한 이 정의는 관상기도가 사색을 배제하고 가득한 마음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꿰뚫어지게 바라보는 기도의 경지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는 이성과 사색과 말씀 등을 배제하고 오직 직관적으로 가득한 사랑(감각?)으로 하나님을 꿰뚫어 지게 바라보는 일종의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에 계시된 객관적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직 감각적이며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려는 잘못되고 위험한 기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2)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관상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① 플라톤

플라톤의 철학사상에 바탕을 둔 그리스 철학에서 관상이란 지혜로운 이의 최상의 지적 활동(사고)인 진리에 대한 직관과 그 진리 안에서의 쉽을 의미했다.<sup>25)</sup>

플라톤은 역사상 신과 인간의 영혼과 내세에 대하여 상당히 성경진리에 가깝게 접근한 철학자였다고 인정되고 있다. 상당히 종교적인 차원을 지닌 플라톤의 철학은 기독교인들이 인본적으로 직접 하나님을

24) 이순용 · 마르꼬 엮음, 『한글-라틴 · 라틴-한글 辭典』,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09), p. 128.

25) 방효익, 『관상과 사적계시』,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06 초판 1쇄), pp. 16, 20.

찾아 만나는 방법에 관심을 갖도록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플라톤 철학에서 관상이란 철학자의 최상의 지적활동인 진리(一者: 신(神))에 대한 직관과 그 진리 안에서의 휴식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철학은 관상을 인간 스스로가 신을 찾아서 신을 만남으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말로서 순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본적으로 잘못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신플라톤 철학자 플로티누스의 견해

플라톤의 사상을 철저히 이어받은 플로티누스에게 관상(Θεωρία)이란 중간부분에 있는 것들(존재, 생명, 정신)의 위에 있는 하나(一者)를 인간이 바라봄으로써 그 하나에게 가까이 가거나, 혹은 하나와 동화(同化)할 수 있는 유일한 활동이다.<sup>26)</sup>

관상에 대한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누스의 사상은 플라톤의 그것과 같으면서 좀더 표현이 발전된 것을 볼 수 있다. 관상이란 밑에 있는 인간이 위에 있는 신을 바라봄으로써 그 신에게 가까이 접근하거나 그 신과 동화될 수 있는 유일한 활동이라고 한다. 결국 관상이란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신을 바라봄으로 신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성경계시의 하나님을 만나는 가르침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 3) 프란치스코 드 살(1567-1622) 성인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은 “관상이란 거룩한 것들에 대한 사랑이 깊고, 단순하며, 항구하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묵상은 사랑의 어머니이고, 관

---

26) 같은 책, p. 16.

상은 그 딸이다”고 한다.<sup>27)</sup>

이 성인은 관상을 그저 거룩한 것들에 대한 사랑이 깊고, 단순하고, 항구하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여서 주관적이고 감각적이며 직관적인 사랑으로 인간자신의 깊고 단순하면서도 항구적으로 깊게 집중하는 등등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도 성경적인 하나님 사랑하는 길과 다른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고귀하신 희생의 사랑에 응답하여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일 4:10) 즉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사랑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에 감격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냥 억지로 짜내어서 집중하여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4) 유해룡 교수(장신대)는 관상이라는 단어는 “내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 그 자신을 깊게 들여다본다는 뜻”이라고 소개했다(기독신문. 2008. 3. 26. (19)).

이 교수의 주장도 사색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응시한다는 라틴-한글 사전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주관적이고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꿰뚫어 지게 바라보는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도 인위적인 자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누린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27) 같은 책, p. 138

## 5) 다일공동체의 최일도 목사

“관상기도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이는 “무엇을 바라고 구하는 능동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기도와 차이가 있다”면서 “무엇을 바라고 구하는 대신 오히려 자신을 드리고 맡기는 수동적인 기도”라고 밝혔다.(기독신문. 2008. 3. 26. (19))

최목사의 견해도 결국 위의 주장들과 같은 것이다. “무엇을 바라고 구하는 능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면서도 “그 대신에 오히려 자신을 드리고 맡기는 수동적인 기도”라 하는데 실상은 정 반대라고 하겠다. 무엇을 바라고 구하는 것은 받기만을 위하는 수동적 기도이고, 자신을 드리고 맡기는 행위는 가장 능동적이며 적극적 헌신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이러한 능동적 행위는 “사랑에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응시하는 행위”와 “신을 직면하여 그 신안에 완전히 의탁하는 행위”와 “신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단순하고 항구하게 집중하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능동적인 관상기도의 행위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진정한 복음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세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실로 필요한 것은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고 계시된 말씀대로 창조주와 구주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수동적인 신앙인 줄 안다. 본인은 유헌룡 교수와 최일도 목사가 의도적으로 관상기도를 잘못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의도로 소개하는 것인 줄로 믿고 싶다.

## 6) 김보록 원장의 관상(기도)의 의미에 대한 정의를 살펴

보자.28)

① 관상은 주님과 ‘거의 직접적인 친교’다.

‘이는 주님을 직선적이고 직관적으로 보고 사랑하고 인식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관상이 주님과 거의 직접적인 친교라는 말은 주님과 직통(直通)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줄 안다 그런데 이 직통이라는 말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② 관상은 주님과 ‘상호 내재(內在)적인 친교’다.

이는 ‘관상을 하면 주님이 내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주님안에 들어가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관상이 주님과 상호 내재적인 친교라는 말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내가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는 교제라는 말인데 이도 신비주의자들의 주관적 체험위주의 위험성을 피할 수 없는 말이다.

③ 관상은 주님과 ‘수동적인 친교’다.

‘관상은 자신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활발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그분께 자신을 맡겨 드리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관상이 주님과 수동적인 친교라는 말도 나 자신의 객관적이며 능동적인 친교가 아니고 일종의 무의식적이며 무의지적인 이상한 신비 체험에 빠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28) 김보록, 『영성의 시냇물 ①』, (서울 : 생활성서사, 2002, 1판 4쇄), pp. 62-64.

④ 관상은 하느님의 모든 것과 하느님의 본성을 거의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인식하는 체험이다.

이도 ‘그 체험을 하나님 전체와 그분의 본성을 거의 직접 바라보고 사랑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 분께 대한 가장 감미롭고 황홀한 사랑을 맞보게 하고 가장 심오하고 오묘한 인식과 깨달음을 가지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관상이 하느님의 모든 것과 하느님의 본성을 거의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인식하는 체험이라는 말도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계시진리는 제쳐두고 개인이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과 본성을 거의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인식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위대하신 창조주요 구속주이시며 섭리 주이신 하나님이 아닌 신비주의자들의 주관적인 망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생각인 것이다

‘관상은 천국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지복직관을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맞보게 해주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인식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김원장의 이 말은 위의 ①②,③④의 결론으로서 결국은 ①,②,③,④와 같은 주장이다. 주님과 직접적인 친교, 상호 내재적인 친교, 수동적인 친교 하나님의 모든 것과 본성을 거의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인식하는 체험이라는 말은 「한글-라틴 사전」의 정의와 모두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관상 기도는 날마다 앞서서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황홀을 추구하는 사막이나 수도원의 신비주의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 <한 수녀의 관상기도에 대한 설명>

흥미 있는 실화 한 토막을 소개 하겠다. 필자가 2013년 11월 9일 오후에 처음으로 서울 명동 대성당 안에 들어간 일이 있었다. 거기에서 경상도 모 수녀원에서 이 성당에 처음 와 봤다는 한 수녀를 만났다.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관상기도란 무엇인가요?”라고 물었다. 그 수녀의 대답은 간단명료하였다. “관상기도란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다. 아무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다”고 대답하면서 그래서 관상기도는 “영당이 기도”라고 덧붙여 설명하여 주었다. 그러면 그렇게 영당이 기도를 해서 얻는 것(목적)이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그녀의 대답은 또렷했다. “기빠지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수녀의 간략한 이 대답에서 필자는 관상기도의 목적이 신비주의자들의 이 기적이며 신비적인 쾌락추구라는 것을 깨달았다.

### (3) 관상기도는 천주교 교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임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54, 2709, 2711, 2722-2724항)

필자는 천주교가 항상 비진리만 가르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진리를 상당히 담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언제나 비 진리들을 끼워 넣어서 진리와 혼합시킴으로 전체적으로 비진리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천주교의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도 그렇게 볼 수 있다. 한 예만 들면 천주교의 최고의 모범기도(최고의 관상기도라고도 함)라고 하는 <목주기도>를 봐도 목주(염주알 같은 구슬들을 꿰어 만든 것)를 한 바퀴 돌리면서 외우는 기도(주기도는 6회하는데 마리아에게 하는 성모송은 53회나 하고 있다(다른 몇 가지 기도와 묵상 등도 섞여 있다)).

주님께 보다 마리아에게 무려 9배나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천주교의 교리나 가르침들을 대할 때에는 항상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제 천주교의 관상기도에 대한 공식 교리서의 기록 중 몇 가지만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교리서 2654항 영성의 교부들은 마태오 복음 7장 7절을 풀이하면서, 기도 중에 하느님 말씀으로 함양된 마음가짐을 이렇게 요약한다. “읽으면서 찾으십시오. 그러면 묵상을 통해서 발견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관상을 통해서 열릴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 7:7)라는 말씀을 관상기도에 대입시킨 것이다. 묵상기도는 진리를 찾는 과정이고 관상기도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신비체험임을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즉 관상기도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칼빈이 <기독교강요>1권 9장에서 깊이 다룬 광신자들과 신령과에 해당되는 과오에 빠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사실 저들의 관상기도 전체가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리서 2709항 관상 기도란 무엇인가? 테레사 성녀는 이렇게 답한다 ‘마음으로 하는 관상 기도란 제 생각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과 자주 단둘이 지냄으로써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상 기도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 (아가 1, 7)를 찾는 것이다.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 대한 소망이 언제나 사랑의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순수한 신앙으로 그분을 찾으니, 이 신앙은 우리를 그분에게서 태어나게 하고, 그분 안에서 살게 한다. 관상 기도

중에도 목상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시선은 언제나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

천주교의 대표 급에 속하는 신비가(관상기도자)인 데레사 성녀의 관상기도에 대한 이 정의도 위에서 지적한 광신적 직통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음말씀을 통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확실히 믿음으로 거듭난 영혼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품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이 주장은 인위적인 수많은 세월의 피나는 노력과 고투(苦鬪)를 통하여 도달한 자의 경지로서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중생과 부자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단순한 인간의 주관적인 신비체험추구일 뿐이다.

교리서 2711항 관상 기도에 들어가는 일은 성찬 전례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곧, 마음을 '모으고',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도록 우리의 전 존재를 집중시키며, 주님께서 머무르시는 거처인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우리가 머물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현존을 깊이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면을 벗어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려, 정화되고 변화되어야 할 제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겨 드리는 것이다

이 항에서는 관상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성령을 움직이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전 존재를 집중시키는 것(전심전력하여 성령을 움직여 이 기도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2) 주님이 계시는 자신의 안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자신의 내면에 의지하는 것)

3) 주님이 현재 함께 계심을 알기 위하여 믿음을 발동시키는 것(함께 계심을 깨닫게)

4) 순수하게 주님께 마음을 돌려서 정화되고 변화되는 제물로 바치는 것(봉헌)

이상에 제시되는 관상기도에 진입(進入)하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은 원래와 같이 순수한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비 성경적이고 비 신앙적이며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시작된 관상기도가 바른 성령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인간 의지만의 역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역지기도는 수십 년 수백 년을 해 봐도 참 주님의 응답은 없고 결국은 다른 영이 역사하여 잘못된 길로 끌려가기 쉬운 것이다

교리서 2722항. 몸과 정신이 결합된 인간 본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소리 기도는, 당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몸을 마음의 내적인 기도에 일치하게 한다.

천주교는 여기 세 항에서 기도를 세 종류나 세 단계로 가르치고 있다. 그 첫째가 소리기도라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소리를 통하여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소리기도는 모든 종교에 일치되는 가장 간단한 기도의 형식이라고 한다.

교리서 2723항. 묵상 기도는 사고력, 상상력, 감정 의욕을 동원하는 탐색적인 기도이다. 묵상의 목적은 우리네 삶의 현실에 비추어 고찰한 주제를 신앙을 통해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음은 묵상기도이다 여기에서는 묵상의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의혹의 여지가 있으나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모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천주교에서도 묵상기도라고 하면 성경을 읽고 깊이 그 뜻을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인줄 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도 정통기독교와 거의 비슷한 기도라 할 수 있다.

교리서 2724항 관상 기도는 기도의 신비를 단순하게 나타내는 기도이다. 관상기도는 예수님께 신앙의 눈을 고정시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없이 우리 사랑을 나타내는 기도이다 관상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기도와 합쳐지게 된다.

문제는 이 관상기도에 있다. 소리기도나 묵상기도는 우리와 거의 같다. 그런데 관상기도는 위에서 관상기도에 대한 교리들을 다루면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한 소리기도와 묵상기도에 순 인간적이며 광신적이며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이 혼합되어서 잘못된 길로 멀리 탈선하게 하는 기도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이항에서는 관상기도에 대하여 기도의 신비니 예수님께 신앙의 눈길을 고정시켜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무언의 사랑을 드리는 기도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면을 체험하고 그의 기도와 일치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라는 구절이 들어 있으나 이는 하나의 통과 의례와 같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줄 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결국은 그릇된 관상기도의 요소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주교의 관상기도에 대해서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은 이 기도는 일반 성경적인 정통기도에서 떠나서 헬라 철학적 이론과 중세 수도원의 불건전한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끼어든 것이다. 그리하여 순

수하고 단순한 신앙적 기도에서 떠나 인위적으로 억지 체험을 위한 노력의 방향으로 잘못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4) 영성훈련과 관상기도의 기원과 역사

##### 1) 기원

##### ① 영성운동의 기원

이동희 박사에 의하면 영성운동이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의 일부와 같은 것이다. 물위에 보이는 부분만 보아서는 빙산 전체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영성을 구성하는 근본사상은 천주교의 전통과도 관계를 갖고 있지만 동방 정교회의 전통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그 전통은 헬라철학의 바탕위에 세워진 수도원 제도, 금욕주의, 신비사상이다. 그런데 그것은 플라톤(Plato)의 이데아적 범신론 철학과 필로(Philo)의 신비사상의 깊은 영향 아래에서 형성되었다. 이들 철학은 성경의 사상을 재해석하는 재료가 되어서 성경말씀의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그들의 철학에 따라서 초월과 내재사상으로 인간의 내면세계를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신비적 직관(gnosis)인 영적지식을 바탕으로 영성에 관한 이론이 형성 되었는데 이것을 영성운동의 기원<sup>29)</sup>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영성운동의 기원은 성경말씀이 아니고 플라톤의 이데아적 범신론 철학과 필로의 신비사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

29) 이동희, 『경건과 영성』, (서울 : 쿰란출판사, 2011), p. 46.

은 천주교와 동방 정교회의 전통으로 둔갑해서 중세를 지배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천주교의 수도사들을 통하여서 관상기도 운동이라는 좀 더 노골적인 방법으로 그 본색을 드러내면서 기독교까지 침식(侵蝕)하고 있다.

## ② 관상기도의 기원이 된 플라톤 철학의 목적, 단계, 방법

소위 영성훈련의 최고의 방식인 관상기도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특히 플라톤(B.C. 428-B.C. 347)의 철학에 까지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하여 방효익 신부의 설명을 들어보자.

인간의 영혼은 원래 영원한 진리 혹은 실상(idea: 앎과 있음의 궁극적 원리)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先在) 세상에 태어나 육신과 결합하는 괴로운 과정을 겪음으로써 참된 아름다움에 대한 망각의 세계에 빠져버리고 말았다.…오랜 세월동안 점진적 과정을 거쳐 거짓 실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참된 실상 속으로 밀착하고 친숙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추구하던 철학의 목적이다.…플라톤이 말하는 참된 실상에 대한 점진적인 깨달음의 단계를 설명하는 영혼의 상승과정을 살펴본다면 첫 단계는 영혼의 각성 즉 우리가 걸음으로만 실재같이 보이는 것에 폭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비 실재에서 얻어진 참 실재에 대한 지식에 고착되는 단계로서 교육과 교정의 시기이다.…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정화를 이룬 사람은 본성의 아름다움, 곧 미를 발견할 수 있는 처지에 들어선다고 한다.

…플라톤 철학에서 미의 이데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 아주 중요한 방법은 옛 것을 회상하는 것이다 옛 것을 회상함이란 원래 실재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이성으로 사물(실재)을 꿰뚫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은 단지 이데아의 세계를 바라봄(관상)으로써 절대적인 선과 접촉하고, 그와 합일

을 이룰 수 있다. 인간이 이 바라봄을 통해서 완전한 자(영지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신(神)과 같게 되는 <同化> 것이다. 그래서 이 바라봄은 일상적인 바라봄을 초월하는 종교적(신앙적)인 바라봄(관상)이다 즉, 영혼은 자신의 ‘형상’을 알아보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본래는 ‘형상’의 세계에 거주하며 하늘 위에 속하는 신적 존재였다고 한다. 또한 영혼과 ‘이데아’ 사이에는 같은 유(類)이며 같은 본성(불멸성)을 지니고 있는 ‘동족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영혼이 ‘이데아’에 관한 지식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영혼은 본래가 신적인 것이어서 신의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영혼은 이 일을 ‘실상’과 ‘진’, ‘선’, ‘미’를 바라봄으로써 수행한다. 결국 플라톤 사상의 핵심적 내용은 불멸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인간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므로 바라봄(관상)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의 세계, 즉 신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神人同化)는 것이다.<sup>30)</sup>

방효익 신부는 「관상과 사적 계시」에서 관상기도의 기원이 된 플라톤 철학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관상기도의 기원이 된 플라톤 철학의 내용과 목적과 영혼의 상승과정(단계)과 그 방법 등을 무척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플라톤의 상승철학의 목적

인간의 영혼은 원래 영원한 진리, 혹은 실상(idea: 실재, 신)을 알아보고 있었으나 육신이 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진리(신)를 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망각하여 거짓 실상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참 실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 플라톤 철학의 목적이라고 하고 있다. 즉 상실한 인간 본연의 높은 실상(진리, 신)을 되찾게 하는 것이 이 플라톤 철학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30) 방효익, 『관상과 사적계시』, (서울 : 가톨릭출판사, 2006), pp. 11-15.

**(2) 플라톤의 상승철학의 목적 달성단계(영혼의 상승과정)**

이와 같이 참된 실상에 대한 점진적인 깨달음의 단계를 설명하는 것을 영혼의 상승과정이라고 한다.

첫 단계는 거짓 실상에 폭 빠져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영혼의 각성, 둘째 단계는 참 실재에 대한 지식에 고착되는 교육과 교정의 단계,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해서 정화(교육과 교정을 통하여)를 이룬 사람은 참 실상(진리, 실재, 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3) 플라톤의 상승철학의 목적달성 방법(관상)**

망각한 이데아(실상, 실재, 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되찾기 위해 아주 중요한 방법은 옛 것을 회상 하는 것 즉 원래의 실재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이성으로 사물(실재)을 꿰뚫어 보는 것(관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단지 이데아(실재)의 세계를 바라봄(관상)을 통하여서 절대적인 실재(신)와 접촉하게 되고 그 신과 합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이 관상(바라봄)을 통하여 완전한 자(영지자)가 되고 신과 동화(同化)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간단하고 아주 쉬운 방법 같이 보인다. 문제는 관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어렵다는 데에 있다.

이렇게 상실한 실체(신)를 회복한다는 관상의 방법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인간회복(구원)의 방법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인간회복의 방법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행에 빠진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참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의 이러한 상승철학이나 신비주의자들의 인위적인 관상기도 같은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것이므로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안다. 그런데 이러한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망각한 실재를 회복한다는 등의 주장은 스스로 속는 것이요 또 속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임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짓된 철학과 신비사상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히 찾지 못하게 하고 암흑 가운데서 헛수고를 하게하고 속아서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게 한다 그리하여 불행한 일생을 살다가 영원한 망각과 사망의 상태에서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상기도는 인위적이거나 더 깊이 들어가면 사탄적인 간계로서 인류를 기만하여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하게 하며 영원히 불행하게 만드는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 안다.

#### (4) 플라톤의 상승철학의 좀 더 구체적인 재정리

첫째, 영혼은 원래에는 하늘 위에 속한 신적인 존재였다

둘째, 영혼과 이데아(실재) 사이는 같은 유이며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는 동족(同族)관계가 성립된다.

셋째, 영혼이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찾는다는 것은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것과 같다.

넷째, 영혼은 본래가 신적인 것이어서 신의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일은 실상(진리, 실재, 신)을 바라봄(관상)으로써 수행한다.

#### (5) 결론 : 플라톤의 상승사상(철학)의 핵심적 내용

첫째 인간은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다.

둘째 인간은 관상(바라봄)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의 세계 즉 신적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神人同化)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관상을

통해 신이 된다는 것이다.

### ③ 플라톤의 상승철학의 한계

우리는 여기에서 관상기도의 기원이 된 플라톤의 상승철학의 한계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가야 하겠다.

이 플라톤의 상승철학은 (1) 인간이 타락함으로 상실한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애절(哀切)한 자력(自力)적인 지혜와 노력임을 보여준다. (2)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자력으로서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완전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3) 인간적으로 탁월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자신들의 지식의 절대한계를 모른 채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과 절대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된 노력임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렇게 불가능한 상승철학을 그대로 채용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의 회복(중생)을 위해서 주신 완전한 계시(성경)를 떠나서 즉,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렘 2:13) 불 신앙적이며 어리석은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비록 그들도 그 위에 다소 성경구절들을 인용하거나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출발이 인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철학적이며 인간적인 헛된 노력이므로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신비주의나 범신론이나 만유내재신론 등과 같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④ 관상기도의 기원이 된 플라톤 상승철학의 오류

관상기도의 기원으로서 플라톤의 상승철학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만드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꼭 지적해 두고 싶다.

첫째, 플라톤의 관상기도 철학은 성경진리와 유사점은 있으나 성경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플라톤의 관상기도의 철학적 근거라는 이데아 사상은 아주 성경진리에 근접(近接)하는 듯이 보이거나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인간적 추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안다. 이러한 상상적인 이론을 성경진리와 유사하다고해서 그대로 그 모두를 진리로 수용하는 데에서 커다란 오류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실낙원과 인류가 상실하게 된 것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회복하는 길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둘째, 성경은 철학적 사색으로는 영원한 신과 그에 관계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은 자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진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범죄하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영원에 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없게 제한하신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 : 신 29:4, 마 3: 14-15, 행 28:26-27, 롬 11:8, 엡 4:17-18)

셋째,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극명(克明)하게 밝혀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좋을 것이다

영원한 진리와 계시(啓示)의 책인 성경과 계시의 완성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지름길을 무시하고 완전한 성경과 그리스도 계시 이전 옛날 철학자의 장님 코끼리 더듬는 식을

고집한다는 것은 크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관상기도 철학의 궁극 목표라는 신인일치나 신인동화 등은 비성경적이며 이교적이며 이단적인 사상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철학적이거나 이교적인 범신론이나 내재신론의 주장이며 실현 불가능하며 있을 수 없는 신기루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체험을 했다고 하면 자기최면이나 환상이나 심지어는 귀신의 기만적인 장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만물의 창조주이며, 섭리주이며 구속주로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차이가 있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영원히 구별되는 속성을 가진 신이다. 그것은 비공유적(非共有的: 절대적)속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인간이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의 고유한 특성들을 지니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공통되는 공유(共有)적(보편적普遍的) 속성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시하려는 것은 월권적이며 너무 무례하며 어리석고 오만불손(傲慢不遜)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줄 안다.

## 2) 관상기도의 간략한 발전과정

방효익 신부의 「관상과 사적계시」에는 관상기도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잘 기술하여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책의 내용의 일부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플라톤의 철학사상(이원론과 상승론)에 기원을 둔 관상기도 사상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필로와 플로티누스(204-270)와 프로클루스(412-485)의 신플라톤주의에 와서 더욱 강조되어서 더욱 신비주의적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표현은 다소 다를지라도 근본 틀은 결국 플라톤의 상승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31)</sup>고 한다.

플라톤의 철학은 신(神)중심적이며 내세적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독교 신학에 적용이 되었고 그 관상사상을 기독교에 전수시켰고 처음 천년동안의 기독교신학을 이끌어 올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기독교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졌던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통하여 기독교와 신비 사상적 차원과 철학적 차원에서 서로 만났고 필로와 교부들의 노력으로 관상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다.<sup>32)</sup>고 한다.

### ① 동방의 신비신학 계보

영성생활과 관상기도를 위하여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해야한다는 생각이 교부들에게서 발전되어 ‘거룩한 독서법’이 전수되었고 일부 수도자들과 누르시아의 베네딕(480-560) 성인에 의해 서방교회에 정착되었다고 한다. 그 후 11세기에 전례적 의미와 관상기도를 위한 방법으로 적극 권장되었으나 12세기부터 전례적인 의미가 강조되고 성무일도로 대체되면서 거룩한 독서가 수도원에서조차 소홀하게 여겨졌다<sup>33)</sup>고 한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140-215)의 관상론은 좀더 성서적이었으나 그의 제자 오리게네스는 성서를 인용하기는 하되

31) 방효익, 『관상과 사적계시』, (서울 : 가톨릭출판사, 2006), pp. 16-19.

32) 같은 책. pp. 20-21.

33) 같은 책. pp. 43-50.

그의 관상에 대한 주장은 플라톤의 사상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의 영향은 중세기를 지나면서 꽃을 피웠고 일시적으로 아타나시오의 성경적 복음적 신학이 우세했으나 신플라톤주의적 신비신학, 즉 오리게네스의 관상에 대한 이론이 다시 이어져왔다<sup>34)</sup>고 한다

그 다음에 니사의 그레고리오(335-394)에 와서 관상기도라는 용어가 제대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결국 그가 전개한 신비신학도 오리게네스(185-220)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전통이었다. 그리고 디오니시오도 오리게네스와 그레고리오와 같이 영적 성숙의 3단계를 똑같이 설명하고 있다.<sup>35)</sup>

## ② 서방의 신비신학 계보

서방의 신비 신학적 관상기도에 대하여 대표적 인물을 보면 아우그스티노(354-430) 성인과 대 그레고리오 교황과 성 베르나르도(1090-1153)와 카르투시오 수도회의 수도원장들과 빅토리오의 수도원장들 특히 토마스 갈로(1246)에 의해 명맥이 유지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예수회의 창설자 로욜라의 이냐시오(1491-1556)와 예수의 성녀 테레사(1515-1582)와 토마스 데 아퀴노(1225-1274) 등등과 『독일 신학』의 저자와 영국의 『무지의 구름』의 저자 등이 천주교의 신비 신학적 관상기도를 이끌어 왔다<sup>36)</sup>고 한다

## ③ 중세의 상속자들

중세를 지나서 천주교에 계속 관상기도를 이어온 사람들은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1567-1622)과 시토 수도자 토마스 머튼(1915-1968)과

34) 같은 책, pp. 51-71.

35) 같은 책, pp. 73-96.

36) 같은 책, pp. 99-127.

십자가의 성 요한(1542- 1591)과 말로니 그리고 엔조 비앙키 등이<sup>37)</sup> 중세 이후의 관상기도를 이어받았다고 한다. 이 중에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영향을 끼쳤던 경건한 인문주의자이며, 토마스 머튼은 최근에 그의 저서를 통하여 천주교의 영성훈련과 관상기도로 기독교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다.

이상으로 천주교의 관상기도의 기원과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천주교의 수도자들로부터 전달되어 오고 있는 관상기도는 그 뿌리가 성경이 아니고 동방의 이교적 신비주의와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출발한 상승철학이며 광신적신비주의 라는 사실이다.

## (5) 관상기도의 방법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천주교에서 전달되어 오고 있는 관상기도의 방법들이 사람에 따라서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기본 틀은 한 가지인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방법은 상당히 성경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 결국에는 똑같은 것을 약간씩 변형시킨 것임을 볼 수 있다.

### 1) 관상기도의 기본방식(플라톤의 영혼의 상승과정 삼 단계)

플라톤이 말하는 참된 실상(이데아)에 대한 점진적인 깨달음의 단계

---

37) 같은 책, pp. 138-142.

를 설명하는 영혼의 상승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단계는 영혼의 각성, 즉 우리가 겉으로만 실제같이 보이는 것에 폭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비 실제에서 얻어진 참 실제에 대한 지식에 고착되는 단계로서 교육과 교정의 시기이다...실제에 대한 참 지식에 도달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윤리적으로는 물론이요 지성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스스로를 정화해야한다. 바로 여기에서 참 실제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자기조절 능력향상, 즉 정화를 위한 노력의 형태(수덕과 금욕주의)가 대두된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정화를 이룬 사람은 본성의 아름다움, 곧 미를 발견할 수 있는 처지에 들어선다고 한다...영혼은 본래가 신적인 것이어서 신의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영혼은 이 일을 ‘실상(idea)’과 ‘진’, ‘선’, ‘미’를 바라봄으로써 수행한다 결국 플라톤 사상의 핵심적 내용은 불멸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므로 바라봄(관상)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의 세계 즉 신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神人同化)는 것이다<sup>38)</sup>

이상의 플라톤의 영혼의 상승과정 삼 단계는 앞서서도 조금 언급되었지만 다시 정리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첫 단계: 영혼이 참 실재를 망각하고 거짓 실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단계이다.

② 둘째 단계 : 영혼의 참 실재를 되찾기 위해 교육과 교정의 시기로 윤리적으로나 지성적인 노력으로 스스로를 정화하는 수덕과 금욕의 단계를 말한다.

③ 마지막 단계 : 둘째 단계의 정화를 이룬 사람이 본래의 신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실상과 진 선 미를 바라보(관상)는 단계이다

결국 플라톤 상승철학의 핵심적 내용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신

---

38) 같은 책, pp. 13-15.

적)인 존재이므로 관상(바라봄)을 통하여서 영원한 신의 세계에 자신의 깨달음과 정화하려는 수련의 노력과 관상이라는 정신적인 노력으로서 도달 할 수 있다(신인동화)고 주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관상으로 자신을 깨닫는 인간이 바로 신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불교에서 각자(覺者)가 부처(신)가 된다는 교설과 상통하는 이론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플라톤의 상승철학은 오늘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뉴에이지 사상과 일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세로부터 현대에 까지 이르는 관상기도란 결국 인본주의 철학과 사탄적인 뉴에이지 사상으로 이르는 중세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천주교를 지배해온 신비주의의 정체라 하겠다.

## 2) 관상기도의 일반적인 방식

위에서 본바와 같이 관상기도의 기본 틀은 플라톤의 상승이론이다. 이 철학이 신 플라톤주의자들을 통하여 좀 다르게 표현되고 그것이 기독교로 유입되면서 또 기독교의 옷을 입고 다르게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여러 사람이 이 관상기도에 대하여 약간씩 다르게 설명하고 가르쳤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중세에서 지금까지 기본적인 골격은 결국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천주교 신비주의자들의 하나님께 상승하기 위한 관상기도의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정이다.

① 정화(淨化) : 이는 일련의 의무를 행하면서 자신의 죄악된 성향과 욕구와 행위들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기도를 통해 육적이고 세상적인 쾌락을 거부하며 금식하는 것 등이다.

② 조명(照明) :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에 마음의 초점을 두고 영혼의 눈을 그 초점에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하며 하나님을 묵

상하는 작업이다(필자 주: 관상).

③ 하나님과 합일(合一) : 이는 조명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sup>39)</sup>

### 3) 천주교 교도권의 가르침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관상기도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아가 1,7)를 찾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교리서 958-960p). 방효익 신부는 이 네 가지를 다음과 같이 배열하고 있다.

우선 관상기도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다음으로, 관상기도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셋째로, 관상기도는 하느님 자녀의 기도이며,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고, 더욱 사랑하여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바라는 용서받은 죄인의 기도이다. 마지막으로 관상기도는 기도의 신비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방신부는 여기에 추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관상기도를 위해 정화와 침묵 그리고 비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체성사 역시 관상기도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서…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에서 그분의 신비를 맛보고 (sapere-sapientia),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천적 원리들을 따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가르침도 놓치지 않는다.<sup>40)</sup>

39) 박순용,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 (서울 : 부흥과 개혁사, 2009), p. 215.

40) 방효익, 『관상과 사적계시』, (서울 : 가톨릭출판사, 2006), pp. 144-146.

이를 보면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관상기도 방법도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라든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고 더욱 사랑하여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바라는 용서받은 죄인의 기도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키는 것이라든지 기도의 신비라든지와 추가 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화와 침묵, 비움의 중요성,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에서 그분의 신비를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천적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관상)”이라는 전통적인 가르침도 놓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가톨릭 교리서가 제시한 관상기도 방법도 플라톤과 그 이론을 계승한 중세적인 관상기도를 약간 변형시켰으나 골자는 동일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저자의 추가 설명에서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성체성사가 관상기도의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실천적 원리들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관상하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가르침을 주장하는 등을 통하여서 전통적인 관상기도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천주교 관상기도의 대표적인 「예수기도」의 방법

천주교의 관상기도 중에서 간략한 대표적인 기도는 ‘예수기도’이다. 그런데 이 기도는 성경과 교회의 오랜 전통 안에서 가장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로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에게(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혹은 “주님(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형태의 짧은 기도는 동방교회에서 초기부터 많이 애용되었고, 기독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형태의 기도를 볼 수 있다(만트라식 기도: 주문식 기도)<sup>41)</sup>고 한다.

41) 같은 책, pp. 279-280.

이 예수기도는 주로 호흡에 맞추어 하는데 (맥박에 맞추기도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먼저 숨을 들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를 드리고, 내쉬면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드린다. 각 부분이 너무 길다고 느끼면 “예수 그리스도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도 된다.<sup>42)</sup>

이렇게 짧고 간단한 예수기도가 수도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6세기 이후라고 한다. 그리고 이 기도를 화살기도라고도 하며 청원기도라고도 하는데 오랜 수련을 통하여서 숙달될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 정신집중이 되기 쉬우며 많이 반복하면 관상기도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 예수기도방법이 수도원 뿐 아니라 어디에서나 많이 편하게 사용하면서도 관상기도의 효과로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과 일치를 누릴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천주교회의 고유한 ‘예수기도’는 “목주기도”를 꼽을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 ‘예수기도’가 힌두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의 만트라식 기도형태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그 기도가 이방 종교의 만트라식 주문기도와 닮았다는 것이다. 또 이 말은 ‘예수기도’가 이러한 이방종교의 주문을 본받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아심을 갖게 하기도 한다.

여기에 참고로 만트라(mantra)(진언(眞言)에 대한 한국브리태니커 사전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만트라(진언)는 힌두교와 불교에서 신비하고 영적인 능력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신성한 말(구절·단어·음절)을 큰 소리로 또는 마음속으로만 부르면서 일

42) 정대식, 『목상기도의 방법』, (서울: 가톨릭 크리스찬, 2003), pp. 135-136.

정시간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 한 번에 끝내기도 한다 대부분의 진언은 말 자체에는 의미가 없으나 심오한 의미가 내재한다고 생각되며 영적인 지혜의 정수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특정 주문을 반복 암송하거나 명상한다면 탈아(脫我)의 경지로 들어가게 되며 높은 차원의 정신적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 정신적 깨달음 외에도 심리적이거나 영적인 목적, 예를 들어 사악한 영들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여러 종류의 진언을 사용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신성하고 정성이 지극한 이런 ‘예수기도’에 대하여 의심하며 엉뚱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의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며 무엇보다 교회 역사상 진정한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의 기도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방종교적인 주문과 같지 않은가 의심을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 형태가 이방종교들의 만트라를 닮았기 때문이다. 이런 기도를 수천 번 혹은 만 번 이상씩 반복하여 하는 중에 많은 기쁨을 느끼며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과 사적계시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일종의 최면상태에 빠지거나 환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모든 관상기도에서와 같이 하나님 말씀중심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진지하게 드리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고 인위적이고 이교적인 방법의 기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염려인 것이다.

무엇보다 일부의 관상기도와 ‘예수기도’도 성경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렇지라도 그들의 명확한 접근방법은 인위적이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관상기도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기도’는 비성경적이며 이교적인 아주 그릇된 기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상으로 천주교의 관상기도 방법을 가장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그 표현방법도 다양하

다. 그래서 언뜻 보면 관상기도가 성경적이며 건전한 것이라고 오판하기 쉽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모든 방법이 결국에 가서는 플라톤의 상승이론을 본뜬 철학적이며 인위적인 방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운동의 용어를 바꾸어서(관상이라는 용어를 숨기고) 영성기도, 침묵기도, 묵상기도, 마음기도, 향심기도, 경청기도, 호흡(숨)기도 등 다양한 용어로 위장하고 있다.(크리스천인사이드, 제 36호, 2011년 6월 13일(10))

이러한 방법과 용어를 자주 바꾸는 것은 일종의 위장으로서 관상기도의 잘못된 실체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떳떳하지 못한 행위이며 기만이라는 죄악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는 관상기도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5) 관상기도 방법의 결말

천 오백여년 간 이어온 천주교의 관상기도방식을 요약해 보았다. 그런데 플라톤 철학을 본받아 출발하였고 교부들과 여러 학자와 수도사들을 통하여 전해 내려온 이 관상기도가 얼마간은 성경적인 시도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천주교 교리서는 이를 성경적이 되도록 기도(企圖)하고 있지만 옛날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관상기도의 기본 틀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출발부터 잘못된 관상기도는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던 이교적이며 범신론적이며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최근 20세기에 와서 다시 활발하게 꽃피고 있는 뉴에이지 사상과 결합되고 있는 크게 우려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시작된 인본적이며 인위적인

형식의 관상기도의 결말이 무엇이겠는가? 분명히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기도예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이교 철학과 이방 종교를 본받아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방식대로 창안하여 낸 이러한 기도가 인간적으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이는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잘못된 기도운동이 신앙생활과 천주교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 동안의 천주교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중세 천주교의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한 것이 이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들의 양산과 윤리적인 부패와 미신적인 예배의식들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 더 우려되는 바는 이러한 영성훈련과 관상기도운동이 최근에 또 다시 활발하게 부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개혁교회들에게 까지 이러한 기도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더 더욱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즘 천주교는 교회 일치운동이라는 미명의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이러한 영성훈련과 기도운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위한 일치운동인가? 개혁교회를 위한 것인가? 천주교회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세계통치를 위한 것인가? 그러나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지 이러한 근본적인 기도생활의 오도는 무엇보다 커다란 죄악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엄숙하게 신도들의 기도생활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이 엄숙한 역사적 책임을 저버리고 신도들과 교회와 세상까지 오도하게 되는 잘못된 기도운동을 청

산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 (6) 관상기도와 사적계시

### 1) 사적계시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어떠한 신비한 영적체험을 했다는 이들이 종종 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도 관상기도 중이나 다른 경우에 이러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체험을 사적계시라고 한다.

사적 계시(私的啓示) (영: private revelation) 에 관해 한글-라틴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특수하거나 특별한 경험 예컨대 발현 *apparentia*, 환시 *visio*, 들음 *auditio*, 예언 등과 같은 현상들을 통하여 개인에게 전해진 계시. 공적계시와 반대되는 것.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완전한 일치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셨기에, 공적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전해져 내려온 성서와 성전(聖傳)을 통해 완성 됐다 수세기가 흘러 「사적계시」 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그중 몇몇은 교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 사적계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정된 계시를 「완성」 하기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시대에 더 깊이 공적계시의 정신대로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 있는 것이다. 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적계시는 파티마, 루르드 아끼다 등에서 일어난 기적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시대의 징표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sup>43)</sup>

### 2) 천주교가 인정하는 사적계시

43) 이순용·마르꼬 엮음, 『한글-라틴·라틴-한글 辭典』, (서울 : 한국천주교 회교회사 연구소, 2009), pp. 641-642.

여기에서는 관상기도와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천주교가 인정 한 사적계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술하려고 한다.

천주교의 전문가들은 성모발현이 지금까지 최소한 2만 1000번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성모발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곳은 아홉 곳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른 17개의 발현처는 관할 주교가 최종적인 판단과 관계없이 성모 발현지를 공경해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고 한다.(「가톨릭에 관한 상식사전」 221p. 「천주교 용어사전」 241p.)

이는 이러한 곳에서 마리아가 발현하여서 환상으로 보여주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메시지로 전해준 내용은 사적계시로 인정하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런 곳에 세운 성모상에 공경을 바치고 성지로 인정하여서 순례를 행하게도 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의 내용을 믿을 뿐만 아니라 교리로 제정한 것도 있다 발현한 마리아가 전한 사적계시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531년 12월 9일에 멕시코 과달루페에 나타난 성모는 “나는 평생 동정이며, 하느님의 어머니임을 알려지기를 원하고, 어려울 때에 정성을 다해 나를 찾는 이들에게 나의 자비를 드러내도록 이 자리에 성당을 짓기를 바란다.”하였다

그리고 1830년 11월 27일에 프랑스 튀 뒤 박에 나타난 성모는 지구 위에서 두 팔을 지구위로 활짝 펼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위에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당신께 의탁하는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프랑스 루르드에 1858년 2월 11일로 7월 16일까지 18회에 걸쳐 나타난 마리아는 자신을 ‘원죄 없는 잉태된 자라고 밝히면서 기도와 보속행위, 회개를 촉구하였으며 특히 묵주기도를 권장하였다고 한다

또한 1932년 11월 29일에 벨기에의 보랭에 발현한 마리아는 흰 옷에 황금관을 쓰고 양손을 들어 티 없는 황금빛 성심을 드러내 보이고 자신을 ‘원죄

없이 잉태된 티 없는 동정녀, 하느님의 어머니요 천상여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sup>44)</sup>

이상으로 본 몇 곳의 발원처에 나타난 마리아의 사적계시는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들 중의 몇 가지이다. 그런데 이 네 곳에 발원한 마리아의 사적계시가 그들의 교리에는 일치 할지 모르나(마리아 무 원죄 잉태교리는 뒤 뒤 박의 사적계시에 의해 교리화 되었다고 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없으며 성경말씀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정된 교리를 완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더 깊이 공적인 계시대로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 무원죄 잉태교리에서와 같이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사적계시를 통하여서 교리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이러한 사적계시들이 장래에 정식으로 정통계시에 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리제조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음을(전통이라는 미명으로) 부인할 수 없을 줄 안다. 따라서 천주교의 사적계시들이 성령의 계시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3) 잘못된 사적 계시에 대한 경계

천주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적계시가 잘못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것은 성령을 통한 고식(古式)적 신앙교리가 아니므로 오해하거나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방효익 신부는 다음과 같이 경계하고 있다.

---

44) 김수창 발행, 『한국가톨릭대사전 제7권』, (서울 : 분도출판사, 1999), pp. 4592-4593.

잘못된 습관에서 사적 계시라고 불리는 신비체험은 성령을 통하여 발설되는 신앙 교리에 대한 선포가 아니므로 인간의 미래에 대한 구원적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처럼 이해하거나 무조건 믿으려 해도 안 된다<sup>45)</sup>

#### 4) 사적계시를 천주교가 받아들이는 경우

방효익 신부는 천주교가 사적계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 ①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교회정신에 잘 부합한 것

그럼에도 사적 계시라고 표현되는 영적 체험과 그에 동반되는 현상들(환청, 환시 등)을 교회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것이 공적 계시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다. 다만 그런 현상들이 때로는 공적 계시의 본질적인 의미를 모호하게 할 수도 있지만 복음의 가르침과 ‘교회 정신’(con-scientia ecclesiastica: 친교, 일치, 선교, 사도직에 참여)에 잘 부합하는 가운데 시대적 징표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sup>46)</sup>

천주교가 사적계시를 받아들이는 이유를 이상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공적계시와 동일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이 결코 아니고 그것이 공적계시를 훼손할 위험성도 있지만 복음의 가르침과 교회정신(친교, 일치, 선교, 사도직에 참여)에 잘 부합하며 시대에 적절한 징표로 드러나는 경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 성경에 어긋나거나 위배되는 것일지라도 현재 천주교에 유익하고 시의적절한 것이라면 받아들인다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다.

45) 방효익 지음, 『관상과 사적 계시』,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06), p. 233-234.

46) 같은 책, p. 234.

## ② 사적계시의 진위 판단의 기준

방 신부는 사적계시의 진위 판단의 기준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공적 계시인 성경과 성전,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에 일치하느냐, 혹은 체험자 자신에 대한 섬세한 자기 관찰과 진실한 자아인식이 얼마나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신비체험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47)</sup>

사적 계시의 진위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된 이상의 주장에서 천주교의 벽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성경 이외에 전통(성전)과 천주교의 교리를 사적계시의 진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대 교회와 정통기독교의 견지에서 본다면 외경까지 포함하고 천주교의 전통과 잘못된 교리들까지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7) 천주교의 영성훈련과 관상기도의 최근 발전상황

천주교의 영성훈련과 관상기도는 오래된 과거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발전되고 있는 상황은 더욱 지대(至大)한 관심을 끌고 있다.

### 1) 중세 수도원적 관상기도의 새로운 유행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에서 박순용목사는 중세의 신비

---

47) 방효익 지음, 『관상과 사적 계시』,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06), p. 240.

주의적인 영성운동과 관상기도가 마치 새로운 것인 양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의 이러한 지적은 옛날 초대교회에서부터 경계했고 종교개혁자들이 배격했던 중세의 신비주의와 관상기도의 새로운 유행의 위험성을 개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가 다시 중세에로 회귀(回歸)하는 퇴보를 경계하는 것이며 다시 영적인 암흑시대가 도래할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전에 초대 교회에서 경계했고 종교개혁자들이 배격했던 신비주의를 마치 새로운 영성인 양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주관적 체험을 추구하는 중세 수도원적 신비주의의 현상 중에서 다시 유행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관상 기도이다<sup>48)</sup>

## 2) 현대 관상기도 운동의 기원

그동안의 관상기도 운동과는 다른 양상의 관상기도 운동이 현대 관상기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중세 관상기도 운동은 플라톤의 상승철학과 동방정교회와 동방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되어 왔는데 현대 관상기도운동은 그 위에 좀 더 나아가서 불교와 힌두교 등 이방종교의 영향과 뉴에이지운동의 영향 등 다양한 이교적 신비주의의 영향까지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① 가톨릭 수사 토마스 머튼(1915-1968)

아무래도 천주교의 현대 관상기도 운동의 선두주자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관상기도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이 되었다. 관상기도는 머튼이 나오기 오래전 중세 초기부터 전래되어

48) 박순용,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 (서울 : 부흥과 개혁사, 2009), p. 215.

왔지만 머튼은 이 운동을 수도원에서 끌어내서 일반대중에게 전파한 관상기도의 전도사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머튼의 특색은 관상기도를 과거보다는 노골적으로 라마교나 선불교와 결합시켜서 전파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선불교를 천주교에 응용하여 영성신학과 관상기도를 개발한 종교 다원주의자이다. 그는 관상기도를 중세적인 어두운 천주교의 늪에서 이끌어내어서 모든 종교의 영성과 혼합시키고 심지어는 뉴에이지와 합류되게까지 한 공헌자가 되었다. 그리고 명실공(名實共)히 천주교의 관상기도가 세계종교를 혼합시키는 주도자가 되게 하였다.

루터 킹과 인권 운동, 헨리 포드와 자동차가 연결된다면 토머스 머튼은 관상기도와 연결된다 물론 이 기도 운동은 머튼이 나오기 수 세기 전에 이미 존재 했지만, 머튼은 이 기도를 수도원에서 꺼내어 대중에게 소개하고 대중사에서 유행시켰다 내가 볼 때 토머스 머튼은 최근 몇 년 사이 어떤 인물보다 기독교신비 운동에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이다<sup>49)</sup>

토마스 머튼은 누구인가? 토마스 머튼은 평소에 친구로 지낸 달라이라마나 틱 낫한 승려에게서도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가장 절친한 마음의 친구였던 일본의 스즈키 선사로부터 선불교를 기독교에 응용하여 마음의 신학 영성신학을 만들고, 관상기도를 개발한 종교 다원주의자이다<sup>50)</sup>

## ② 가톨릭수사 토마스 키팅 (1931~2005?)

토마스 머튼의 뒤를 이은 천주교 수도사 토마스 키팅도 현대 천주교 관상기도 운동의 창시자라고 불릴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 머튼이

49) 레이 윤젠, 『신비주의와 손 잡은 기독교』, (서울 : 부흥과 개혁사, 2009), p. 92.

50) 립헌원, 『Christian Inside』, 36호, 2011.6.13. p. 3.

죽은 뒤에 그가 지냈던 수도원 원장인 키팅은 머튼의 관상기도 방법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개신교에까지 확산시키는데 더욱 공헌하였다. 많은 개신교회가 그들의 영향에 감염되어서 성경에 계시된 정통적인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 관상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는 불신앙과 무지와 어리석음의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가 있다. 참으로 개탄(慨嘆)스러운 현실이다.

1975년 토마스 머튼이 죽은 지 몇 년 지나서, 그가 있었던 미국의 트라피스트 수도원 원장인 토머스 키팅이 그 기도 방법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급기야는 개신 교회에까지 들어온 것이다 오늘날 개신 교회는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졌던 관상기도를 수용하여, 성경에 계시된 은혜의 방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대신에 “침묵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시도한다. 그리고 그런 시도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특히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참된 신앙의 표지처럼 강조한다.<sup>51)</sup>

### 3) 현대 가톨릭 영성 운동으로 재편, 확대되고 있는 관상기도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천주교(교황)가 이러한 관상기도의 재발견(개발)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관상기도의 재발굴이 없으면 천주교가 혁신되어 기독교와 세계종교를 주도 할 수 없으리라는 암시까지 엿볼 수 있다. 이어서 분명히 교황은 수도원들이 이렇게 관상기도를 재개발하여서 평신도들 뿐 아니라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까지도 관상기도를 받아들일도록 하여서 천주교의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1) 박순용, 『Christian Inside』, 39호, 2011. 10. 10. p. 3.

교황 성하께서는 교회가 관상의 전통을 재발견하지 않으면, 갱신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구체적으로 수도원들을 거명 하셨는데, 수도원들이 관상적인 삶을 살고 있으므로 평신도들과 다른 종교인들이 자신의 삶에 이러한 차원을 열어 가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sup>52)</sup>

#### 4) 천주교를 넘어 기독교로 번져가는 관상기도

중세초기로부터 천주교에서 싹터서 중세 암흑기와 근대를 거쳐서 발전되어온 관상기도 운동은 현대에 와서 더욱 활기를 띠고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리고 특히 이는 천주교의 담장을 넘어서 많은 개신교회들에게 까지 흘러들어가고 있다.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 하며 신앙과 기도보다 행동을 앞세운 개신교의 자유주의와 사회정치적인 행동주의는 영적으로 매우 고갈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저버리고 스스로 밀 터진 웅덩이를 판 이스라엘 백성(렘 2:13)과 같이 물을 저장하지 못할 관상기도에 속아 빠져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관상 영성은 가톨릭교회의 담장 밖 너머로까지 퍼졌다. 주류 개신교단들(성공회 연합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연합그리스도의 교회 등)이 관상이라는 물줄기 앞에서 양분됐다. 20세기 개신교 자유주의 전통과 사회정치적인 행동주의는 영적 체험에 영적으로 너무 고갈되고 목말라해 왔다.<sup>53)</sup>

#### 5) 관상기도는 뉴에이지 운동의 한 요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천주교에서 흘러나온 이 관상기도가 뉴에이지 운동의 한 요소임이 입증되며 뉴에이지 수련자들의 고유한 수련법중

52) 레이 윤겐, 『신비주의와 손 잡은 기독교』, 재인용, (서울 : 부흥과 개혁사, 2009), p. 58. 재인용.

53) 같은 책, p. 60.

의 하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오늘날 천주교의 관상기도가 뉴에이지사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관상기도가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왔음과, 그것이 뉴에이지운동의 한 요소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사실 뉴에이지 수련자들은 관상기도를 그들 고유의 수련법중 하나로 여긴다.<sup>54)</sup>

## 6) 뉴에이지 운동의 영적원리들이 가톨릭 신앙의 주류로 곧 편입, 재편될 것.

더 놀라운 사실은 가톨릭 출판사 협의회 전 회장 마이클 리치의 다음과 같은 노골적인 주장이다.

많은 사람이 뉴에이지 운동에 깔려 있는 영적인 원리들이 가톨릭 신앙의 주류로 곧 편입 아니 재편입 될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 이런 일이 바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sup>55)</sup>

이 주장은 바로 지금 미국 천주교에서 관상기도 운동을 통하여 뉴에이지 운동의 영적인 원리들이 그들의 신앙의 주류로 다시 편입될 것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미국(앞으로 모든 나라)의 천주교가 뉴에이지 사상에 동화(흡수)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관상기도 자체와 그를 통하여 천주교 자체가 뉴에이지 사상에 휩쓸려 들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

---

54) 같은 책, p. 68.

55) 같은 책, p. 57. 재인용.

은 천주교의 근본을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다.

## 7) 관상기도의 최종적 결과는 혼합적 영성을 성취하는 것.

레이 윤겐은 관상기도의 최종 결과인 혼합적인 영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관상 기도 of 최종적인 결과는 혼합적인 영성이다 뉴에이지 전도사였던 브라이언 플린은 혼합 영성을 신비주의라는 공통의 실마리를 통한 세계 종교의 연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플린은 웨인 티즈데일(혼합 영성이라는 말을 만든 비직업인 수도사)이 혼합 영성에 대해 한 말을 인용하고 있다. “혼합 영성이란 세계 종교 가운데 존재하는 영적인 공통분모다.”<sup>56)</sup>

이 설명은 먼저 관상기도의 최종적인 결과는 혼합적인 영성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관상기도는 결국에 모든 종교나 신비주의의 영들을 혼합시키는 결과에 도달하게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뉴에이지 전도사였던 브라이언 플린과 웨인 티즈데일의 혼합영성에 대한 정의를소개하고 있다. 전자는 혼합영성을 신비주의를 통한 세계종교의 연합이라고 하며 후자는 세계종교 가운데 존재하는 영적인 공통분모라고 한다. 이들의 정의로 보면 결국 관상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신비주의를 통해서 모든 세계의 종교를 연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또한 세계의 모든 종교의 공통분모를 살려서 모든 종교를 연합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상기도란 결국 혼합적인 영성을 살려서 세계의 모든 종교를 연합시키는 최종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도구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

56) 같은 책, pp. 76-77.

8) 관상기도는 하나의 세계 종교를 위한 동화 노력의 하나라는 것.

레이 윤젠은 더 나아가 천주교가 관상기도를 통하여 천주교의 관상기도와 닮은 전통을 가진 이방 종교와의 동화노력을 추진하고 있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 가톨릭 피정지도자는 이런 개념을 제시했다. “오늘날 가톨릭교도들은 다른 종교 전통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말은 동떨어진 권장 혹은 교훈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머튼화(Mertonization: 이미 몸을 담은 종교에 남아 있되 동양적인 신비주의에 동화 노력을 하는 것)가 바로 이것이다. 다양한 종교들 안에서 신비한 통합, 이것이 머튼의 꿈이 이루어진 상태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의 세계 종교는 이미 등장했다<sup>57)</sup>

여기에서 천주교도들에게 다른 종교 전통(관상기도 류의)에서 하나님을 찾을 의무가 있다는 말은 천주교인들이 의무적으로 다른 종교와 혼합(동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천주교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동양종교적인 신비주의에 동화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관상기도의 노력을 함으로서 다양한 종교들과의 신비한 통합을 이루는 것이 토마스 머튼의 꿈이며 천주교의 목표임을 암시하고 있다

### 9) 가톨릭 신학자 헨리 나우웬(1932-1996)의 선포.

레이 윤젠은 계속해서 천주교 신학자로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헨리 나우웬의 글을 인용하여 비판하고 있다.

---

57) 같은 책, pp. 201-202.

만약 헨리 나우웬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존재하는 온 세상의 연합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이 옳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역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영이나 가르칠법한 말이다<sup>58)</sup>

그는 헨리 나우웬의 “우리는 존재하는 온 세상의 연합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 만만한 공포에 대하여 엄격하게 비판하고 있다. 나우웬의 이러한 큰 소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쨌든 그의 말이 맞다면 그리스도와 사탄도 완전히 연합시킬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신도 완전히 연합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사탄이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많은 저술로 주로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나우웬의 이 한 마디만 보아도 그의 신앙이 성령을 따르는 것인지 다른 영을 따르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어떤 인물의 언행의 어떤 면만 보지 말고 그의 신앙과 언행 전체를 보고 냉정히 판단해야 할 줄 안다.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잘못된 종교의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을 추종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과오에 빠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좋을 줄 안다.

#### 10) 기독교를 잠식하는 뉴에이지 비밀 종교의 수법.

레이 윤젠은 뉴에이지 비밀종교는 기독교를 적대하여 탄압하고 내 버리기보다는 기독교에 신비사상(관상기도 등)을 섞어서 뉴에이지 의식을 전파하고 확산하는 주요 도구로 이용하려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관상기도라는 역사 깊은 방법을 기독교에 계속 침투시켜서 그것으로 기독교를 점령하여서 결국 뉴에이지 종교로 변종시켜서 세계를 향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

58) 같은 책, p. 212.

비밀 종교는 기독교를 적대하기 보다는 기독교에 신비사상을 섞고, 이로써 뉴에이지 의식을 전파하고 확산하려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sup>59)</sup>

### 11) 뉴에이지 운동은 멸망의 아들의 영적 발판일 것.

레이 윌슨은 자신은 "도래하는 물병자리시대의 메시아"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2: 2-3)에 예언한 멸망의 아들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이 그 멸망의 아들의 영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멸망의 아들의 출현을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세상을 조종(다시 편성)하고 있는 사실을 주시해보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 재림직전에 일어날 멸망의 아들(불법의 사람)의 출현이 뉴에이지 운동가들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의 재림이 급박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줄 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뉴에이지자들의 활동을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어야 할 줄 안다.

바울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살후 2:3,4)이라 불리는 자가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기도 할 것이라 밝힌 사실은 흥미롭다. 나는 이 도래하는 물병자리 시대의 메시아가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언급한 멸망의 아들일 것이라고 믿는다. 게다가 뉴에이지 운동이 멸망의 아들의 영적발판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연이라고 보기에 너무나 많은 것이 서로 들어맞는다. 따라서 멸망의 아들의 도래와 정체의 드러남을 위해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개편하고 있는 모습을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한다.<sup>60)</sup>

59) 같은 책, p. 199.

60) 같은 책, p. 184.

또 레이 운젠은 주님의 목인 아래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하여 뉴에이지적인 신비운동이 도처에 신속하고 강하게 확산될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러한 모든 현상이 저 뉴에이지 운동이 목표하고 있는 새 시대의 지도자인 불법의 사람의 출현을 재촉하는 활동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신비주의(뉴에이지 관상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모두 하나다”는 기치 아래에 불법의 사람을 출현시켜서 하나의 세계를 통치하게 하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의 세계정부 통치자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불법의 사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예언(살후 2:1-12)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올 역사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사건임을 기억할 때 지금은 이러한 긴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경성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가까운 장래가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도록 목인하실 것이다. 그동안 세상은 신비주의의 우산아래 장차 출현할 하나의 영성을 두 팔 활짝 벌려 맞이하기 위해 팔 운동을 하고 있다. 신비주의 영향 아래 서로 연관된 주제는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것이다.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 하나의 세계경제와 정치 기반을 만들 권력을 잡을 때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그리스도의식에 몰입하도록 많은 자를 유혹할 것이다.<sup>61)</sup>

**12) 뉴에이지의 정치적 목적(세계정부지도자의 출현)에 이용당할 것.**

---

61) 같은 책, p. 206.

레이 윤겐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엘리스 베일리(뉴에이지라는 말을 만든 유명한 신비주의 여선지자)의 저작들은 신비종교 추종자들에게 다가오는 계몽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천문의 시대(물병자리 시대)의 세계의 해결사요 구제자의 등장을 예고하는 예언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구제자를 "오시는 이"라고 불렀고 그가 전 인류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구제자는 기독교가 고대하는 재림주 그리스도는 결코 아니고 모든 신비종교가 예언한 인간의 신성과 완전성을 성취할 완전한 인간이라<sup>62)</sup>고 했다.

그리고 베일리의 한 추종자가 말한 이 아바타(세계 지도자)의 재출현은 비학(신비종교) 전통뿐 아니라 많은 종교에서도 예언된 계몽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시대의 세계지도자로 명시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소위 "오시는 이"와 아바타(세계 지도자)는 성경이 예언한 <멸망의 아들>이 분명하다고 믿는다<sup>63)</sup>고 했다 그러므로 이 멸망의 아들은 아래 말씀에 명확히 예고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악한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리므로 하나님은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하시라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하심 이니라.(살후 2:9-12)

저들이 예고하는 “오시는 이”는 요한 계시록(13:1-9)에 예언한 마지막 42개월간의 세계 통치자 짐승(적그리스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뉴에이지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신

---

62) 같은 책, p. 183.

63) 같은 책, p. 184.

비주의(관상기도) 운동의 정체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서 그들에게 속아서 정치적 적그리스도에게 악용당하고 중국에는 그들과 함께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경성하여 경계해야 될 줄 안다.

## (8) 천주교의 관상기도에 대한 비판

### 1) 관상이라는 용어자체의 문제

립헌원 목사는 '관상'이라는 용어 자체로부터 그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먼저 관상이라는 용어 자체만 보면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자세가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을 응시하여 보고 생각과 말과 감정을 뛰어넘어 모든 인식 활동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 영혼이 하나님을 응시하여 바라보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아니고 마치 불교의 명상과 수행을 통한 무아와 깨달음에 이르는 해탈의 경지를 추구하는 것과 같으며 인도의 명상가들과 옛날 중국이나 한국의 도사들이 도를 닦는 방법과 같아 보인다.<sup>64)</sup>고 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며 구원해주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마음과 사정을 말씀드리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상기도라는 용어 자체가 비성경적이며 비기독교적인 것이므로 엄격하게 경계해야 옳을 것이다.

64) 립헌원, 『Christian Inside』 16호 2009.8.3. p.10

## 2) 관상기도의 근본적 잘못

송삼용 목사는 관상기도가 근본적으로 잘못 전락(轉落)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막의 교부 시대부터 시작된 관상 기도는 가톨릭의 영성 훈련 방식으로 등장하면서 신비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전락되었다. 관상 기도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관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깊은 침묵에 이르다보면 하나님과 하나 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침묵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키워드이며, 통성 기도보다는 침묵을 통한 관상 기도로 영성을 훈련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sup>65)</sup>

① 관상기도는 그 출발부터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신비를 추구하여 체험하려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기도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여기에서 송 목사는 관상기도가 신비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전락되었으며 관상속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침묵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래부터 기독교의 기도는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께 구속받은 그 자녀들이 감사와 신뢰심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아뢰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상기도는 애초에 시작부터 그리고 그 발상부터 순전히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대화적인 기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신을 찾고 그 신비의 체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도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65) 송삼용, 『기독신문』, 2007.8.8. p. 26.

이라 하겠다.

② 그리고 관상기도는 성경에 완전하게 계시된 하나님을 겸손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다.

박순용 목사도 관상기도가 중생전의 루터와 같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철학에 뿌리를 둔 인위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신비주의가 중세 천주교를 뒤덮는 형편에서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 쳤던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핵심사상이 세상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비주의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류와 배도에 빠지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A.D. 500년부터 1500년 사이 중세시대에 신비주의가 형성되어 중세 교회를 뒤덮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 몸부림 쳤던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신비주의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신비주의 속 핵심 사상이 세상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을 오류에 빠뜨리고 배도를 부추기는 결과를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회심하기 전의 루터와 같은 모습, 자신들의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에게 이르고자 애쓰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결국 범신론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태도를 조장했습니다<sup>66)</sup>

그는 관상기도가 오히려 계시된 하나님은 무시하고 인간 스스로 신을 찾아 헤매며 신의 세계의 신비를 체험하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이며

66) 박순용, 『Christian Inside』, (36호 2011.6.13) p. 6.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계시된 말씀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그 세계를 체험하려는 노력은 신비주의자가 되고 심지어 광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열심히 신을 찾는다고 빠지기 쉬운 함정이며 마틴 루터 전이나 그 후나 온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에 접하지 못한 천주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곧잘 빠지는 수렁이라고 할 것이다.

### 3) 관상기도는 자기 최면 상태의 자기 확신

박순영 목사는 관상기도에 대하여 또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 누군가가 관상에 관하여 탁월한 웅변술로 주장하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관상기도는 자아(Ego)적 기도요, 자기 확신일 뿐 이다. 그 관상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쌍방대화가 아니고 자아를 향한 깊은 자아 최면 상태에서 자아에서 흘러나오는 자기 확신으로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을 듣는 것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또 다른 신비주의이며 인본주의적 기도이다.<sup>67)</sup>

그는 관상기도는 자아(Ego)적 기도이고 자기 확신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관상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쌍방 대화가 아니고 자아를 향한 깊은 자아 최면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자기 확신이며 독백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한다는 것은 최면적인 도취경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열심히 신비체험을 위하여 몸부림치거나 조용히 묵상을 깊이 그리고 오래 하다보면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접촉하여서 여러

---

67) 림현원, 『Christian Inside』, (11호.14호 특집, 2009.6.27) p. 10.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기도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4) 비성경적 자아 최면행각에 대한 경종

립헌원 목사는 비성 경적 자아최면 행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고하고 있다. 계속해서 립목사의 견해를 들어보자 립 목사는 이교나 천주교의 명상적인 관상기도의 틀에 기독교형의 탈을 씌우는 비성경적인 자아최면 행각을 비판하고 있다. 왜 일부 개신교 목회자들이 관상기도를 추종하면서 구태여 동양 종교의 단학선과 같은 초월적 명상과 이교도의 용어와 방법들을 사용하려 하는지 깊은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한 것이 수준 높은 중산층 이상의 귀족 교인들에게 고급스럽고 우아해 보이는 심리분석 방법적인 초월적 명상을 제공하며 또 기독교에 침투한 잘못된 철학과 이교적 방법인 관상 기도과 정신병의 다른 학설의 하나인 관상기도를 제공하기 위함인가를 묻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상기도를 도입하는 개신교 목회자들이 혹시 의도적으로 뉴에이지의 종교 다원주의를 전파하며 세계 종교 통합을 선도하는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려는 목표를 가진 것은 아닌지 의아해 하고 있다.<sup>68)</sup>

어쨌든 기독교는 이러한 비성경적이며 헬라 철학과 이교적이며 자아최면적인 관상기도를 교회에 도입하는 일은 어떠한 구실로라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동양 종교적이며 천주교적인 관상기도를 교회에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지성층과 귀족교인들에게 어필(appeal)하기 위해서 이렇게 헛되고 거짓되고

68) 립헌원, 『Christian Inside』 (11호, 14호 특집, 2009. 6. 27) p. 10

해로운 관상기도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더 더욱이 사탄적인 뉴에이지 종교다윈주의의 세계 종교 통합 운동에 결코 동조하거나 협력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자신과 교회를 영원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는 비극을 낳을 것이다.

**5) 관상기도는 종교적 본능을 이용하여 신비체험의 욕구를 채워주려는 유혹(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들이 관상기도를 선호하는 이유)**

림헌원牧사는 또한 개신교 목사들이 관상기도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유명한 개신교 목사들이 관상기도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관상운동가들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그들은 관상기도가 마치 부족한 경건 생활을 보충해주며 신앙생활에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새로운 목회 방법이라고 선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주한 현대교인들에게 일반 종교적인 본능을 이용하여 손쉽게 신비적 감정을 충족시켜주고 신비 체험을 갈망하는 욕구를 채워주려는 유혹 때문이라 한다.<sup>69)</sup>

오늘의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의 정도를 버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안이하게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기를 모으고 교세를 확장하려는 일은 진실로 목자의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행위가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줄 안다

**6) 관상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차단하여 기도를**

---

69) 같은 신문 (36호 2011. 6. 13) p. 10

## 사라지게 하는 이교도의 명상행위(관상기도의 음흉한 목적)

림헌원 목사는 다시 관상기도의 음흉한 목적에 대하여 예리하게 잘 지적하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상기도는 성경이 결코 요구하지 않는 이교도 방식의 주관적인 침묵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차단하여 기도가 사라지게 하는 이교도 명상종교행위로 한국교회에 급진적으로 파급되고 있다. 관상은 깨달음이 아니라 감정이고 직관적 느낌으로만 신적접근을 추구하며, 최면술을 겸한 이교도의 명상종교로 영성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기독교적인 것으로 포장하려하지만, 범신론적 또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sup>70)</sup>

림 목사는 계속해서 관상기도는 성경이 결코 요구하지 않는 이교도적인 명상을 통한 신비체험 추구 방법으로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차단하는 것이며 진정한 기도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사실은 실로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심령이 충족한 생활을 누리려고 하는 관상기도가 도리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차단한다는 말은 충격적인 사실이다.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결과가 진지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려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실로 믿어지지 않는 말이나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 황당(荒唐)한 일이다.

그럼 왜 관상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오히려 차단되게 하며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가 사라지게 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

70) 같은 신문, p. 10.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셨다. 그것은 죄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심령에 모시고 의지함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극명한 복음 진리를 외면하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이 관상기도이다. 이것은 성경말씀과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스스로의 의지와 고집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억지이다. 그러니 그런 억지 고집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의 기도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편 이 관상기도는 인간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사탄적인 음흉한 간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중세 천 오백여년간과 지금까지도 무수한 천주교인들이 이러한 관상기도 때문에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헛되고 거짓되게 속아 살아왔으며 흑암 중에 살게 된 사실을 생각해보면 애석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기독교회가 중세 관상기도보다 더 악화된 관상기도를 도입하여 가르친다는 것은 진실로 자멸의 길로 빠져드는 것이니 단연코 막아야 할 것이다.

## 7) 개신교회에 관상기도를 소개하는 이들의 표현의 미화

박순용 목사는 개신교회에 관상기도를 소개하는 이들의 표현의 미화에 대하여 잘 지적하고 있다

개신교회 안에 관상기도를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관상기도를 하나님과의 숭고한 만남으로 미화합니다 관상기도를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더 진실한 성도가 되고, 신앙의 내적 열매가 풍성해 지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리스도와의 일치(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sup>71)</sup>

천주교에서도 그렇지만 개신교회 안에 관상기도를 소개하며 장려하는 사람들은 관상기도를 크게 미화하여 말한다. 관상기도가 하나님과의 숭고한 만남을 가져다준다는지 관상기도를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더 진실한 성도가 된다고 한다. 또한 관상기도를 통하여서 신앙의 내적 열매가 풍성해지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리스도와의 일치(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관상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관상기도를 마치 이상적이며 효과적인 기도 방법 같이, 또 성경적인 기도와 같이 미화하여서 소개하며 선전하는데 이것은 크게 경계해야 된다 마치 사탄의 사탕발림과 같기 때문이다. 독약이 든 병에다 보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과 같은 기만행위이기 때문이다

## 8) 신비주의(관상기도)의 범신론적 배교실상

박순용 목사는 중세 신비주의가 거의 범신론으로 흘러갔다고 지적하고 있다.

1250년부터1500년 사이 신비주의는 거의 범신론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범신론으로 나갈 수 있을까?’ 모두 의아해 할 일이지만, 그런 일이 엄연히 역사 속에 일어났고 지금도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이들 가운데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신론이 무엇입니까? 범신론이

71) 박순용, 『Christian Inside』, (39호 2011.10.10), p. 3.

야 말로 배교의 실상 아닙니까? 신비주의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렬히 추구하고, 금욕을 실천하며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더라도, 그 궁극적인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반역입니다.<sup>72)</sup>

박 목사는 1250년부터 1500년 사이의 천주교 신비주의는 거의 범신론으로 흘렀고 지금도 그런 일이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이들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범신론은 절대 성경과 기독교에서 용납되지 않는 사상이다. 천주교의 과거 신비주의적 관상기도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관상기도가 거의 범신론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열렬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금욕을 실천하며 경건의 모습을 보인다 해도 그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반역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신행위를 권장하고 소위 선교의 수단이라고 널리 확산시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인가?

## 9) 결국 관상기도는 성경의 충족성과 종결성을 부정하는 것

립헌원 목사는 관상기도가 성경말씀의 충족성을 불신하는 행위라고 경계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만이 성도를 바르게 성숙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내려놓고 관상가들이 실천하는 4단계 관상에서 신구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발견된 사실이 없는 ‘관상’이란 용어를 새삼 끼워 넣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의 음성을 들겠다니 그 얼마나 황당한

72) 박순용, 『Christian Inside』, (36호 20011.6.13), p. 6.

일이며 모순인가?

사도 바울은“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고 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관상가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 말씀의 충분성(딤후 3:16-17)을 믿지 못하므로 ‘관상’이란 이교도의 용어를 삽입하여 새로운 반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sup>73)</sup>

림 목사는 디모테후서 3장 16~17절을 들어서 성경말씀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충분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내려놓고 관상가들의 4단계 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음성을 듣겠다는 관상기도가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황당하고 모순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찌니라”(신4:2, 잠30:6, 계 22:18~19 참고) 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말씀들은 성경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과 여기에서는 기도 생활에도 충족한 말씀이며 절대로 거기에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에 명하신대로 할 최종의 말씀임을 확인하여 주고 계심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성경적이며 인위적이고 이교적인 잘못된 관상기도를 거부하는 것이 성경의 충족성과 종결성을 믿는 성도들의 합당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0) 성경말씀까지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며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막힌 세상

73) 림현원, 『Christian Inside』, (16호 2009.8.3), p. 6.

림 목사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관상 기도에 대하여 개탄하고 있다.

관상가들이 성경 말씀까지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며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막힌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입장을 보면 무척 안타깝다.

만약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해계실 텐데... 마음을 비우면 큰일이 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 하신대로 귀신이 와서 보니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빈 것을 알고 가서 다른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 갈 것이다. 물론 마음을 비운다고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마음을 채운다고 나가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항상 내주해 계신다.

좌선요가의 단계로(몇 단계가 있지만) 마음을 비우고 호흡, 즉 들숨에 성령님이 들어오고 날숨에 죄를 내보내고... 그리고 어떤 경지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니... 도대체 그 경지에서 만나는 실체가 무엇이란 말인가?<sup>74)</sup>

림 목사는 또한 관상가들이 성경말씀까지 팽개치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막힌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만일 마음을 비운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떠날 것이며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마12:43-45)을 상기시켜 주며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관상기도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부득이하여 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이 할 기도는 결코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러한 불신적이며 이교적인 기도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

74) 같은 신문, p. 6.

행위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대 죄악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 안다.

## 11) 참 교회는 할 수 없는 기도 방법

림목사는 이상에서 계속 반복한 것과 같이 관상기도는 불교나 천주교나 기타 동양 종교의 명상 기도가 가미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더욱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도저히 행하지 않는 촛불을 켜고 종을 울리는 등의 이상한 행동이나 승려들의 좌선 명상이나 무당이 폭포수 밑 바위에 촛불을 켜고 종을 흔들며 소리를 내며 신들림 곳을 하는 식의 행동들은 교회로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기도임<sup>75)</sup>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참으로 깨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진실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철저히 배격해야 옳은 줄 안다

## 12) 관상기도의 문제점

계속해서 림 목사는 관상기도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 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 ② 관상기도는 인간의 직관적 판단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범신론이다
- ③ 마음속의 이성, 사고,잡념 감정 느낌 등 일체의 것을 비우고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주관적 침묵의 단계로 들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최고의

---

75) 같은 신문 p. 6

경지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겠다는 신비주의이다<sup>76)</sup>

첫째로 관상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임을 지적한다. 즉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하고 의탁해야 하는 것이다. 주님의 겿세마네 기도와 같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42)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 그런데 관상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뜻대로의 체험을 강요하는 것이다.

둘째로 관상기도는 직관적인 의식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아는 범신론이라고 한다. 정말로 살아계시는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내재해 있는 신을 만나며 모든 것 안에 있는 신과 연합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로 위험한 기도가 아닐 수 없다(범신론과 내재신론적인).

셋째로 마음속의 일체의 이성과 생각과 감정 등을 버리고 오직 무아경(無我境) 상태의 침묵을 통해서 신과 연합(일체가 되는)하고, 신의 계시를 받는다는 신비주의(광신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기도는 실제로는 광신적이며 성경말씀을 떠난 기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지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13) 관상기도 대처 방안의 제안

마지막으로 립헌원 목사는 관상기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관상기도에 성도가 대처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76) 립헌원, 『Christian Inside』, (36호 2011.6.13), p. 10.

① 관상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기도가 아니므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단절된다 ② 따라서 성도의 신앙이 파괴되고, 교회가 이교도적 명상종교의 놀이터가 되며, 탈 성경적으로 변모 될 수 있다 ③ 그래서 관상(경청, 영성 침묵 등)기도 식으로 하는 제 경건행위는 성경적 신앙이 아니고 이교도의 명상종교이므로 엄중히 금하며, ④ 이러한 자들과의 교류를 철저히 금하도록 해야 한다<sup>77)</sup>

### 첫째, 관상기도의 위험성

① 관상기도는 실상은 기도가 아니므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차단)되게 함을 알아야 한다.

②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가 파괴되고 교회가 이교도적 명상 종교의 놀이터가 되며 탈 성경적으로 변모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립 목사의 관상기도에 대한 경계와 대처 방안은 오늘 의 복음적인 교회가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둘째, 관상기도에 대한 대처 방안

① 관상(경청, 영성, 침묵 등) 기도 식으로 하는 모든 기도행위는 성경에 어긋난 것이며, 이방 종교인들의 명상 수행 행위이므로 엄격히 금해야 한다.

② 그리고 관상기도를 가르치거나 행하는 자들과는 교류(같이 기도 하는 행위 등)를 철저히 금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상의 경계와 경고와 권면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성경말씀의 가르침 안에서의 기도 생활을 개인적으로나 그룹적으로나 어느 때보다 더욱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77) 같은 신문, p. 10.

## (9) 천주교의 관상 기도와 사적계시는 성령의 역사인가, 인간이나 다른 영의 역사인가?

### 1) 단순한 순 인간적일 경우

① 천주교의 관상기도와 사적계시는 천주교의 특징인 행위, 노력, 고행 등 자력 구원 사상의 영향으로 이방 철학 이론과 이방 종교 수행방법을 본받아서 행하는 헛된 수고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기 정신력이나 자기 최면에 의하여서 환상이나 환각이나 환시등과 황홀감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단순한 인간 정신 안에서 이뤄지는 일종의 자기최면 작용에 불과 할 것이다.

② 범신론이나 내재신론 같은 거짓 사상에 빠져 바른 신앙에서 탈선할 수 있다.

천주교의 신앙은 율법적이며 행위와 선행 고행과 극기, 그리고 인간의 노력 중심이다. 그러므로 저들의 관상기도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마치 거듭나기 전의 마틴 루터와 같이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을 추구하여 만나려고 애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겠다고 발버둥 치다보면 범신론적이나 내재신론적인 체험 위주의 방향으로 빠지기 쉬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회심하기 전의 루터와 같은 모

습, 자신들의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에게 이르고자 애쓰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결국 범신론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태도를 조장했습니다.<sup>78)</sup>

## 2) 다른 영의 역사일 경우

천주교의 영성 훈련이나 관상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어떤 영이 접촉하여서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과 치유와 기적과 사적계시 등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들이 열심히 관상 기도예 몰두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영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체험이 성령의 역사인가? 다른 영(악령, 사탄)의 역사인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① 천주교의 한 수사 토마스 머튼(달라이 라마와 불교승려들의 영향을 받아 선불교를 기독교에 응용하여 영성신학을 만들고 관상기도를 새롭게 개발하여 개신교회에 까지 널리 유행시킨 종교 다원주의자)의 책들을 읽고 열렬한 관상가가 된 한 개신교 여성 수 멩크 키드의 경험담

성직자는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는 성경을 치켜들었다. 성경이 열렸고 그의 치켜든 손 위에 까마귀가 올라와 앉아 있는 듯 보였다. 성경만이 신자의 생활에 유일하고 궁극적인 권위라고 그는 외쳤다. 유일하고 궁극적인 권위

배꼽 아래로 한 뼘뼘 아래에서 무엇인가가 불쑥 솟는 느낌이 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뜨겁고 단호한 감정이었다 마치 전류처럼 내 중심에서 솟아 나와 퍼져 나갔다. 내 살갓조차 떨렸다. 그 느낌을 영어로 읊진다면, 대충이라도 읊진다면, “예끼 여보시오!”였을 것이다

78) 박순용,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 (서울 : 부흥과 개혁사, 2009), p. 203.

그녀는 속에서 “천만에 말씀”이라고 외쳤고 내 삶의 궁극적 권위는 성경이 아니고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신적인 음성이다. 더도 덜도 아니라고 하였다.<sup>79)</sup>

교회에 여전히 다니면서도 천주교 수사 토마스 머튼의 영향을 받아서 철저한 관상 기도자가 된 이 여성은 목사의 설교 중에 성경이 궁극적 권위라는 기독교의 최대진리를 듣고서 이처럼 중심과 전신이 전율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강하게 부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세계 어디에서든지 귀신들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갖는 거부감과 같은 공통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안다. 쉽게 진실을 말하면 그런 관상가들의 안에서 성경을 거부하는 영은 성령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 멩크 키드가 천주교 수사 토마스 머튼에게 전수받은 관상기도의 영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는 토마스 머튼이 최근 업그레이드해서 기독교에까지 전파하여 유행시키고 있는 관상기도의 영의 실체를 밝힌 실화이다. 그러므로 기독교회는 천주교 수사인 토마스 머튼과 토마스 키팅과 그들의 사상을 전수받은 리처드 포스터와 수 멩크 키드 등 기독교내 관상운동가들을 크게 경계하고 그런 유의 영성훈련과 관상기도를 철저히 배격해야 할 줄 안다

## ② 12세기 한 수사의 체험

12세기 수도사인 위그드 생빅토르는 관상 중의 체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

79) 레이 윤젠, 『신비주의 와 손잡은 기독교』, (서울 : 부흥과 개혁사, 2009), p. 221.

다. “영혼은 사랑의 불꽃으로 변하여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모든 것 속의 모든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성스러운 불길로 감싸고 있음을 느낀다.”<sup>80)</sup>

이 수도사가 관상기도 중에 느낀 사랑의 불꽃으로 변했다는 영혼의 느낌은 창조와 구속주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만물 속에 있고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만유 내재신론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관상기도 중에 사랑의 불꽃으로 변하여 느꼈다는 그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신에게서 온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 안다.

### ③ 관상기도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역사

최근 천주교에서 시작하여 기독교에까지 널리 확산되고 있는 관상기도에 대하여 지금 살펴본 바로는 먼저 이는 단순한 인간적인 철학적 환각이나 최면 행각 같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는 동양 이교와 중세 천주교의 신비주의의 행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신비주의는 모종의 신들과의 접촉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모종의 신들은 어떤 영이란 말인가.

레이 윤젠은 신비주의의 흐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서구식 요가를 하고 만트라를 기도하면 동양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신비성에 빠진다. 이 황홀경을 통해 당신 자신을 서구의 영적 세계 (관상기도)를 향해 열면, 결국은 똑같은 귀신의 세계 혹은 동양인들이 말하는 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sup>81)</sup>

80) 박순용,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 (서울 : 부흥과 개혁사, 2009), p. 219.

81) 레이 윤젠, 『신비주의 와 손잡은 기독교』, (서울 : 부흥과 개혁사, 2009),

그는 천주교 주도의 관상기도는 동양의 신비주의에 결합되었기 때문에 힌두교나 불교나 기타의 수행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수행을 하면 동양인들과 똑같은 신비경에 빠지며 이 황홀경을 통하여 자신을 관상기도로 향하게 하면 결국은 그들과 똑같은 귀신의 세계 또는 동양인들이 말하는 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스스로를 귀신의 영역을 향하여 열면, “온 세상이 하나요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이 신으로 보이는 내재신론의 세계라는 의식의 상태” 동양인들과 똑같이 들어가게 된다.<sup>82)</sup>고 한다 이 말들은 결국 동양 종교들의 수행 방법(요가, 만트라)들이 천주교의 관상기도에 들어갔으며 그로 인해서 천주교나 기타의 관상기도가 들도 내재신론적인 의식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그들과 똑같은 귀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관상기도는 사탄이 역사하는 영역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 ④ 관상기도 추구의 결과 (신비 체험을 추구할 때 파생하는 진리 왜곡)

신비주의적인 신비체험 위주의 관상기도를 추구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박순용 목사의 글 “신비체험을 추구할 때 파생하는 진리 왜곡”을 소개하겠다.

박 목사는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추구할 때(관상기도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리 왜곡이 파생할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sup>83)</sup>

---

p. 136.

82) 같은 책 137p.

83) 박순용,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 (서울 : 부흥과 개혁사, 2009),

1) 먼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재성만을 강조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탈선된 영적 체험에 빠진다.

2) 또한 하나님을 자신 안에서 찾고 경험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자신의 의식 세계 안에 가두고 만다

3) 그러나 무엇보다 신비한 체험을 주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범신론에 빠지는 무서운 결과에 이르게 된다.

자신이 체험한 것은 다 하나님이라고 단정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광신적인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4) 그리고 이교적인 방식을 도입하여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혼합주의로 나가게 된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는데 신비주의는 이 구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일치(합일)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시하여 혼합하려는 용납할 수 없는 커다란 과오를 범한다

5) 무엇보다 신비체험의 추구가 파생하는 가장 치명적인 왜곡은 속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완전한 구속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직접 하나님과 통하려고 추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상기도 등은 영원한 구원을 상실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6) 그뿐 아니라 그들은 확신의 기초를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성경)과 하나님의 역사에 두지 않고 자신의 제한된 체험에 둬으로써 진리에서 이탈한다.

그리하여 영원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사탄에 기만당하는 불운에 빠

지고 만다.

7) 마지막으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주신 유일한 은혜 받는 방편인 성경 말씀과 건전한 기도 외의 엉뚱한 것들을 탐닉한다.

그리하여 생수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다른 밑 터진 웅덩이(렘 2:13)를 채우려는 헛고생을 일평생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박 목사는 이 모든 것들이 신비주의적인 하나님 추구가 야기한 왜곡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를 수용한 천주교 역사 내내, 곧 중세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되었던 신비주의를 통한 진리 왜곡 현상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그래서 박 목사는 신비 체험을 추구하는 관상 기도의 위험성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철저하게 지적하여 주며 경계하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경청하여 자신과 교회들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줄 안다.

## (10) 영성 운동과 관상기도에 대한 정견(正見)

지금까지 관상기도에 대해 소개한 내용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관상기도의 뿌리는 헬라(플라톤)철학 이론에서 왔다.
2. 그리고 정교회와 천주교가 고대 몇 교부들과 수도사들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였다
3. 그리고 이교의 수행방법(만트라 등)을 철학이론에 추가하여 혼합시켰다

4.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들을 정당화하려고 여러 번 노력도 하였다 그러나 근본틀(원리)과 인간중심과 자기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하나님과 일체 동화 된다는 사상은 불변했다.

5. 그런데 여기에 신비적인 어떤 영들이 합세하였다. 그리하여 자기 최면 이라든지 엑시터시(황홀감)체험이라든지, 탈혼, 사적계시 등 여러 가지 체험들이 뒤따라서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겼다.

6. 이 운동이 중세 천주교의 암흑시대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7. 최근에는 이것이 다른 종교들과의 대화와 혼합(통합)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8. 그런데 이것은 뉴에이지 운동과 교접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범신론, 내재신론, 무신론, 무종교등 극단 운동화 되어가고 있다.

9. 결국 천주교의 이 영성과 관상기도는 뉴에이지의 영과 지도자들을 따라서 그리스도교 통합과 세계종교통합을 이루는데 이용될 것이다.

10. 결국 영성 훈련과 관상기도를 통하여 통합종교를 이룬 지도자들은 계시록의 거짓 선지자(계 13:18)와 같은 부류가 될 것이다.

11. 그리하여 최종으로 하나의 종교를 이루어서 뉴에이지 주도자들의 조종을 받아 (합세하여서) 세계통치에 이용당할 것이다.

(11) 진정한 기독교인이 관상기도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이유<sup>84)</sup>

---

84) 레이 윤겐, 『신비주의와 손잡은 기독교』, 김성웅 옮김, (서울 : 부흥과 개혁사, 2009), pp. 209-228.

여기에서는 레이 윤겐의 「신비주의와 손잡은 기독교」의 <제 7장 미혹하는 영>을 통하여서 관상기도는 기독교인이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영적으로 불건전하고 해로운 훈련이라는 이유들을 몇 가지만 들겠다.

### 1) 비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sup>85)</sup>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며(마 6:8) 언제나 친절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신다. 그 대표적인 기도의 모본이 주님의 기도이다. 그런데 관상기도는 온전히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려는 노력 자체이다. 이는 먼저 접근 방법부터가 핀트가 어긋난 것이다. 단추를 잘못 낀 것이다. 그러니 밤낮 헛고생만 하고 더욱이 엉뚱하고 해롭고 위험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기독교인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

### 2) 이방 신비종교의 방법론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sup>86)</sup>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기도애 언제나 만나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하여 주신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 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마 6:7). 그런데 관상기도는 <예수기도>나 <목주기도>만 해도 승려가 불공을 외우듯이 같은 말들을 무수히 반복하여 외우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

85) 같은 책, 211.

86) 같은 책, 만트라, 중언부언 등.

되는 잘못된 기도방법이므로 기독교인은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3) 동양 신비사상에서 나온 개념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sup>87)</sup>

이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다. 범신론이나 만유내재신론과 같이 모든 것이 신이고 모든 것 안에 신이 있다는 허무맹랑(虛無孟浪)한 신앙을 가졌으므로 공연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헛고생만 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범신적이거나 내재적인 어떤 신을 의식하거나 품는 등으로 일종의 신비한 체험을 함으로서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신앙가들이 되고 있다.(토마스 머튼, 리처드 포스터, 수 멩크 키트 등등)

리처드 포스터가 관상적인 영성의 본보기라고 말하는 신비가들의 진술은 이러하다<sup>88)</sup>.

인류라는 가족의 심령은 성령이다. - 바실 페닝턴.

신이 온 세상 안에 계심을 안다. - 노리치 줄리안

내가 사랑하는 신은 높은 산, 완만한 계곡의 숲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무인도,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강물이다. - 십자가의 요한.

여기[관상기도의 순간] 모든 것이 신이다. 신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 기욤 부인

87) 모든 것 안에 있는 신, 모두가 하나다.- 내재신론 등: Ibid.

88) 같은 책, 118.

여기에서 관상기도의 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거짓 신들을 의지하며 추구하는 관상기도는 결코 기독교인들이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4) 관상적 영성의 원천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미혹하는 왜곡된 교리)이기 때문이다.<sup>89)</sup>**

귀신의 교리는 온 세상이 신적인 임재를 소유하고 있다(온 세상이 하나다)고 한다. 이것은 사탄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존재하는 온 세상의 연합을 완전히 실현 할 수 있다”(헨리 나우웬)는 말이 옳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역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로서 마귀의 영이나 가르칠 법한 말이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딤후 4:1)

관상기도는 근본적으로 성경말씀에서 떠나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정 반대로 귀신의 장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경말씀에 근거하지도 않으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인위적으로 억지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리 없고 대신에 마귀가 접촉하여서 그릇된 길로 끌고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이며 신은 만물이며 만물이 신이며 우리는 모두 신이라는 등등의 뉴 에이지적인 허탄(虛誕)한 귀신의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단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위험한 기도 형태인 것이다.

---

89)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은 책, 212.

### 5)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십자가 속죄 사역을 파괴하기 때문이다.90)

속이는 자들이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성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 의식 개념 전체는 완전히 비성경적이다. 이것은 예수의 정체와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을 부인한다. 속이는 자는 '미혹하는 영이며 이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그리스도 개념은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십자가의 속죄사역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요일 4:2-3)

최근의 관상기도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노골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부인하며 심지어는 성경의 궁극적인 권위까지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완전히 기독교 신앙에서 떠난 관상기도를 기독교인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 6) 관상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또 다른 자기 노력의 종교행위이기 때문이다.91)

기억하라! 종교성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사람의 방편이지만, 기독교는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관상기도는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인간의 또 다른 자기 노력이다.

---

90) 같은 책, 212-213.

91) 같은 책, 213.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일반종교의 사상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해 모시기만 하면 되는 믿음의 종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을 받는다 그러므로 어떤 요상 망측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기독교인은 이러한 이방종교적인 기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7)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관상기도가 하나님의 사랑, 인도, 이끄심 그리고 돌보심을 더 충만하게 가져오게 한다"는 말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욕이며 또 본질로 보자면 적 그리스도적이기 때문이다.<sup>92)</sup>

관상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여 주신 완전한 구원과 충만한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것을 성취한다고 하니 사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은혜에 대하여 모욕이 되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8) 신자는 관상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sup>93)</sup>

관상적인 메시지는 하나님 은혜의 놀라운 일 그리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일과 심각하게 어긋나 있다

---

92) 같은 책, 214.

93) 같은 책.

관상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일과는 전혀 어긋난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성령의 성화시키는 역사는 관상기도와 같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떤 높은 차원으로도 언급하기 어려운 단순하고 놀라운 역사이다 그런데 관상기도는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과 무모한 의지적 노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조작하려는 착오(錯誤)에 빠진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거짓 영의 사주를 받아 거짓가르침으로 기도하는 자가 오도당하게 되므로 우리는 이러한 관상기도를 철저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다

9) 관상 기도자들은 궁극의 권위를 성경이 아닌 자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신적인 음성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sup>94)</sup>

최근 천주교의 관상기도 확산에 크게 이바지한 수도사 토마스 머튼의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아 관상기도에 심취하여 유명한 관상기도 전파자가 된 침례교 신자인 수 멩크 키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내 삶의 궁극적인 권위는 성경이 아니다 한 책의 앞장과 뒷장 사이에 내 인생을 가둘 수 없다. 내 인생은 사람이 쓴, 시대에 의해 멈추어 버린 무엇이 아니다. 인생은 내 밖의 원천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나의 궁극적인 권위는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신적인 음성이다. 더도 덜도 아니다.

천주교 수도사에게 배워서 관상기도의 열렬한 전도사가 된 이 멩크 키드의 거침없이 대담한 주장은 2천년 정통 기독교 역사에 최고의 권위로 군림한 성경의 권위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만행(蠻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러한 안하무인(眼下無人)격인 겁 없는

---

94) 같은 책, 221.

주장은 어디로부터 왔단 말인가? 이는 분명히 칼빈이 지적한바와 같이 성경을 무시하고 떠나서 개인의 체험을 앞세운 광신자들의 주장과 같이 보인다 이는 또한 무엇보다 오늘날 관상 기도자들의 안에서 역사하는 정통 기독교와 성경에 도전하는 거대한 무리를 이루는 뉴 에이지 사상의 영의 발로가 아닐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신성모독적인 관상기도를 절대로 모방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0) 관상기도는 성령이나 진정한 기독교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95)**

레이 윤겐은 또한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관상기도는 진정한 기독교에 대해 어떤 몫도 없다고 나는 믿는다. 성경은 구원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인도의 길이 열린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성령께서 관상기도에 의해 움직이시거나 그것을 통해 다가갈 수 있는 분이라 말하는 성경 구절들을 내게 보여 달라. 그런 구절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관상기도를 옹호하는 핵심적인 구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단 한 구절도 없다!

저자는 여기에서 진정한 기독교와 관상기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성령과 관상기도 그리고 성경과 관상기도가 어떠한 연관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관상기도를 가르치는 이들은 몇 개의 성경구절을 통하여 이들의 관련성을 증명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새롭게 정리된 관상기도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본다면 기독교나 성경말씀이나 성령님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혀 별개의 이교적인 산물임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

95) 같은 책, 223-224.

인은 오늘날 기독교와 성경과 복음과 성령의 이름으로 위장하고 침투하고 있는 관상기도에 대하여 단호하게 배격해야 옳을 것이다.

11) 관상기도는 모든 종교가 혼합되고 통합되도록 유도하는 통로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sup>96)</sup>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나는 캔터키 주 시골에서 온 가톨릭 수사가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침례교 복음 전도자와 함께 서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본다 나는 한 민족을 본다.

이것은 천주교와 기독교가 통합되는 장면을 예고한 말이며 한 민족과 같이 하나로 혼합 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예언이다. 천주교의 관상기도를 도입하여서 기독교에 전과하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는 포스터는 이렇게 천주교와 기독교가 관상기도운동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결국 한 백성처럼 되리라고 믿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관상기도라는 이방 신비운동과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의 혼합종교로 통합될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단언이라고 하겠다.

1996년 여름, 불교와 가톨릭 수사들이 "겻세마네 만남"이라는 명칭으로 대화를 위해 서로 만났다. 선불교 수도승인 데이비드 라스트와 가까운 친구인 토머스 머튼이 이 행사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가톨릭 수사들과 침례교 복음전도자는 리처드 포스터의 말처럼, "한 백성"

---

96) 같은 책, 225-228.

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쪽이 바뀌어야 한다. 수사들이 자신들의 불교적인 신념을 버리고 침례교도들과 일치를 이루든지, 아니면 침례교도들이 관상적인 내용으로 채워진 침례교도들이 되어 수사들의 신념을 포용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것이 포스터가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모임"이 안고 있는 딜레마다.

불교와 천주교 수도자들이 영적 교류를 위하여 "갯세마네"라는 명칭의 모임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선불교 수도승 데이브드 라스트와 평소에 그의 가까운 친구로 사귀고 있는 천주교 수도사인 토마스 머튼의 역할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말은 최근 천주교 관상기도운동의 대가이며 기독교에 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토마스 머튼수도사가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불교와 천주교와의 연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음의 말은 포스터가 말한 바와 같이 천주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되려면 천주교 수도사들이 불교적인 신념을 버리고 침례교도들과 일치를 이루든지, 아니면 침례교도들이 천주교 수도사들의 불교적이고 관상적인 신념을 포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천주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어느 한 쪽이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여야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천주교 관상가들은 이미 자신들의 신념을 포기하고 불교의 신념을 받아들였으니 기독교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는 암시를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다수를 따라야 한다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된다면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가 혼합되는 거대한 통합종교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 다음엔 이슬람만 끌어들이면 세계의 종교는 거의 하나가 될 것 아닌가?

모든 종교는 하나 뉴 에이지운동가들은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가르치며 이

들의 중심된 가르침은 범신론과 단일론이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이고 모든 것이 신이며 우리도 신이라고 믿는다면 예수, 노자 크리슈나 부처와 같은 위대한 종교지도자들이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을 경험하고 가르쳤다고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많을 수 있으나 그 모든 길이 하나로 모인다.<sup>97)</sup>

오늘날 뉴에이지운동가들은 천주교에서 벌리고 있는 종교통합운동과 UN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종교연합과 같은 운동을 사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범신론과 단일신론과 내재신론등의 철학 사상을 종교계와 교육계 심지어는 문화운동으로 까지 확산해 나가는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모든 종교혼합과 통합운동은 관상기도운동에 까지 침투하여서 지칠줄 모르고 질주하고 있다. 그리고 관상기도는 이교와 천주교의 담을 넘어서 기독교에까지 깊숙이 침투하면서 모든 종교 통합이라는 종교혼합운동의 전위도구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며 또한 사탄적인 관상기도에 대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경계, 배격하며 멀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는 깨어서 더욱 열심히 성경말씀의 진리를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바르게 가르치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 (12) 천주교 관상기도의 문제점들

먼저 이는 무엇이라 변명해도 인위적이며 수련적이며 주관적 체험주의로서 자기최면과 자기만족과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

97) 더글라스 R. 그릇하이스, 『뉴 에이지 운동』, 김기영 옮김, (서울 :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1), p. 20.

1. 건전한 이성적 신앙생활에서 이탈한 주관적 체험중심의 치우친 잘못된 신앙생활의 일종이다.

2. 성경적 회개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중생하여서 새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하는 복음과 거리가 먼 일종의 인본주의적 신비체험위주의로 탈선된 신앙생활의 형태이다.

3. 비록 건전하다고 하는 거룩한 독서와 그리스도 중심의 관상기도라고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떠난 좌나 우로 치우친 불건전한 신앙형태가 되는 것이다.

4. 어디까지나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일종의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과오에 빠지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5. 무엇보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과 빛과 소금의 생활과 사랑과 봉사의 생활을 등지는 것으로 주님께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것이다.

6. 이방종교적인 신비체험과 혼합되기 쉬운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힌두교 불교등과 같은 이교적인 요소와 혼합되어서 기독교에서 완전히 이탈되기도 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7. 범신론과 내재신론적인 신인합일사상에 빠지기 쉽다.

8. 이런 기도 가운데서 경험하는 사적 계시들이 참 성령의 계시가 아닌 다른 영의 거짓계시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문제이다.

9.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런 영의 역사를 통하여 다른 종교의 영들과 조합, 교합되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그 영들의 지시를 따라서 잘못된 길로 (아바타 세계 지도자,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등) 탈선하는 세력이 되기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비성경적이며 비 복음적인 천주교 관상기도는 성령의 역

사가 아닌 인위적 역사나 다른 영의 역사로서 철저히 배격하고 멀리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천주교의 영성훈련과 관상기도는 일종의 인위적인 신비주의의 한 형태로서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신적 쾌락추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체험중심의 신비생활로 발전되고 또한 그리스도와 성경말씀과 복음에서 이탈한 그릇된 광신적인 주관 신앙으로 흘러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주교의 이러한 기도운동이 해로운 것은 그러한 주관적인 신비체험가운데에 악령의 개입으로 일어나는 사적계시라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과 성경말씀에서 떠난 천주교 체제에서 흔히 발생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비성경적이고 그릇된 계시들이 양산(量産)되고 그래서 이단적인 이상한 방향으로 유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를 들면 ‘발현 마리아 계시’라든지 ‘성체기적’이라든지 등등과 같은 것도 그런 종류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인 반증을 들어본다면 그 악랄한 종교재판을 거의 주도한 자들이 수도원장을 비롯한 수도회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루비아 대학살(무려 675000여명 학살)에도 수도원장과 수도원사제들과 그 외에 사제들이 많이 적극 개입했다<sup>98)</sup>고 했는데 과연 영성생활과 관상기도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잔인무도한 대 학살 범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도저히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영성훈련이나 관상기도 등을 통하여 활동하는 영은 결코 성령이 될 수 없고 다른 영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98) 아브로 맨하탄, 『바티칸 대학살』, 스테반 황 옮김, (서울 : 밴드오브 퓨리탄스, 2012), pp. 232, 99-127.

생각한다.

## 관상기도 관련 영성행위 사용문제의 신학적 판단에 대한 현의문

(이 문서는 림헌원 목사가 2010년 4월 12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 용천노회 봄 정기노회에서 “관상기도에 대한 신학적 판단을 해 줄 것”을 현의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것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참고로 올린다.)

### 1) 현의 내용

① 관상기도는 성경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이교도의 관상적 영성행위가 기독교 안에 슬며시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② 이러한 관상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훼손하는 혼합주의이며, 성경의 기독교론, 신론·성령론, 속죄론 등에 심각하게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에이지와 인본주의, 신비주의입니다. 나아가서 에큐메니즘과 종교다원주의로 유도하는 통로가 되므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단신학의 명쾌한 판단이 요구되어 현의를 올리는 것입니다

### 2) 현의 이유

신.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교도의 영성 관상기도(영성기도, 묵상기도, 경청기도, 침묵기도, 숨(호흡)기도 마음기도 향심(向心)기도 등으로 포장 변형된 용어)가 등장하여 최근 한국 기독교계에 기독교의 신앙과 성경적 가르침의 뿌리를 뒤흔들며 미혹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러 교단 목회자들이 관상기도 관련 영성기도 행위를 기독교 전통의 강가에서 건져 올린 보석이면서 이 시대의 최고의 영성신학이라고 주장하며 교회성장의 한 방법으로 목회현장에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3) 세부내역

① 관상은 이교도의 기도방식으로 기독교형의 탈을 쓴 비성경적 방법입니다.

인도의 만트라(주문)식 명상과 일본 불교 선승들의 명상과 단 월드의 단학선, 통일교, 로마 가톨릭 등이 시도하는 이교도들의 명상 행태를 도입 성경구절의 일부를 대입하여 외마디 소리(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등)로 반복 중언부언(빈 꺾 갈 가증한 것, 신명기와 왕상 18장과 마 6:5-15 에서 예수님이 금하신 기도)하는 기도로 기독교형의 탈을 쓴 비성경적 방법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최근 통일교 문선명의 후계자 문현진(8째아들)도 관상기도 예배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독교의 관상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미국에서 배우기를 비슷한 곳에서 배워왔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② 관상기도는 신비주의이며 자아 최면 행각입니다.

자기 마음과의 대화인 개인 최면과 집단 최면을 시행합니다. 자아의식을 향한 자아 최면은 소위 도인들(힌두교, 불교 가톨릭 통일교 등)이 실행하는 인본주의적 행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반복 중언부언(약 20분 정도)하던 성경 구절도 중단 시킨 후 마음속을 비움, 버림의 상태에서 이교도식의 무념무상에 사로 잡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 입니다. 곧 직통계시를 사모하는 신비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③ 관상가들이 관상기도가 성경적이라고 인용한 성경구절들은 모두 부정확하고 황당무계하며 성경말씀의 문맥해석이 아니므로 수긍 할 수 없습니다.

관상기도를 성경적이라 하며 주장하는 관상가들은 성경해석과 기도의 방법을 철저히 왜곡하고 아전인수식의 해석일 뿐입니다.

#### ④ 실제 관상기도 훈련 중 Candel light와 임재지기 실습

이러한 실습은 촛불을 켜 놓고 주먹크기의 종 등이 갖추어진 분위기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임재를 연습하겠다는 발상이 마치 신을 인위적으로 부릴 수 있는 무속인들의 ‘신 내림 곳’과 별반 다름이 없는 행위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⑤ 호흡(숨)기도는 이교도(불교, 힌두교, 단 월드의 단학 선, 통일교 등)들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호흡(숨)기도에서는 들숨과 날숨에서 성령 하나님을 마시자 하며 숨결 속에서 드나드는 정도의 물리적인 존재로 성령하나님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날 숨에서 나쁜 생각과 죄악의 문제를 인위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최면 방식에서 속죄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⑥ 관상가들은 ‘예수님을 관상적 목상의 모범’이라고 주장하면서 관상의 정당성을 찾습니다.

#### ⑦ 최근 관상기도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 공식적 사례들

#### ⑧ 결론

결국 관상가들은 관상기도를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라고 둘러대면서 언어적 유

회(wordplay, 말장난)를 늘어놓고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계를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한 예수교장로회(합동)교단을 비롯한 한국의 기독교가 관상기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왜 위험한 일이고 한국 기독교 교회를 해치는 지름길인지 확연히 드러난 이상, 관상기도에 대하여 사용금지 및 비상경계령을 발효하는 것은 지극히 옳다고 사료되어 헌의 안을 올립니다.<sup>99)</sup>

#### 4. 천주교의 오순절(은사) 운동도 성령과 일치하는가?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은 개신교의 전유운동인 줄 알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천주교도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 (1) 오순절(은사)운동이란 무엇인가?

###### 1) 정의

존 맥아더 목사는 「무질서한 은사주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은사주의 운동을 교리적 관점에서 정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실상 은사주의 운동은 초교파 운동(ecumenical movement)이 제대로 성취하

---

99) 립헌원, 『Christian Inside』, (26호 2010.6.14), p. 3.

지 못했던 일-일반적으로 어떤 교리적 관심사에도 무관심한 각 교파의 형식적 통일-을 성취해 가고 있다. 은사주의 운동은 은사주의에서 말하는 은사의 출현을 약간이라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교파와 분파의 문호를 열어젖혔다<sup>100)</sup>

맥아더 목사는 ‘은사주의 운동’을 교리적 관점에서 정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는 은사 운동이 교리적으로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일 줄 안다. 그러면서 그는 은사 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과를 지적함으로써 이 운동의 영향력을 알리고 있다. 교리적으로는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지만 실제적으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교리적 문제에도 관심이 없는 각 교단의 형식적 통일인 교회 일치 운동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은사주의적인 은사의 출현을 약간이라도 인정하는 모든 교파와 분파가 문호를 활짝 열어 젖혔다고 자랑하고 있다. 한 마디로 하면 모든 은사 운동이 전 세계 기독교를 한 종파 안으로 통합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천주교를 위시한 모든 기독교 은사 운동을 주도하는 영이 무엇인가를 짐작하게 하는 사실이다.

## 2)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은사주의 운동

맥아더 목사는 은사주의 운동의 팽창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현대적 통신 매체-특히 텔레비전-를 통해 은사주의 운동은 지구촌을 휩쓸며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이 가르침은 이제 미국과 유럽을 넘어 남아프리카, 극동지역, 인도 남태평양, 동유럽, 러시아 등등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거의 모든 지역에 전파되었다. 그리고 전 세계

100) 존 맥아더, 『무질서한 은사주의』, 이용중 옮김, (서울 : 부흥과 개혁사, 21008), p. 18.

적으로 수백만 명이 성경시대 이래 최대 규모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베푸신다고 믿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모든 주장이 검증은커녕 다 열거도 불가능할 정도로 급속도로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다.<sup>101)</sup> 고 지적 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이 오순절 은사 운동의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주의 깊게 추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재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20세기에 등장한 오순절(은사)주의 운동은 짧은 시기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모든 교파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간 것이 보인다. 존 맥아더 목사는 이 사실을 잘 기술하고 있다 ‘신 오순절주의’라고도 하는 은사주의 운동은 1900년경에 시작된 오순절 주의의 후예로서 1959년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성회, 사중복음교회, 연합오순절 교회 등의 몇몇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59년에 이르러 캘리포니아 주 세인트 마크 감독교회의 교구 사제 데니스 베넷이 성령 세례와 방언의 은사를 경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운동은 교파의 경계선을 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교파의 장벽은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감독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루터교회를 지나서 카톨릭 신자들과 신학적 자유주의자들 심지어 사이비 기독교 집단에 까지 확산되었다<sup>102)</sup>고 한다. 이렇게 오순절(은사)주의 운동은 출범한 후 짧은 시일 내에 거의 전 기독교 교파들과 심지어는 신학적 자유주의 교회들과 천주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이비 기독교 집단들에까지 급속히 확산되어 나갔다는 것이다.

## (2) 은사운동의 기원

---

101) 같은책, p.16

102) 같은 책, p. 19.

먼저, 더욱 구체적으로 이 은사 운동의 기원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겠다

### 1) 개신교에서의 기원

관상기도 운동과는 다르게 이 운동은 기독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 ① 캔사스 토페카에서 발생(1901.1.1 밤 11시)

로저 오클랜드는 「새 포도주와 바벨론 포도나무」에서 맨스필드의 말을 인용하였다.

미국과 전 세계를 휩쓸게 될 성령의 은사들의 위대한 부흥(?)의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 캔사스 토페카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거기에서 찰스 파함 목사와 그의 학생들이 기도에 전념했고 성령 세례에 관한 성경 연구를 계속하였다. 학생들은 그 건물 3층탑의 기도실에서 하루 24시간, 일주 내내 마라톤 기도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1901년 1월 1일 밤 11시 즈음에 애그니스 오즈만이라는 한 학생이 파함 목사에게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 세례를 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때에 정확하게 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애그니스는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에 파함 목사와 다른 학생들도 같은 체험을 하였고 이 사건을 일반적으로 은사주의 운동의 시작으로 여기게 되었다<sup>103)</sup>

#### ②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부흥(1906. 4. 9)

1906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계속적인 성령의 부으심이 발생하였다.

---

103) 로저 오클랜드, 『새 포도주와 바벨론 포도나무』, 스테반황 옮김, (서울 : 밴드 오브 퓨리탄스, 2010), p. 312.

이를 아주사(AZUSA)부흥운동이라고 한다. 로저 오클랜드는 계속해서 라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

1906년 4월 9일 보니 브래 스트리트에 위치한 한 집에서 일곱 사람이 방언과 함께 성령을 받아서 기쁨이 넘쳤으며 그들은 웃고 소리치며 밤새도록 찬양하였다 그 다음날 주위에 그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여 들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결국 아주사거리의 오래 비어 있던 감리교 건물을 빌렸다.

이곳에서의 첫 모임에는 12명이 왔으며 악기도 없고 찬송가도 없었지만 잘 아는 찬송들을 부르며 예배 드렸다 그 중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은 ‘성령이 오셨네’ 이었다. 그 날 밤 두 사람이 더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전국을 휩쓸고 더 나아가 전 세계를 덮을 작은 불덩이가 피어났다.<sup>104)</sup>

## 2) 천주교에서의 기원(천주교 오순절주의자들)

오순절 은사 운동의 기원에 대하여 천주교에서는 먼저 자기들에게서부터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그것은 11세기에 발생했던 하나의 사건을 시발로 들고 있으나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로 그친 데에 불과했다. 더 나아가서 두 교황의 기도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천주교 오순절 운동의 근거로 들기에는 미흡하게 보인다.

### ① 11세기에 발생한 한 여인에 의해 은사를 받은 사건

안나 마리아 슈미트(Anna Maria Schmidt)는 맨스필드에게 11세기에

---

104) 같은 책, pp. 315-316.

발생했던 가톨릭 은사 운동의 기원에 대해 말해주었다. 맨스 필드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산에 나타나서 성령을 간청하라고 가르쳤다 그들이 그 여인의 지시대로 따르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졌고 영분별, 예언, 방언 등의 은사들을 받았다.<sup>105)</sup>

안나 마리아 슈미트가 말한 11세기에 발생했다는 누군지도 모르는 한 여인이 출현하여서 지시한 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하여 은사들을 받았다고 하는 단 한 번의 사건은 옛날의 한 이야기와 같이 들린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 때 단 한 번의 이야기로 그치고 거기에서 파생된 어떠한 역사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이 된다. 성령의 역사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상당히 많이 그리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 ② 교황 레오 13세가 성령을 기원했다는 이야기.

엘리나 구에라 수녀의 성령 촉구서신들을 통해 교황 레오13세가 1901년 1월 1일 성령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엘리나 수녀는 1895년부터 1903년까지 성령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요청하는 12통의 극비의 편지를 교황에게 썼다. 또한 엘리나 수녀의 제안에 따라 교황 레오 13세는 20세기의 첫 해 첫 날인 1901년 1월 1일, 성령을 기원하였다.<sup>106)</sup>

맨스필드는 이탈리아 루카에 성령께 헌신된 수녀원을 창설한 엘리

105) 같은 책, p. 311. 재인용.

106) 같은 책, p. 311. 재인용.

나 구에라 수녀가 교황 레오 13세에게 12통의 편지를 극비에 보내고 그에 따라 교황이 1901년 1월 1일에 기원하였다고 하였다. 이 수녀의 12회에 달하는 간청에 교황이 응답하여 한 번 성령을 기원하였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67년 후에 “두케인 주말” 수련회에서 그 기원 때문에 천주교 성령 은사 운동의 시작(첫 체험)을 불러오게 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게 보인다.

### ③ 교황 요한 23세의 새로운 오순절 간구

제 2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 요한 23세의 기도를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으로 말한다. 1961년 교황은 새로운 오순절을 간구하였었는데, 사람들은 가톨릭 은사 갱신을 교황의 기도에 대한 섭리적 응답이라고 본다. 이때 교황의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오늘날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하소서. 마치 새로운 오순절처럼 새 역사를 허락하소서. 당신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옵고 또한 영광스런 베드로의 인도를 따라 바라옵나니, 우리 신성한 구세주의 통치를 더하시고 진리와 공의로,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소서.<sup>107)</sup>

교황 요한 23세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새로운 오순절을 간구하였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고 베드로 사도의 인도를 따라 기도한 이 교황의 기도가 6년 후에 성취되었다고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교황 레오 13세와 요한 23세의 기도응답으로 일어난 오순절 은사운동이라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운동이 성경에 계시된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결실들에 대한 성경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107) 같은 책, p. 310. 재인용.

### 3) 최초의 천주교 은사운동의 시작(둘째 오순절)

천주교 역사상 최초의 성령은사 체험사건 (두케인 수련회에서 일어난 일(1967.2.17-19))

① 천주교 역사상 초유의 성령의 은사운동은 두케인 주말 수련회(1967년)에서 시작되었다.

이제 천주교 역사에 처음으로 보이는 성령은사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두케인 주말”로 알려진 수련회(1967년 2월 17-19일)는 패티 깔라거 맨스필드가 쓴 「새 오순절: 카톨릭 은사 혁신의 드라마같은 시작」이라는 책에 소개되었다. 그녀는 이 책을 “성령의 배우자요 교회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드린다고 하였다. 그 책은 독자들에게 “두케인 주말”로 알려진 카톨릭 은사 갱신의 기원과 관련된 사건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서론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후에 "두케인 주말(the Duquesne Weekend)"로 알려지게 된 그 수련회는 1967년 2월 17-19일에 있었다 이 수련회는 일반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은사 갱신의 시작으로 인정되었다. 이 수련회는 가톨릭 그룹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했던 첫 번째 사건이었다 물론 두케인 주말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가톨릭 교인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 수련회는 가톨릭 은사 갱신운동을 공식화하여 미국과 전 세계로 널리 퍼지게 되는 시작이 되었다<sup>108)</sup>

② 천주교 초유의 성령은사운동과 마리아의 역할(관련) (마리아와 연결된 천주교의 '둘째 오순절')

---

108) 같은 책, pp. 308-309. 재인용.

이 책의 추천의 글을 쓴 추기경 수에넨스는 두케인 주말은 카톨릭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자는 성령의 세례를 마리아의 영적 모성과 연결시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신비하게 성령과 마리아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합쳐 놓으신 것을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한다.<sup>109)</sup>

저자는 천주교 역사상 한 획을 그었다는 이 초유의 성령의 운동을 마리아와 연결시켰다. 성령은사의 역사가 끊임없이 신비하게 성령과 마리아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성령과 마리아를 합쳐 놓으신 것을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천주교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큰 호기심과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았는데 애석하게도 ‘역사’가 되고 말았다. 천주교 1500여 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성령은사 운동이 마리아와 일체가 된 성령의 역사라고 하니 기가 막혀 할 말이 막힐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천주교의 신통한 성령 은사 운동가들과 기독교의 은사 운동가들이 서로 밀접하게 통하며 기독교와 천주교의 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천년 기독교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마리아-성령 은사 운동”과 기독교 성령 은사 운동가들의 활약을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해 보아야 할 줄 안다.

### (3) 개신교와 천주교 은사운동가들의 연합운동

---

109) 같은 책, p. 309. 재인용.

20C 중반부터 시작된 천주교와 기독교의 연합 운동은 관상기도 운동에서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성령 은사 운동에서는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신기하고 기형적인 성령-마리아의 은사 운동과 기독교의 성령 은사 운동가들의 일치 연합운동에 대하여 더욱 살펴보아야 하겠다.

### 1) 올랜도 95 컨퍼런스

1995년 2월 <캐리스마>잡지는 영국에서 발생한 부흥의 특징으로 웃음과 영적 술 취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같은 체험은 성공회, 감리교, 오순절 침례교, 가톨릭을 연합시키고 있다. 체험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 기독교는 모든 개신교 교단들과 가톨릭을 세계적으로 통합시켜 왔던 것이다.<sup>110)</sup>

올랜도 95컨퍼런스의 저녁집회 동안에 발생했던 사건을 고려해 보자. 그 컨퍼런스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 은사주의자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sup>111)</sup>

이러한 파격적인 광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어떠한 천주교도들과 여러 교파의 개신교도들과 히랍 정교회 교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동일하게 하고 그리고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어울려 나오는 모습은 언뜻 보기로서는 하나의 환상적이며 이상적인 기독교 연합의 광경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정통 기독교 신앙의 견지에서 크게 이탈된 돌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

---

110) 같은 책, p. 316.

111) 같은 책, pp. 316-317.

로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함께 예배드렸다고 했는데 이 차이점은 생사를 좌우하는 엄청나게 큰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과 같이 중대한 진리(교리)문제를 짓혀놓고 단순한 감정에 빠져서 그저 같이 어우러져 노래하며 춤추며 우산을 펴서 흔드는 등의 행위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거룩한 성령의 이름으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말씀의 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과 진리를 무시하고 미신과 우상 숭배자들과 마리아 숭배자들과 이단자들이 다 같이 술 취한 무리들같이 무분별하게 어울려서 즐기며 예배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합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북미 갱신 서비스 위원회(1997-2000년)** (천주교와 개신교 은사주의 자들로 구성된 통합조직)

### ① 신 구교 은사주의 통합조직의 활약

특기할 것은 “북미 갱신 서비스 위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됨을 추구하기 위해 여러 교단들과의 교제를 대표하여 형성된 방대한 단체이다. 이 통합조직은 천주교와 개신교 은사주의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1977년 캔사스 1986년과 1987년의 뉴올린즈, 1990년 인디애나 폴리스, 1995년 올랜도에서 열린 “성령과 세계 선교 컨퍼런스”를 주관했다 또한 2000년 6월 22-25일에 미주리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린 “예수 2000축제”도 북미 갱신 서비스 위원회에 의해 지원되었다.<sup>112)</sup> 이상으로 보면 천주교와 개신교 은사주의자들로 구성된 이 통합조직의 활약상을 볼 수

112) 같은 책, pp. 317-318.

있다.

② “예수 2000축제” 컨퍼런스(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새천년 파티)

이 축제는 북미갱신서비스 위원회가 지원했고 오하이오 스투벤빌의 천주교의 프란시스코 대학이 진행했다. 이 신 구교 은사주의자들의 통합조직의 집회에는 47명의 강사들이 초청되었는데 대부분이 은사주의 자들이며 이들은 순수한 천주교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자들이었다. 이는 프란시스코 대학의 진행위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강사진을 짰다고 한다 천주교의 주교, 수도사, 수녀 신부들과 개신교 여러 교파 대표들로 되어있었다.<sup>113)</sup>

③ "예수 2000 축제" 컨퍼런스의 주목적(개신교도들을 천주교로 데려오는 것)

“예수 2000 축제”의 한 강사인 신부 톰 포리스트는 “분리된 형제들”이 “모든 교회의 어머니”에게로 돌아오도록 유인하는 천주교의 계획에 충성하는 자이다. 이 신부는 1990년의 인디애나 폴리스 컨퍼런스에서 (천주교인들을 위한 특별 모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의 할 일은 그들을 가톨릭교회로 데려옴으로써 그들을 더 풍요하고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종자가 가톨릭 교회에 와서 한지체가 될 때까지는 복음화가 오직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지 결코 완전하게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sup>114)</sup>

이 신부는 천주교가 개신교와 은사운동을 같이하면서 할 일은 “그

---

113) 같은 책, pp. 318-320.

114) 같은 책, pp. 320. 재인용.

들을 천주교로 데려옴으로써” 자기들과 같이 더 풍요하고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했다 그러므로 개신교인이 천주교에 들어와서 한 지체가 되어야 복음화가 완전히 성공한 것이라고 하여서 그들의 은사 운동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다.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④ 천주교의 연옥을 자랑하고 선전함

이제 우리 가톨릭 교인들은 연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연옥이 없다면 천국의 꿈이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연옥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sup>115)</sup>

다음은 천주교인들에게는 연옥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연옥 없이는 천국의 꿈이란 없고, 연옥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니 개신교인들을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인 이 연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운동의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자랑삼아 말하고 있다.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인가?

#### ⑤ 비 천주교도들을 다 천주교 안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

가톨릭 교인으로서 우리의 할 일은 남은 기간을 사용하여 가능한 모든 사람을 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가톨릭 교회 안으로 이끌며 가톨릭 역사의 새 천년으로 이끌어야 합니다.<sup>116)</sup>

115) 같은 책, p. 320-321. 재인용.

116) 같은 책, p. 321. 재인용.

끝으로 이 신부는 천주교인이 남은 기간에 할 일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개신교인들과)을 그리스도의 몸인 천주교회 안으로 이끌어 들이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천주교의 새 천년 역사를 창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세의 천 오백년 역사는 암흑의 역사요 생명의 복음을 봉쇄하여 구원의 길을 차단하고 자신들의 부귀 권세와 영화를 위하여 절취했는데 또 새천년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탐욕이란 말인가?

#### (4) 새 오순절(둘째 오순절-은사운동)에서의 마리아의 역할

위의 “천주교 은사운동의 시작”에서 이미 밝혀졌지만 천주교 은사운동은 성령보다 마리아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제 좀 더 이 문제를 추적해보기로 하겠다.

##### 1) 천주교 오순절 은사운동의 최초 시작의 자리에 마리아가 함께 했다.

천주교 역사 초유의 오순절 성령은사운동의 시발점인 두케인 주말 수련회장에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에 마리아도 그 자리에 함께 임했다고 한다. 그 역사적 현장을 소개한 「새 오순절」(카톨릭 은사 혁신의 드라마 같은 시작)에서 저자 페티 겔라거 맨스필드는 “두케인 주말 수련회”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카톨릭 은사 운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마리아에게 더 초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마리아에 쏟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그녀는 교회가 태어나던 오순절에 그곳에 있었다. 우리가 그 주말(두케인 주말 수련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의 주권적인 움직임을 체험할 때 분명히 그 자리에는 뚜렷한 방법으로 마리아가 "우리과 함께" 있었다. 교회의 교부들은 마리아를 "성령의 배우자"라고 부른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어떻게 그녀가 계시지 않겠는가? 117)

저자는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관심을 마리아에게 쏟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자 개인만의 믿음이 아니고 그 수련회 인도자들과 참여자 모두의 믿음으로 보인다. 그들은 매사에서와 같이 이런 특별 성령은사를 구하는 마당에서도 마리아 중심이었던 것이다.

마리아는 교회가 태어나던 오순절 성령강림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이 “두케인 주말 수련회”에서 성령을 체험할 때에도 그 자리에도 뚜렷한 방법으로 “우리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교부들이 마리아를 “성령의 배우자”라고 했으니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그녀가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마리아가 초대교회의 오순절날에 성령강림 현장에 있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두케인 성령체험 때에도 뚜렷한 방법으로 자기들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억지 주장이다. 그렇다면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120여명도 다 같이 그 주말수련회에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120여 명 중에서 오직 마리아만 거기에 왕립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거짓 주장이다.

마리아와 성령을 부부관계와 같이 표현한 것은 실로 이교의 신화적인 발상으로 신성모독적인 주장이다. 그리고 그 주장대로 마리아와 성령은 일체와 같아서 초대 오순절 성령강림 현장에서와 같이 천주교

---

117) 같은 책, p. 324. 재인용.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현장에도 같이 임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이교적인 신앙의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마리아를 성령과 동일시하며 천주교 역사 초유의 성령강림 사건을 “마리아 강림”사건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 사건이 진정한 성령강림사건이 아니고 어떤 마리아의 영의 역사로 이해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2) 천주교의 오순절 은사운동은 마리아를 통해 모든 기독교를 천주교로 통합시키게 한다.

스테파노 곱비 신부가 1972년 5월 8일에 파티마의 성모 발현 경당에서 기도 중에 출현한 마리아에게 받은 수백의 메시지 중에는 그녀가 둘째 오순절(은사운동)을 이끌어올 뿐 아니라 천주교 밑에 개신교 등 기독교들의 완전한 통합이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있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예언하였다.

나는 너희를 위한 통합의 길이다. 모든 교회가 나를 어머니로 받아들일 때, 나는 나의 자녀들을 하나의 따스한 가정으로 다 연합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톨릭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이 세상에서 나의 죄 없는 순결한 마음의 승리와 함께 할 것이다. 통합된 교회는 새 오순절의 영광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할 능력을 가질 것이다.<sup>118)</sup>

이 예언은 천주교로서는 아주 획기적이며 희망찬 것이다. 마리아를 통한 성령은사운동이 이렇게 전 기독교의 천주교로로의 통합과 인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까지 이룰 것이라고 하니 크게 기대되지

---

118) 같은 책, p. 329. 재인용.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과연 마리아와 일체가 된 성령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게 될 지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약 모든 기독교가 천주교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전 세계 기독교가 천주교로 단일화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논하여온 바와 같이 비성경적이며 비정통적인 천주교가 성경적이며 정통적인 생명의 기독교를 지상에서 말살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5) 발현(發顯)하는 마리아들과 성령은 일치하는가? (천주교의 은사 운동과 마리아)(〈새 포도주와 바벨론 포도나무〉 323-330p. 참고)

천주교의 마리아는 두 종류이니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발현한 마리아들이다. 편의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이 두 종류를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다른 것 같다 그중 발현한 마리아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환상이나 메시지로 자기의 뜻을 전달해 주는 마리아를 말한다. 이 마리아는 16세기에도 일차 발현했으나 주로 19세기와 20세기에 수천 번 내지 수만 번 세계도처에 나타났다고 한다.

천주교는 자기들이 인정한 발현마리아를 성경의 마리아와 동일인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발현 마리아들의 언행은 성경에 계시된 마리아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천주교가 1600여년간 제조한 비성경적인 마리아 교리와 천주교 교리들과 일치하는 말을 하는 발현자들 만을 공식적으로 성모 마리아로 인정하고

숭배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마리아들의 환상이나 예언한 말들을 성경의 마리아의 환상이나 예언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이것은 천주교가 그러한 사적계시는 성경과 같은 절대적 계시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동일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 것은 성경의 참 마리아는 이런 발현하는 마리아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위 사적 계시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성경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비성경적이거나 반성경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주교는 여러 곳에 발현한 마리아를 성경의 마리아와 동일시하여 그 동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발현한 곳을 성지화 하여 순례하며 숭배케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메시지들을 거의 성경과 같이 믿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발현 마리아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와 성령의 대리자로 자처하고 있다. 따라서 천주교의 성령은사운동도 발현 마리아가 성령과 하나로 주관하고 있으며<sup>119)</sup> 심지어는 고대하는 '두 번째 성령 강림이 하루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내 '티없는 성심의 영적 다락방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sup>120)</sup> 즉 새 시대를 위한 제2의 성령강림도 마리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천주교 안으로의 모든 기독교 통합도 이 마리아 성심이 세상에 개선할 때에 성취된다<sup>121)</sup>고 예언하고 있다. 과연 어떻게 성령과 동일하고 성령과 동역하며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성취한다는 마리아가 성경에 계시된 겸손하고 순수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119) 로저 오클랜드, 『새 포도주와 바벨론 포도나무』, 스테반 황 옮김, (서울 : 밴드 오브 퓨리탄스, 2010), p. 309. 재인용.

120) 스테파노 곱비 신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박요한 실비아 옮김, (서울 : 가톨릭 출판사, 2012, 개정판 1쇄), p. 1120.

121) 같은 책, p. 384.

1) 천주교 은사운동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마리아에게 더 초점을 둔다.

천주교는 기독교와 동급으로 연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가 주도하고 있으므로 은사운동을 이용하여서 연합시키려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통합은 반드시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구원사역의 신앙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천주교 은사운동의 기원에 관한 문서들을 대하여 보면 매우 주의해야 할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 한 예를 들면 패티 갤라거 맨스필드의 책 「새 오순절」에 언급된 바에 의하면 천주교의 현대 오순절운동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1967년의 <두케인 주말 수련회>에서 있었던 마리아가 성령의 시대를 여는 핵심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바친 이 책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사실은 예수의 이름은 드문드문 나오지만 분명한 복음 제시는 없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많은 예들이 나오며 천주교 은사운동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마리아에게 더 초점을 두는 것<sup>122)</sup>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천주교의 은사운동을 주도하는 마리아가 과연 어떻게 성령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2) <마리아 사제운동>을 주도한 스테파노 곱비 신부에게 출현한 마리아의 예언(둘째 오순절)

이탈리아의 사제 스테파노 곱비 신부는 1972년 5월 8일에 파티마의 성모발현 성당에서 기도하다가 마리아 사제운동을 전개하라는 내적

122) 로저 오클랜드, 『새 포도주와 바벨론 포도나무』, 스테판 황 역, (서울 : 밴드오브 퓨리탄스, 2010), pp. 323-324.

부르심을 받았다. 마리아는 수백 메시지를 그에게 주었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 1990년에 400명이 넘는 추기경들과 주교들,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사제들과 전 세계의 수 백 만명의 신도들로 구성된 <마리아 사제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의 책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에는 다음과 같은 마리아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오늘 예외적인 기도와 형제 사랑을 가지고 오순절의 엄숙함을 기념하라. 사도들이 너희들의 하늘의 어머니인 나와 함께 기도로 모였을 때 예루살렘의 그 기도방 위에 불의 혀의 형태로 오셨던 성령의 임하심의 경이적인 사건을 기억하라. 오늘 너희는 함께 기도로 모여 나의 죄없는 순결한 마음의 새롭고 영적인 목상의 기도 집에서 기도하라. 둘째 오순절을 위해 놀라운 은사를 받을 준비를 하라<sup>123)</sup>

이 마리아는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강림시에 자신이 그 자리에 성령과 함께 있었던 것같이 이제는 둘째 오순절의 성령강림 은사가 내릴 것이니 너희는 그 은사를 받을 준비를 하고 내 목상의 기도 집에서 기도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또 다시 성령이 나와 함께 강림하여서 제 2의 오순절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과연 곱비 신부에게 발현하여 수 백 가지의 예언을 기록하게 한 이 마리아의 영은 진정으로 성령과 일치하여 역사 할 수 있을까?

**3) 출현한 하늘의 여왕 마리아는 자신이 천주교와 모든 기독교를 다시 통합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다.**

로저 오클랜드는 오늘날 천주교 은사주의자들은 소위 '능력체험이

---

123) 같은 책, pp. 328-329.

라고 하는 비성경적이며 초자연적인 체험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그 기초위에 통합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체험 중에는 천주교가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여인의 출현도 있으며 그 여인은 자신이 천주교와 모든 기독교를 다시 통합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자칭 하늘의 여왕이 자신을 예수의 참 어머니라고 어떻게 기독교 은사주의자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를 물었다. 무엇보다 이런 마리아가 성령과 일치한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하고 있다.

가톨릭 은사주의자들과 개신교의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초자연적인 체험을 서로 나누면서 그 기초위에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초자연적인 체험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은 계속 ‘능력 체험’이라고 구분하는 비성경적 체험들을 추가하고 있다. 이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러한 현상 중에는 카톨릭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여인의 출현이 있다. 출현한 여인은 그녀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재 연합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여왕’은 그녀가 예수의 참된 어머니라고 개신교 은사주의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을까?<sup>124)</sup>

## (6) 천주교 은사운동가들의 기만

놀라운 사실은 천주교 은사운동가들이 진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 1) 한 천주교 간행물의 기만

---

124) 같은 책, p. 330.

구영재 선생은 <에큐메니즘의 이상과 이상>에서 "천주교의 은사운동이 국제적인 속임수를 가지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기만하여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한 사건이 '인디아나 폴리스 1990'에서 재현되었다고 했다. 그것은 '성령과 세계복음화'라는 주제로 모인 에큐메니칼 은사회의에서였다고 했다. 거기 모인 23,000명 중 천주교가 가장 많은 대표를 파견했는데 한 천주교 간행물(카리스마)은 '로마가톨릭(복음주의 훈련)회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어떤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설득하여 가톨릭 교회로 합류시키려고 시도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보도하여 의도적으로 기만하였다."<sup>125</sup>고 하였다.

## 2) 한 천주교 사제의 기만

“예수 2000 축제”를 선전하는 전단지에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나누는 친교는 상호존중을 육성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sup>126</sup> 라고 선전 하였다. 그러나 “예수 2000 축제”의 강사 중에 하나이며 “복음화 2000”의 바티칸 대표인 신부 톰 포리스트는 1990년에 열린 인디아나폴리스 컨퍼런스에서 천주교인들을 위한 특별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의 할 일은 그들을 가톨릭교회로 데려옴으로써 그들을 더 풍요하고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종자가 가톨릭교회에 와서 한 지체가 될 때까지는 복음화가 오직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지 결코 완전하게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sup>127</sup>

125) 구영재, 『에큐메니즘의 이상과 이상』, (서울 : 안디오크, 2001), p. 112.

126) 로저 오클랜드, 『새 포도주와 바벨론 포도나무』, 스테반 황 옮김, (서울 : 밴드 오브 퓨리탄스, 2010), p. 319.

127) 같은 책, p. 320.

이와 같은 단순한 기만들은 그냥 눈 감아줘도 될 것 같으나 거룩한 그리스도교의 이름으로나 특히 거룩한 성령의 은사를 위한 모임 등에서 이러한 속임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코 거짓이 없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이름으로 엄격하게 규탄(糾彈)하여야 옳을 것이다.

## 5. 천주교와 기독교 은사주의 운동의 실체

천주교 은사주의자들과 기독교 은사주의자들은 여러 차례 국제적인 연합 대회도 개최하며 상당히 활발하게 서로 교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운동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 운동의 실체를 말해주는 몇 가지 사실을 밝히려 고 한다

천주교 은사주의 운동은 위에서 밝힌 대로 1967년부터 정식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에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수차례의 국제적인 대회도 개최되었다.

### (1) 제4차 은사운동 지도자들의 국제회의에서의 교황의 연설과 답사

1981년 5월 4일부터 9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된 이 모임에는 천주교의 전 세계 은사 부흥운동의 대표자 523명이 참석했다. 이 교황의 연설은 바티칸 정원과 소위 루르드 지방의 '복받은 동정녀의 유물들이 있는 곳에서 행해졌다. 이 모임의 목적은 일치 및 통합을 위한 명분과

정의를 얻기 위함이었다. 여기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은사부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 중의 첫 번째는, 권위 있는 믿음에 관한 교리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와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 성령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참 된 교리라는 빵을 땀으로써 영적 양분을 위한 단단한 음식물을 제공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부흥의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주교들과 함께 신뢰와 협력의 띠를 매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우리의 분리된 형제자매(기독교인들)도 함께 나누고 있는 성령의 많은 은사를 체험했으므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통합에 대한 욕망 안에서 그리고 에큐메니즘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기쁨이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국제 가톨릭 은사부흥운동기구의 미국협회 회원인 랄프 마틴은 전체 회원을 대표하여 교황의 말에 응답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사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당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거룩하신 아버지여(교황에게) 쉬울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것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과 세계 방방곡곡으로부터 온 모든 부흥사들을 대신해서 나는 당신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맹세하기를 원하오며, 또한 우리 교구 및 교회내의 기도 집단들과 단체들이 당신을 섬기고 있음을 알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 말을 하고 난 뒤 마틴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서 거룩한 아버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다<sup>128)</sup>

128) 릭 존스(Rick Jones) 외 다수,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정동수.

## 1) 교황이 제시한 은사 부흥을 위한 네 가지 원칙

### ① 권위 있는 믿음에 관한 교리에 충성을 다하는 것

전 세계의 천주교 은사 운동 지도자들의 국제 대회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제시한 첫 번째 원칙은 천주교의 정통적인 권위 있는 믿음에 관한 교리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 말은 교황으로서 당연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교리에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주교의 모든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다 성령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비성경적인 천주교의 교리들은 성령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니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은사운동가들이 천주교의 정통 교리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 ② 참된 교리라는 빵을 땀으로써 영적 양분을 위한 단단한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

교황이 제시하는 두 번째 천주교 은사운동을 위한 원칙은 단단한 음식인 천주교의 정통적인 교리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갖는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은사운동가들이 천주교의 정통교리 교육을 잘 받아서 그 교리들로 단단히 무장하여서 천주교 신앙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강조한 것이다.

### ③ 부흥의 지도자들은 주교들과 신뢰와 협력을 굳게

---

박노찬 옮김, (서울 : 두루마리, 1998), pp. 250-251.

하는데 모범이 될 것

세 번째 원칙은 언제나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주관적으로 무질서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교계질서를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④ 여러분이 분리된 형제자매(기독교인)들과 같은 성령의 많은 은사를 체험했으니 일치운동의 중대한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전진할 것

교황은 마지막으로 내부단속에서 나와서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연합운동이라는 그들의 작전 수행을 통해 천주교 안으로 통합시키는 일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교황은 여기에서 은사운동가들을 천주교 교리로 튼튼히 무장시켜서 기독교인들 흡수운동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2) 국제 가톨릭 은사 부흥운동 기구의 미국협회 회원인 랄프 마틴의 대표답사

교황의 이 은사운동의 네 가지 원칙에 대한 제시에 대하여 대회의 대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① 중심의 사랑과 감사의 표현

이 대표는 답사에서 먼저 자신들이 당신과 하나님에 대해 중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인도자로 당신을 보내심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교황을 하나님이 보내신 인도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며 또 감사드린다는 절대적인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

②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생명과 힘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대표는 교황의 이 네 가지로 제시한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③ 당신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것을 모두 받아들일 것이다.

교황의 말에 대하여 절대 신앙과 절대복종을 표시하고 있다.

④ 자신들의 충성과 사랑을 맹세하고 모두가 당신을 섬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 대표의 답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최고의 권세를 가진 교황에 대한 천주교도들의 애정과 신앙과 충성심과 숭배심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천주교는 은사운동가들을 이렇게 단단히 결속시켜서 오합지졸과 같은 기독교회 은사주의자들의 흡수통합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크게 염려 되지 않을 수 없다.

## (2) 천주교와 개신교 은사주의자들의 연합운동을 주도하는 영의 정체

천주교와 기독교의 은사운동가들의 연합운동은 1977년부터 시작되었다. "북미 갱신 서비스 위원회"는 천주교와 개신교 은사주의자들로 구성된 통합조직(하나 됨을 추구하는)으로 1977년, 1986년과 1987년,

1990년, 1995년, 2000년 등에 "성령과 세계선교 컨퍼런스"를 주관했다.<sup>129)</sup> 그러나 이러한 천주교와 기독교 은사주의자들의 활발한 연합운동은 반가워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아름다운 연합운동을 주도하는 영의 정체는 드러났기 때문이다.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릭 존스는 아래에서 이 사실을 잘 지적하고 있다.

오순절-카리스마 통합을 주도하는 영의 정체는 부흥 운동에 가담한 오순절 저술가들에 의해 더욱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 저술가들의 숫자는 매우 많았으며, 그들의 작품은 전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 서점에 꼭 차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가톨릭과 비가톨릭 은사주의자들의 조화에 관한 것이다. 계속해서 그리고 숨김없이 모임의 옵저버들과 참석자들은 이 결합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시급한 것임을 듣게 된다. 비가톨릭 오순절 운동 저술가들은 모두 한 가지의 두드러진 특징 즉 '로마 가톨릭과의 결합', 혹은 종종 '로마 교회의 결합'으로 집중된다.

마이클 하퍼 목사는 이전에 런던에 있는 올소울즈 팽함 플레이스의 부목사였다. 매우 유명한 성공회 오순절 운동가인 그는 부흥 잡지의 편집자이자 영국 복음주의 교회협의회의 구성원이며 멜로디 랜드 신학교의 평의원이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는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가 일치되지 못한 교회를 위해 재림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복음화 되지 못한 세계로 오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Christian Life』 1978년 8월)<sup>130)</sup>

천주교와 개신교의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통합을 주도하는 영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성령께서 이러한 이교화 된 천주교와 기독교

129) 로저 오클랜드, 『새포도주와 바벨론 포도나무』, 스테반 황 옮김, (Band Of Puritans 2010), p. 318.

130) 릭 존스(Rick Jones) 외 다수,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정동수, 박노찬 옮김 (서울 : 두루마리, 1998), pp. 256-257.

의 은사주의자들의 통합을 주도하실까? 성령은 천주교를 떠난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데 그런 천주교와 기독교가 통합하는 것을 주도하실 리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하여 위의 글은 오순절 저술가들 특히 비가톨릭 오순절 운동 저술가들에 의해서 확실히 그 영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 1) 이 영은 천주교와 기독교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오순절 저술가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로마 가톨릭과의 결합' 혹은 '로마 교회와의 결합'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천주교와 기독교가 조화를 이루어야하고 하나로 연합해야한다는 저술가들의 주장이 이 운동을 주도하는 영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시대의 천주교와 WCC가 신앙과 교리문제를 제쳐두고 무조건 가시적 연합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천주교와 기독교은사운동을 주도하는 영도 성령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 2) 천주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가 재림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결코 성령의 주장이 아니다.

또 대표적 인물로 영국 개신교 성공회 마이클 하퍼 목사의 글을 들고 있다. 그는 기독교회가 먼저 연합되어야 하며 일치되지 못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고 있다. 이 주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회들의 내적인 신앙과 상관없이 이단자들까지라도 외적으로 하나만 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식의 말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 영들은 도저히 성령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글에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은사주의자들의 연합을 주도하는 영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마침내 사탄은 비가톨릭 오순절 운동권과 역사적 로마 가톨릭 교회를 결합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놀라운 위업은 실제적이며 매우 강력한 영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영은 사도들이 죽은 지 수세기가 지난 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혼합체를 태동시킨 영으로, 결코 새로운 영이 아니다. 그 후 이 영은 오순절주의에 도달해서 그 곳으로 스며들어 갔으며, 지금은 오순절 자녀들을 그들의 본래의 집으로, 즉 로마 가톨릭주의로 데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함의 영’이다 전체 신구약 성경은 이런 사실을 여러 면에서 증거 해주고 있다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하나님의 영은 악의 모든 모양으로부터의 절대적인 분리를 요구했고 지금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러나 가톨릭 오순절주의자들 사이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 영은 그와 정반대의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단체인 로마 가톨릭주의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을 부활시킬 것을 요구한다. 더구나 그 영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어둠과 친교하도록 연합시킨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를 요구한다.(고린도후서 6:14-18을 읽어 보라). 현재 오순절주의의 영은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모든 형태와 변형과 이름과 연합을 지닌 오순절주의 배후에 있는 실제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어두움의 영이다.<sup>131)</sup>

그는 여기에서 천주교와 기독교를 연합시키는데 힘쓰고 있는 오순절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영의 정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

131) 같은 책, pp. 266, 268.

있다.

1) 마침내 사탄은 비 가톨릭 오순절 운동권과 역사적인 가톨릭교회를 결합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영은 처음에 가톨릭교회라는 혼합체를 태동시킨 영인데 오늘날 이 영은 천주교와 기독교의 오순절주의자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그 영의 본래의 집인 가톨릭교회로 데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2)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시므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악의 모든 모양으로부터 절대적인 분리'를 요구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위에 방자(放恣)하게 군림하여 앉아서 최고의 권위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말살하고 여러 가지 인위적인 거짓교리들을 만들어서 신도들을 영원히 오도하고 있는 자들로부터의 분리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3) 오순절주의자들의 영은 성령과 정 반대의 영으로써 가증한 가톨릭 교회 안으로 신도들을 연합하도록 오도하고 있다.

오늘날 천주교와 개신교 은사주의자들이 천주교와 연합하도록 부추기는 영의 정체는 거룩하신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의 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들

과 불법과 어두움과 사귀지말며 벨리알과 우상에 속한 자들과 연합하지 말고 저희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하셨다(고후 6: 14-18).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여 오순절운동가들 가운데에 들어가서 말씀과 복음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된 천주교와 연합하게 하는 어두움의 영에게 기만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3) 세계종교 일치를 위한 경주에서<오순절 은사주의의 영의 세 가지 방향>

이 글은 천주교에 30년 이상 몸담고 생활하고 사역을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윌슨 에윈>의 글이다.(「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의 부록 2)) 저자는 천주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할 수 있고 경계하고 경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 글에서<오순절 은사주의의 영이 취한 중요한 조치인 세 가지 방향>을 밝히고 있다.<sup>132)</sup>

#### 1) 오순절 은사주의의 영은 빌리 그래함 연합과 통합하였다.

이것은 빌리 그래함 연합이 오순절 운동에 항복했다는 말이다. 이 빌리 그래함 연합과 오순절운동과의 통합은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천주교와 연합하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세계 교회의 발전을 가속화하게 하였다. “세계적 종교통합은 이제 강력한 사탄의 에너지가 빌리 그

132) 릭 존스,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박동수 외 옮김, (서울 : 두루마리, 1998. 2판 1쇄 발행), pp. 272-278.

래함의 혼합주의, 즉 에큐메니칼 오순절 은사주의의 일치운동에 주입됨으로써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는 빌리 그래함 연합과 오순절 은사주의의 통합이 복음주의 기독교계에 몰고 올 엄청난 악영향을 예고하는 것<sup>133)</sup>이다.

2) 오순절 은사주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들어가서 그것을 활성화시켰다.

1983년 7월 24일에 캐나다 밴쿠버의 WCC 제6회 총회는 세계적 오순절운동 대표 다수가 참석함으로 이루어졌다.

WCC는 어떤 회생을 치르더라도 세계적인 종교의 일치를 이루겠다는 목적하에 결성되었는데 정통기독교의 신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치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WCC는 성경의 진리를 조롱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대일 뿐만 아니라 국제공산주의의 뻔뻔한 대변자였다. WCC 구성원들 가운데는 무수히 많은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 그리고 구소련 정보부(KGB)의 요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WCC는 스스로 선포하는 기관이며, 이미 입증된 대로 하나님과 인류의 적이다.

그런데 이 WCC에 참여한 오순절 은사주의의 영은 이 단체의 악한 특성과 가증스러운 행동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유쾌하게 WCC에 가담하였다. 그러므로 오순절 은사주의의 영은 성경진리와는 무관한 다른 영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sup>134)</sup>이다.

---

133) 같은 책, pp. 273-274.

134) 같은 책, p. 274.

3) 오순절 은사주의의 영은 천주교와 오순절운동의 일치를 향한 실제적인 단계들을 강화시켰다.

천주교 오순절교회의 기관지인 뉴 코베난트」(New Covenant) 잡지의 편집자인 닉 가브너는 오순절 교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오순절 성결교회의 실무책임자인 빈슨 사이난 박사를 방문해, 1984년 1월에 인터뷰를 하였다. 1974년에 사이난 박사는 「은사주의의 다리」를 출판하였다. 여기에서 사이난 박사는 ‘오순절주의자들과 천주교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함께 서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사이난 박사는 다년간의 천주교와의 협력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또 1973년에 그는 바티칸 오순절 신학자들 사이의 형식적인 에큐메니칼 대회에서 일익을 담당했다. 그는 셉수에넨스 추기경과 함께 미국전역을 다니면서 에큐메니칼 오순절 집회들을 후원 하는 일을 함께 진행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는 이 책자가 지적하고 있는 사실 즉 오순절/은사일치 운동을 주도하는 영이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개종한 이 글의 저자 월슨 에윈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오순절 은사주의의 영이 주도하는 일치 및 통합의 부르짖음은 무서운 힘이며, 배도한 기독교 집단, 즉 성경에서 바빌론이요 그리스도의 거짓 신부로 알려진 집단을 결합시킬 것이다.

오순절/은사주의 일치 및 통합의 영은 수천만의 사람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거짓과 잘못과 우상숭배의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 가톨릭 체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반드시 멸망하겠다고 약속하신 제도이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며,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sup>135)</sup>

월슨 에윈은 여기에서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의의 영이 주도하는 일치와 통합에 대한 외침은 배도한 기독교 집단들을 무서운힘으로 연합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일치와 통합의 오순절 은사주의의 영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반드시 멸망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천주교의 거짓과 잘못과 우상숭배와 멸망의 길로 수 천만인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사실 오늘날 오순절 은사운동의 영이 이와 같이 기독교를 배도와 거짓과 우상숭배집단인 천주교와의 연합을 통하여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두려움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6. 성령과 악령의 구별

위에서는 천주교와 기독교 은사운동의 실체에 대해서 취급하였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과 악령의 구별에 대하여 기술하려고 한다.

### (1) 성령과 악령의 기본적인 이해(분별)

성령과 악령의 기본적인 이해에 대하여서 이영철의 「4가지 면으로 본 마귀의 실상」에서 두 곳을 인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135) 릭 존스(Rick Jones) 외 다수,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정동수. 박노찬 옮김 (서울 : 두루마리, 1998), pp. 277-278.

## 1) 성령은 성경진리로 인도하고 악령은 성경진리를 떠나게 한다.

진리(眞理) : 성령은 기록된 성경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요 16:13), 성령의 영감은 성경 전체의 맥락(脈絡)과 일치되게 나타낸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알게 해준다(요일 2:20,21). 그러나 악령은 진리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인 성경을 떠나게 한다 처음에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중간에 가서 부분적으로 나타내거나 끝에 가서는 거짓으로 인도한다 성경을 교묘하게 부분적이거나 거짓으로 해석하여 이단교리를 만들게 하고 개인들에게도 진리의 말을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못 깨닫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떠나게 하는 것은 악령이다 칼빈(Calvin)은 ‘분명히 성령(聖靈)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백히 제시된다’고 하였다(기독교강요 1권 84p).(저자 주: 기독교강요 1권 9장 2, 3 참고) 역사(役事)하는 영이 성경과 완전한 일치를 나타낼 때에만 성령이다<sup>136)</sup>

그는 먼저 성령은 성도들을 성경진리를 통하여 인도하며(요 16:13), 성령의 영감은 성경 전체의 연관된 진리와 일치되며 성령은 성도들에게 모든 진리를 알게 해 주신다(요일 2:20-21)고 하고 있다. 그리고 칼빈의 글을 인용하여서 성령은 성경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내지고 가르쳐진다고 말한다.

이는 성령과 성경의 일치성과 불가분리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이는 무엇보다 성령과 성경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악령은 성령과는 정반대로 비 진리의 영이므로 진리의 성경을 떠나게 한다. 악령은 간교하게 단계적으로 거

136) 이영철, 『4가지 면으로 본 마귀의 실상』, (경기도 : 좋은 세상, 2001), pp. 170-171.

것으로 인도하며 성경해석 또한 교묘하게 그릇되게 해석하게 하여서 이단교리를 만들게 한다. 또 개인들도 성경진리를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릇 깨닫게 하고 그릇된 길로 나가게 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성령은 성경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성경말씀을 조금이라도 떠나게 하는 것은 악령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은사운동이나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면에서도 그 역사하는 영이 성경과 완전히 일치 할 때에만 성령인 것이며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것, 또는 언행이 나타나면 악령의 역사라고 판단해야한다는 것이다.

## 2) 마귀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르다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시며(히 1:10,11) 변개(變改)함이 없으시고(삼상 15:29) 한결같으시다. 그러나 마귀는 이와는 정반대의 속성을 가진자로 간사(奸詐)하고 변화무쌍하다

마귀들은 인격(人格)에 변화가 많고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르게 나타난다. 성경도 처음에는 올바르게 해석하다가 중간이나 끝에 가서 잘못 해석한다. 이단(異端)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는 말이다. 이단교리의 특징은 처음에는 정통 기독교 교리와 같으나 중간에서 변하고 끝부분이 다르다. 이단교리는 마귀의 배후 역사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sup>137)</sup>

이영철은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시며, 변개함이 없고(삼상 15:29) 한결 같으시나 마귀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속성으로 간사하고 변화무쌍하며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하여 성경해석도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르게 잘못 해석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단 교리도

---

137) 같은 책. pp. 176-177.

그와 같이 처음에는 정통 기독교 교리와 같으나 중간에서 변하고 끝에 가서는 다르게 변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단교리는 변덕이 많으며 변화무쌍하고 간교한 마귀의 역사로 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천주교의 교리 변천을 보아도 그러한 사실을 발견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성경적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성경에서 멀리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반성경적인 교리들을 제조하여 왔다.

### 3) 전통과 은밀한 계시의 영

존 맥아더 목사는 그의 저서 「무질서한 은사주의」에서 천주교의 전통과 은사주의의 계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은사주의의 계시에 대한 견해와 천주교의 전통에 대한 가르침 사이의 유사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이 둘을 비교, 제시 하고 있다.

#### ① 천주교의 전통에 대한 가르침

계시에 대한 은사주의의 견해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 사이의 유사성은 추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이다. 먼저 전통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sup>138)</sup>

맥아더 목사는 전통에 대한 천주교의 가르침의 대표로 프랑스 천주교 신부 조르주 타바르(George Tavard)의 '전통은 신성한 성경 밖으로 말씀이 흘러나온 것이다'라는 말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절

138) 존 맥아더, 『무질서한 은사주의』, 이용중 옮김 (서울 : 부흥과 개혁사, 2008), pp. 110-111.

대적이며 유일한 성경의 권위를 말살하고 성경 밖의 새로운 계시로서의 전통을 앞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타바르 신부는 “전통은 성경과 분리되지도 않고 동일하지도 않다. 전통의 내용은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방편인 ‘다른 말씀’이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신부는 전통이 성경과 하나이면서도 하나가 아니고 다르다고 했다. 그들은 “전통의 내용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수단인 ‘다른 말씀’이었다.”<sup>139)</sup>고 해서 결국은 전통이 하나님이 ‘다른 말씀’으로 자신을 알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천주교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절대적인 유일한 계시로서의 성경 외에 그 성경 밖의 ‘다른 말씀’을 제2의 성경으로 주셨다는 억지인 것이다. 이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주장이며 여러 가지 전통을 내세우는 것은 거룩한 성령과 성령의 기록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말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 ② 은사주의자들의 은밀한 계시에 대한 견해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말과 매우 비슷한 견해를 가진 또 다른 로마 가톨릭 신학자로는 카스퍼 샤흐가이어(Kasper Schatzgeyer, 1463~ 1527)가 있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성령의 은밀한 계시’는 매일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일단 확실히 알려지면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만큼 구속력이 있다.”

이 모든 말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일으킨다. ‘성령은 어디서 끝나는가?’ 로마 가톨릭의 교리적 가르침은 전통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들의 해석으로 인해 아무런 제약이 없다. 권위 면에서 성경과 동등한 것을 덧붙일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sup>140)</sup>

139) 같은 책, p. 111.

140) 같은 책, p. 111.

또 위의 저자는 “성령의 은밀한 계시”는 매일 가능한 일이며 그 계시가 일단 확실히 알려지면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만큼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 천주교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많은 오순절은사주의자나 성령강림주의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니 너무 놀랄 필요도 없다.

어찌 되었든 이 은사주의자들도 천주교가 전통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신들의 체험에서 나온 은밀한 계시를 성경 외에서 나왔으나 성경과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들의 주장은 필연적으로 전통과 은밀한 계시가 언제든지 무한히 발전되어 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천주교와 은사주의자들의 계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전통과 은밀한 계시를 전해주는 영은 성령은 아니고 성령과는 다른 어떤 영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2) 성령역사인가 악령역사인가?

오늘날 천주교 중심의 관상기도나 성령은사운동이 상당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이들 운동에 역사하는 영이 진실로 성령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영인가하는 분별은 무엇보다 요긴(要緊)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천주교 학자나 사제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스페인 출신 예수회원이며 교수인 마누엘 루이스 후라도, S. I. 의 『영적 식별』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간추려 보려고 한다.

## 1) 식별을 위한 기준

저자는 영에 대한 식별의 기준들을 제공하는 구절들이 복음 속에 풍성하게 있는데 여기에서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정리하여 제시하겠다고 한다.<sup>141)</sup>

### ① 거짓 스승은 열매행위로 안다.

우리가 만나는 첫째 기준은 거짓 스승들(혹은 거짓 예언자들)에 관한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ἐπιγνώσατε ἀυτοὺς)”(마태 7,16)<sup>142)</sup>

주석가들은 거짓 선지자를 식별하는 기준으로서 이 구절을 들고 있다. 이 구절은 스승들의 외관과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들의 행실(열매)를 보아서 그들의 영을 식별 하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주로 이 기준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갈 5:19-24)들로 구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대체로 구별하기 쉬운 식별방법이라 하겠다

### ②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주신 진정한 주님의 형제자매와 모친의 자격에 대한 말씀과 같이 성령과 악령 역사의 판단 기준도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

141) 마누엘루이스 후라도, S.I. , 『역적 식별』, 박일 역, (서울 :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0), pp. 45-46.

142) 마누엘루이스 후라도, S.I. , 『역적 식별』, 박일 역, (서울 :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0), p. 46.

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형제들)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내어 맡긴다(참조: 로마 8, 14)<sup>143)</sup>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참 선지자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 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을 하며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천국에도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하신 선언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③ 아이같이 겸손함

저자는 세 번째 식별의 기준으로서 야망과 세속적인 경쟁심을 버리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과 단순함을 들고 있다.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과 겸손함으로 우리를 이끄는 영감과 움직임들은 선한 영의 표시이며 이와 반대 방향으로 이끄는 영감과 움직임들은 악한 영의 표시일 것이라는 것이다. 어거스틴이 기독교인의 첫째 덕과 둘째 덕과 셋째 덕이 겸손이라고 한 말과 같이 이 덕은 기독교인의 자격요소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의 식별기준이 된다는 사실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구절에서는 다른 표지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저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

143) 같은 책, p. 48.

(마태 18, 3; 참조: 마르 9, 35; 루카 9, 48).

그러므로 이 복음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러한 덕으로 우리를 이끄는 영감과 움직임들은 선한 영의 표지요,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이끄는 영감과 움직임들은 악한 영의 표지일 것이다.<sup>144)</sup>

#### ④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면 성령, 반항하면 악령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식별하는 네 번째 기준으로 저자는 천주교회의 권위에 대한 순종과 반항을 들고 있다. 그는 마태복음 18장 17절(15-1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개인적인 범죄자를 다루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말씀 또는 개인적인 권고들을 듣지 않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교회의 권위에 의탁하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이는 천주교회의 권위있는 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출교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천주교회의 권위적인 교정에 순종하면 선한 영에 의한 역사요 반항하면 나쁜 영에 의한 역사로 여겨야 한다고 하고 있다.

마태오복음 18장 17절에서 줄거리는 형제적 교정에 대한 권고이다.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교정을, 특히 교회의 권위에 의한 교정을 받아들이기 위해 순종하면 선한 영에 의해 고무된 태도로 보고 반항은 나쁜 영에 의해 고무된 것으로 여겨야 한다.<sup>145)</sup>

그런데 여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도들의 신앙생활과 영적생활을 지도하며 교정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초대교회와 성경말씀에 충실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문제이다. 초대교회와 성경말씀의 범주에서 멀리 떠난 교회라면 그 교회의 교정이 얼마든지 잘못 될

144) 같은 책, p. 48.

145) 같은 책, pp. 48-49.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여기서 상론 할 수 없다. 단지 종교개혁 때만 보아도 천주교가 거룩한 성령과 거룩한 성경말씀으로 역사하여서 그들의 진정한 회개와 개혁을 촉구한 개혁자들을 자신들의 잘못된 잣대로 정죄하고 파문하고 무수한 살육까지 자행한 통탄스러운 역사는 언제든지 재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에 대한 순종여부로 성령의 역사인가 다른 영의 역사인가를 식별한다는 기준은 크게 잘못된 것일 수 있고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 안다.

### ⑤ 사랑과 자선행위

저자는 이 판단의 또 한 가지 기준으로 사랑과 자비의 행위를 들고 있다. 그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웃(실제로는 지극히 작은 자임)을 향한 자선의 행위가 구원과 선악인(영적인)의 판단의 기준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웃을 향한 자비의 행위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자선행위의 거절은 얼마나 단죄 받을 만한 것인지 강조하신다. 146)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판단의 기준도 매우 잘못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불신자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종교인이나 교리적으로 이단사상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⑥ 일치를 구함은 성령, 일치와 반대되는 것은 악령

---

146) 같은 책, p. 49.

마지막으로 저자는 선한 영과 나쁜 영의 판단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 서로간의 일치성을 들고 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인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달라고 하신 것을 상기시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구하는 것은 선한 영의 일반적인 기준이며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구하지 않는 것은 나쁜 영에게서 오는 것으로 지적하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의 교회의 권위문제와 같이 깊은 주의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에큐메니칼 일치 운동가들은 주님의 일치를 위한 기도의 핵심은 버리고 단순한 인간들만의 가시적인 일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심령적인 일치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배제(排除)한 인본적인 거짓된 일치 일뿐이다. 그러므로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러한 일치는 참 성령과 악령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세상 앞에서 신뢰성의 표징으로 그리스도인들 서로 간의 일치성을 -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와 함께- 간구하실 때 (요한 17, 21), 일치를 구하는 것을 선한 영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그 반대 성향은 나쁜 영에게서 오는 것으로 지적하신다.<sup>147)</sup>

이상으로 이 저자는 영식별의 기준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제는 다음으로 한국인 신부의 영식별의 원리들을 들어보기로 하겠다.

## 2) 다른 식별의 원리들

이 내용은 박준양 신부가 쓴 『성령론, 그 신비로운 현존과 작용에

---

147) 같은 책, p. 49.

관하여』에서 인용한 것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영식별의 원리로 일곱 가지를 들고 있다

① 첫째 식별원리 : 연속성. 이미 선포된 천주교의 계시내용과 일치해야한다.

저자는 영적 식별의 첫째 원리로 연속성의 원리를 들었다. 이는 과거에 이미 천주교에 의해서 선포된 계시진리의 내용들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계시진리의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성령의 작용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사건과 파스카 신비에 의해 완성된 계시진리와 다르거나 그로부터 분리되는 또 다른 계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연속성의 원리입니다.<sup>148)</sup>

(1) 연속성의 원리로 제일 먼저 들은 것은 최고 최종의 계시인 그리스도의 구원사건이다. 이는 가장 당연한 것으로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다음은 파스카(유월절)신비(미사성체에 의해 그리스도의 구원이 항상 반복 재현되는 신비)에 의해 완성된 계시진리(화체교리에 의한 성체교리)와 일치해야한다. 즉 그리스도의 실체로 변화되었다는 빵과 포도주를 믿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천주교의 미사 성체(빵)를 인정하는 자는 성령의 역사이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악령의 역사라는 식별원리이다. 그렇다면 화체설을 부인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악령의 역사에 속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 원리는 무엇보다 크게 잘못된

148) 박준양 저, 『성령론, 그 신비로운 현존과 작용에 관하여』, (서울 : 생활성서, 2007), p. 56.

것이다. 독자들이 본서 제5장을 다 읽어보면 이 식별원리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을 줄 안다.

② 둘째 식별원리 : 만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반대되지 않아야 한다.

저자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의지에 따라서 만민이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일을 하신다고 한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활동이 천주교의 담을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나라가 완성되는 것<sup>149)</sup>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성령식별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민에게 까지 성장하게 하는 영은 성령이고 그 일에 방해가 되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통적이며 성경적인 기독교는 만민 구원론을 비성경적인 것으로 배제한다. 이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친히 기록된 성경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보편적 구원을 지지하는 영은 성령이며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 자들의 영은 다른 영이라는 말은 성경과 정통 기독교와 종교 개혁자들의 구원론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원리도 역사적인 정통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성령의 활동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혹은 the Reign of God의 성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활동은 교회의 눈에 보이는 경계선들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펼쳐짐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성장 또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의 가치와 그 성장에 어긋나고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성령에 의한 작용이 아니라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sup>150)</sup>

149) 같은 책, pp. 56-58.

150) 같은 책, pp. 56-58.

③ 셋째 원리 : 예수가 주님이라는 그리스도론적 고백도 성령활동 식별의 중요한 원리이다.

이러한 고백은 기독교를 표방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원리에 대해서는 더 깊이 다루지 않기로 한다

셋째,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그리스도론적 고백은 성령의 활동을 식별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sup>151)</sup>

④ 넷째 원리 : 성령은 은사들을 주어 교회 봉사케 한다.

영적원리의 네 번째는 은사에 관한 교회론적인 식별원리라고 한다. 여기에 제시하는 원리는 성령께서 은사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무들을 주셨는데 이는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주신 것 이라는 것이다. 성령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책을 은사로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교회에서 나뉘어 나가거나 교회위에 군림 하거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봉사하지 않는다면 성령에 의한 은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론은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교회에서 거의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성령의 은사의 역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원리도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다.

넷째, ‘은사’恩師(charisma)에 관한 교회론적 식별 원리를 들 수 있습니다. 은사를 통한, 그리고 은사에 기초한 다양한 직무와 활동은 교회공동체에서 분리되거나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동체를 위한 봉사직 이어

---

151) 같은 책, p. 58.

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참조; 1코린12,4-26; 에페4,11-12) 따라서 한 개인에게 아무리 비상한 영적 능력이 주어 졌다하더라도, 교회공동체의 선익을 위한 봉사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사라고 부를 수 없으며 성령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도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sup>152)</sup>

### ⑤ 다섯째 원리 : 신약의 성령의 열매에 의한 식별원 리(9가지)

저자는 성령 식별의 다섯째 원리를 갈라디아서에 제시된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신자가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맺지 않고 그 와 반대로 육체의 일들을 행한다면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도 이 원리를 단순하게 잘 설명하여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원리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다섯째 신약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의한 식별 원리를 들 수 있습니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5장 19-23절에서는 ‘육(肉)(sarx)의 행실’(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과 질투 등)과 ‘성령의 열매’(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욕유 절제)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열매에 의한 식별 원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루카 6,43-44)<sup>153)</sup>

152) 같은 책, pp. 59-60.

153) 같은 책, pp. 60-61.

⑥ 여섯째 원리 : 성장의 원리, 하나님의 뜻의 발견과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한다.

영식별의 여섯 번째 원리는 성장의 원리라고 한다. 이 원리도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이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성령에 의한 역사이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발전하여 나아가려는 우리의 의지와 활동을 여러모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나쁜 영들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도 대개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단, 하나님의 뜻과 성장의 의미가 성경적인가가 문제일 것이다.

여섯째 성장의 원리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든 공동체적 차원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여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한 작용이라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우리의 의지와 행위들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려는 것은 좋지 않은 영들의 소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sup>154)</sup>

⑦ 일곱째 원리 : 성령활동에 관한 모든 식별의 최종적 판단은 교회 교도권의 책임에 귀속된다.

잘 나가다가 결정적으로 오도한다. 이게 대(大)함정이다. 이상의 6가지 식별원리보다 최고 최종 식별판단(권위)은 교도권 (교황과 주교단)에 있다는 것은 천주교 최고(지상)권위주의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이는 성정보다 천주교의 권위가 더 앞서고 높다는 치명적인 교리에 근

---

154) 같은 책, p. 61.

거하고 있는 것이다.

박 신부의 이 영적 식별 원리들은 일반적인 천주교의 그것과 같으리라 생각한다. 이상의 여섯 가지 원리들에 뒤 이은 성령활동에 관한 모든 식별의 최종적 판단으로서 천주교 교도권의 책임을 마지막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인 일곱 번째 원리로서 성령의 활동에 관한 이 모든 식별에서 최종적 판단은 교회 교도권(敎會 敎導權)(Magisterium Ecclesiae)의 책임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계시헌장」 10항에서는 “기록된 하나님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나님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 하고 강조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Lumen Gentium」 12항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식별과 관련된 교도권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진실성과 올바른 실천에 관한 판단은 교회를 다스리는 이들에게 속하며,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모든 것을 시험하여 좋은 것을 붙드는 일은 특별히 그들의 소관이다(1테살5,12.19-21 참조).”<sup>155)</sup>

영적 식별의 이 마지막 원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두 헌장을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계시헌장」 10항을 들었다. 이 헌장은 계시(성경과 전통)해석의 독점권을 가진 천주교 교도권의 계시해석이 영적식별의 최종적인 권위이며 원리라는 것이다. 이 원리는 천주교로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적이며 정통적인 기독교의 견지에서 보면 이 원리에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원리에 따르면 성경(정경)으로써의 권위와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천주교

155) 같은 책, pp. 62-63.

의 구약외경과 천주교의 잡다한 전통들을 성경 정경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도권이 이들을 해석하는 독점권을 최종 권위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천주교의 잘못된 계시들을 성경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며, 무엇보다 그 위에 교도권이 이들 잘못된 계시들을 해석하여서 영적 식별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히 밝힌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먼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천주교의 계시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으로 부당한 것이다. 잘못된 계시를 근거로 영을 식별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위험천만한 것이다.

2) 그러한 잘못된 계시를 해석하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천주교의 교도권 자체는 하나님께서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세원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고 부당한 것이다. 계시를 올바르게 해석할 성령의 위임을 받지 못한, 인간조직에 불과한 교도권이 잘못된 계시를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둘째는 「교회헌장」 12항을 들었다. 성령의 은사의 진실성에 관한 판단과 성령의 역사 여부를 시험하여 올바른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는 일은 특별히 교도권의 소관이라고 하고 있다. 이 항목도 위의 계시헌장 10항의 항목과 동일하게 그릇된 것이다 그러나 단지 여기에서는 교회론적 관점에서 별도로 추가한 것 같다 그러므로 이상에 살펴본 대로 이 마지막 영적 식별의 원리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건전한 신비적 체험과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구분

여기에서는 최기채 목사가 『기도와 신비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소

개한 건전한 신비적 체험과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대해 「슐더」(Schlider)가 구분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간추려서 소개 하고자 한다.

1. 건전한 신비적 체험은 인간이 스스로 입신하려 하거나 엑스터시(황홀상태)를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뜻밖에 생각하지 못할 때에 체험한 것이다. 그러나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인위적(자발적)으로 신비를 체험하려고 파고드는 것이다.

2. 건전한 신비적 체험은 성경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만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성경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한다.

3. 건전한 신비적 체험은 자신의 체험을 하나님의 구원역사와 결부시켜 생각하지만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자신의 체험을 구원역사와 독립시켜서 생각한다.

4. 건전한 신비적 체험은 성경에 합치되지만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성경에 맞지 아니 한다.

5. 건전한 신비적 체험은 객관 세계에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존중하지만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주관적 그리스도만을 존중시 한다.<sup>156)</sup>

이상에서 구별한대로 신비적 체험과 신비주의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전한 신비적인 체험은 귀중히 여기지만 주관적이고 비성경적이며 광신적 신비주의는 권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 7. 천주교 은사주의의 영이 다른 영이라고 하는

156) 최기채, 『기도와 신비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 : 신망에 출판사, 1970), pp. 36-37.

## 이유들

천주교 은사주의에 역사하는 영은 성령인가 다른 영인가? 하는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야기되는 문제라 하겠다 과연 천주교 성령 은사운동은 성경적이며 정통적인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영인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바른 답을 찾으려 노력하여 보겠다.

### (1) 이 운동의 주도자들은 누구인가?

1) 새로운 천주교 성령강림주의 운동은 헌신적인 천주교 평신도들에 의하여 일어났다.

1966년 가을과 1967년 봄, 불과 일년 사이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게 될 새로운 운동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 그 운동은 그 추종자의 수효가 수만에 달하게 되었고 전 세계적인 규모로 로마 가톨릭교 내에 침투해 들어갔다 그것은 미국 피츠버그 시 덕슨 대학(Duquesne University)의 교수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sup>157)</sup>

위에서 살펴 온대로 천주교의 은사운동은 1967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오래 못가서 천주교내에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산되어 갔다. 그런데 이 운동은 한 기독교 은사주의 목사의 영향을 받은 미국 피츠버그시 덕슨대학의 교수들 사이에서 시작된 것이다. 사제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기독교 성령강림주의 목사의 영향을 받은 천주교

---

157) 허버트 카아슨, 『천주교는 과연』, 박우석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4), p. 35

교수들을 통하여 발생한 것이다.

## 2) 이 운동은 전 세계 가톨릭교에 널리 만연되어나갔다.

이 운동은 헌신적이었던 천주교 신자인 교수들을 통하여 미국의 여러 대학으로 번져나간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에 있어서는 비록 이 운동이 기독교의 성령강림주의와 달라졌지만 그 강력한 영향은 결코 과소평가해서 안 되는 것이었다.

그 운동은 전 세계 로마 가톨릭교에 널리 만연된 현상으로 분출되기에 앞서 먼저 노틀담 대학과 앤아버 대학 등의 다른 미국 대학들로 퍼져갔다 초기의 주요 지도자들은 평신도들 이었고 그들의 거의 모두가 이 새로운 운동에 가담하기 이전에는 헌신적인 로마가톨릭교 신자였다<sup>158)</sup>

## 3) 이들은 천주교에 대해 확고한 충성심을 보인다.

로마 교회에 대해 확고한 충성을 보인다는 것은 또한 그들이 개신교 성령강림주의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까닭을 설명해준다<sup>159)</sup>

그들은 비록 기독교 성령강림주의 목사의 영향을 받았지만 천주교에 대한 확고한 충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그것은 기독교에 배타적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흡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해 준다고 하겠다.

## (2) 이 운동의 분별과 평가의 기준

---

158) 같은 책, pp. 35-36.

159) 같은 책, p. 36.

## 1) 영적 체험의 분별의 필요성

언제나 영적인 체험의 분별이나 비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살전 5:19-20)라는 말씀에 어긋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씀의 바로 다음에 가장 중요한 훈계인 “범사에 헤아려”(21절)를 덧붙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 안다 이는 모든 영적인 체험이나 주장은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더욱이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요일 4:1)는 말씀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는 참된 성령에 의한 영적 체험도 있지만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는(고후 11:14) 거짓된 체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택함 받은 자들도 기만당하고 미혹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마 24:24, 마 13:22)<sup>160</sup> 혼란한 때 일수록 모든 영적 체험을 다 믿고 따르지 말고 주의하여 분별하는데 더욱 힘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영적 체험 평가의 표준

영적 체험의 진위여부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삶의 질에 의하여 증거 되게 된다. 그러나 체험자의 교리는 정직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그 판단의 표준이 되는 것은 성경이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벘후 1:21)인 베드로후서의 말씀과 같이 성경 자체가 성령의 작품이다. 그렇다면 성령을 체험했다는 모든 주장은 성령이 기록하신 성경을 통하여 평가 받아야 한다<sup>161</sup>)는 것은

---

160) 같은 책. pp. 36-37.

자명한 일이다.

### (3) 천주교 성령 강림주의의 성사(聖事)적 견해

천주교 성령은사주의 운동에 역사하는 영을 분별하기 위하여 먼저 천주교의 그릇된 교리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 1) 성사교리를 충실히 받음

허버트 카아슨에 의하면 이 천주교 은사운동은 정통 천주교에 충성을 다하고 있으며 “성령의 세례”라는 이 운동의 교리는 천주교의 성세성사(聖洗聖事)라는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가톨릭 성령강림주의가 정통 로마 가톨릭교에 충성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 가 곧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성사(聖事)에 관한 교리의 분야에서이다. 따라서 “성령의 세례”라는 성령강림주의의 교리는 로마 가톨릭교의 성세성사(聖洗聖事)라는 의식(儀式)과 연결되어있고 그에 의해 설명된다.<sup>162)</sup>

이 말은 먼저 이 은사운동도 천주교의 전통 교리의 틀 안에서 가능하며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들의 비 성경적인 성사교리의 특성상 그들 천주교의 전통교리가 성경적이며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차단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 하겠다. 더 나아가 이 은사운동이 천주교의 모든 성사들, 특히 고백성사와 성체성사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sup>163)</sup>는 사실은 실제로 그 운동의 영을

161) 같은 책, p. 40.

162) 같은 책, p. 41.

163) 같은 책, p. 44.

의심하게 하는 요소라 하겠다.

## 2) 성령강림의 체험을 성세(세례)성사의 실현이라고 함.

그들의 성령강림(성령세례)은 그들이 사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숨겨진 채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신적인 생명(성령)이 새롭게 실현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그 안에 성령이 숨어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세례를 받으면 그 숨어 있던 성령이 활동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 말은 천주교의 오순절 성령은사도 사제들을 통한 세례성사가 실현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의 오순절 성령은사는 천주교의 사제들을 통한 구원성사(세례)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운동도 어떤 특별한 역사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천주교의 구원성사 교리의 실현이라는 범주 안에서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들의 기계적인 세례를 성령세례에 연결시켜서 활성화시키려는 것으로 억지주장이며 고의적인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성사중심주의적 접근 방법을 성령 강림의 체험에 적용하게 되면, 후자는 단지 앞서 이미 받은 바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데 불과하다는 추론을 얻게 된다. “세례에 있어서…모든 은혜가 원리상 ‘숨겨진 채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신적인 생명이 “우리가 성세성사를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이식(移植)”되며 따라서 “성령의 세례야말로 성세서원(聖洗誓願)의 갱신과 현실화를 위한 기도이다.”<sup>164)</sup>

## 3) 천주교 성령강림 체험의 신학적-성사적인 정식화

---

164) 같은 책, p. 42. 재인용.

천주교는 성령은사운동에 대하여 1973년 로마에서 개최된 제 1차 국제 카톨릭 카리스마(은사) 지도자 협의회에서 제안하였고 그 후에 “카톨릭 특은 갱신의 신학적 기초에 관한 성명서”에서 정식화하였다.

1973년 로마에서 개최된 제 1차 국제 가톨릭 카리스마 지도자 협의회에서 이운동의 신학적 기초에 관한 성명서의 초안이 추기경 수에넨스(Suenens)의 제안으로 이것을 기초한 킬리안 맥도넬(Kilian McDonnell)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것은 그 후에 “가톨릭 특은(特惠)(성령 은사운동)갱신의 신학적 기초에 관한 성명서”로 정식화 되었다. 여기에서는 “신학적-성사적인 정식화가 특은의 갱신에 관한 가장 널리 인정된 견해를 대표한다”는 것이 매우 강경히 주장되었다.<sup>165)</sup>

그것은 천주교의 성령(오순절) 은사운동을 성사구원 신학적으로 공식교리화 했다는 말이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천주교 오순절 성령은사 운동도 천주교의 비성경적인 사제주의적 구원관을 틀 안에서만 존재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리화는 근본적으로 성경적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성령 아닌 다른 영의 역사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4) 천주교 은사운동의 그리스도의 현존(떡)에 대한 헌신에 성장(공헌)

미국 주교 협의회는 “그리스도의 현존(現存)(성찬)에 대한 헌신”에 성장이 있었다고, 이에 대해 호의를 표시했다.<sup>166)</sup>

165) 같은 책, p. 42. 재인용.

166) 같은 책, p. 43. 재인용.

미국 주교협의회는 천주교 성령 은사 운동이 “그리스도의 현존(성찬 떡)에 대한 헌신”에 성장이 있었다고 호의를 표시했다고 한다. 이 주교협의회는 천주교의 성령은사운동이 바로 성체성사에 헌신을 더욱 증가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은사 운동이 천주교의 질적, 양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했다는 말이다. 이 성령은사 운동을 통하여 천주교인이 더욱 증가되었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하는 성체(성찬 떡)를 받는 사람이 더욱 증가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은사 운동은 천주교의 성사들, 특히 성체상사에 봉사한다는 말이다. 즉 이것은 천주교의 성령은사 운동이 천주교의 잘못되고 비성경적인 성사들, 특히 성체성사를 위해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 운동이 성령의 역사일 수 없는 것을 밝히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 5) 주교와 교황에 대한 충성

“주교 및 교황에 대한 충성”이 이 운동의 강점이라고 하는 주장<sup>167)</sup>

미국 주교 협의회는 천주교 성령 은사 운동의 강점은 주교 및 교황에 대한 충성이라고 못 박아 말하고 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인간인 주교들과 교황에 대해 충성하는 것이 강한 점이며 강조점이며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초대교회와 기독교 역사상에서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를 보면 모두 그리스도와 복음 진화에 충성했고 이를 위해서 순교도 사양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 성령 은사 운동은 반대로 인간교황에게 충성한다고 하니 이것이

---

167) 같은 책, p. 43. 재인용.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4) 천주교 성령은사주의와 마리아의 밀접한 관계

위에서 언급했었던 바와 같이 천주교 성령 은사주의자들은 마리아에 대한 신앙과 기도와 숭배도 열심히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1) 마리아의 위치와 역할의 확고한 견지

의심할 여지없이 마리아 숭배는 로마 가톨릭교의 사고와 신앙과 예식에 있어서 매우 현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마리아의 역할이 가톨릭 성령 강림주의 내에서도 여전히 확고하게 견지되고 있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분명한 일이다.<sup>168)</sup>

일반적인 천주교 신자들은 성경적, 정통적 교리에 어둡다보니 마리아 신앙과 숭배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이며 동시에 죄인을 중생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한다는 사람들에게서 마리아 숭배가 확고부동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으로 거룩하고 진리이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성경 말씀에 어긋나며 우상숭배적인 마리아 숭배가 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고 하면서도 마리아 숭배가 여전히 열심히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 중의 성령의 강림과 은사와 역사 자체가 정말 성령에 의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

466) 같은 책, p. 44.

것이라고 하겠다.

## 2) 성령은사 주의자들의 마리아 신앙 심화

천주교인인 저자 라나간은 천주교 성령은사주의자들의 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앙의 증거들을 다음과 같은 간증으로 들려주고 있다 “하나님의 어머니께서는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셨다”, “나는 (그들에게서) 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발견했다.”,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목주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sup>169)</sup>고 하였다.

진정한 성령 세례(은사)를 받았다면 과거와 같은 마리아 숭배를 거부하고 버려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가 더욱 특별한 숭배대상이 되고 나아가 마리아에게 목주기도까지 하며 깊은 신앙심을 드러내고 있다 성령은사를 체험했다는 그들의 이러한 간증은 그들의 성령이 과연 성경속의 삼위일체하나님의 그 성령님인지 의아심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천주교의 성령은사주의 운동은 성령의 역사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 3) 성령 받은 후 방언을 헬라이어 성모송(목주기도중의)으로 함

아마도 이러한 증언들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 중 한 사람이 방언을 한 모임의 기술일 것이다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헬리아어를 아는 사람이 그 방언은 성모송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그 모임은 매우 강하게 마리아를 지향하게 되었다.<sup>170)</sup>

---

169) 같은 책, p. 45.

170) 같은 책, p. 45.

라나간은 성령은사자들의 간증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 중의 한 사람이 방언을 했는데 그것은 헬라어로 성모송(묵주기도 중에 있는)을 외운 것 이라고 했다. 그런 다음에 그 모임은 매우 강하게 마리아를 향하게 되었다고 했다 갈수록 태산이다. 이들 천주교 성령 은사자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성령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묵주기도에서 제일 많이 암송하는 성모송을 한 번 읽어보자.(헬라어 방언으로 했다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야벤편171)

그들의 묵주기도는 묵주 60알을 돌리면서 매 알마다 기도하며 암송하는 방식인데 이 성모송은 그중에 53개의 묵주 알을 돌리면서 암송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송이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되새겨 보자. 이것이 과연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방언으로 하게 하실 내용일까? 묵주 알 60개를 돌리는 동안 53개에서 성모송을 암송하는<sup>172)</sup> 이 묵주기도는 성모송 기도이고 또한 이 기도는 성경이 금하는 무수히 같은 말을 반복하는 중언부언 하는 기도이다 이러한 성모송을 성령이 헬라어 방언으로 하게 하였다는 것이니 이로 인하여 성령께서 기뻐하는 기도송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또 그로 인하여 그 모임이 더욱 강하게 마리아를 향한 묵주기도에 힘쓰고 마리아를 숭배하게 되었

171) 정진석, 『장미 꽃다발』, (서울 : 가톨릭출판사, 2009, 개정3판2쇄), p. 23.

172) 같은 책, p. 20.

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진실로 성령의 역사일까? 다른 영의 역사일까?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일인 줄 안다

4) 마리아 축일 전야 예배중의 철야 기도회에서 일어난 일  
라나간은 위에서 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헬라말 방언으로 성모송을 암송한 결과로 그 모임이 매우 강하게 마리아를 지향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결과를 모든 사람이 기쁘게 여기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 일로 잔걱정을 많이 하던 신도들이 다음날이 큰 축일임을 알고 기쁨에 넘쳤다고 했다. 그는 훌륭한 축일의 예비모임으로 축일을 맞기 위해 성령으로 인도받는 철야기도회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저자(하버드 카슨)는 그들의 모임에서 “초점이 그리스도에게서 마리아에게로 옮겨졌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중대한 초점의 변화를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sup>173)</sup>고 하였다. 사실 성령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만을 가졌다고 해도 이러한 현상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에서는 결코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를 그리스도보다 앞세우며 높이는 천주교의 성령 은사 운동이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줄 안다

“잔걱정이 많은 우리들은 그 다음 날이 전례력(典禮曆)상의 가장 큰 축일(祝日)중 하나임을 발견하고 어리둥절해진 동시에 기쁨에 넘쳤다. 축일 전야의 우리들의 모임은 염려스러운 방향전환이 아니라 하나의 좋은 기회였다. 그것은 축일을 맞기 위해 성령에 의해 인도된 철야 기도회였고 훌륭한 예비모

---

173) 같은 책, p. 45.

임이었다.”그들의 모임에 있어서”초점이 그리스도에게서 마리아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을 그들이 솔직히 시인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초점의 변화를 성령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만이 뛰어나도록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요 15:26, 16:14; 골 1:18)<sup>174)</sup>

### (5) 천주교 성령강림주의자들의 보편 구원론 주장

보편 구원론은 비성경적이며 비기독교적인 잘못된 교리이다. 그런데 천주교의 성령은사주의자들이 보편구원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적으로 이 운동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거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하버트 카아슨은 아래와 같이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보편구원론은 가톨릭 성령강림주의의 가르침에 드리워져 있는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이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길에 들어선 일이 없더라도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인도되는 추론에 있어서의 단계들 때문에 성령강림주의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sup>175)</sup>

카아슨의 이 지적은 천주교 성령은사주의자들이 단지 보편구원론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모든 종교인이나 비종교인들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교리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천주교 성령 은사주의자들이 보편 구원론을 특별히 중요시 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영이 성령과 특별히 거리가

174) 허버트 카아슨, 『천주교는 과연』, 박우석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4), p. 45.

175) 같은 책, p. 46.

멀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6) 천주교의 은사체험과 성경말씀의 관계(천주교인인 저자 사이몬 텍웰의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

### 1) 체험으로 성경을 해석해야한다.

천주교인인 저자 사이몬 텍웰은 천주교 내의 성령은사주의자들은 성령강림체험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이몬 텍웰은 "성령의 세례"라는 교리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시인한다. 그러나 성령 강림의 체험의 현실성은 부정할 수가 없다. 어쨌든 그는 성경에 의해 그 체험을 평가하는 대신에 그 절차를 역전시켜 체험을 최상의 기준(基準)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는“우리는 필수적으로 우리의 체험의 빛에 비추어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주석을 달고 있다.<sup>176)</sup>

텍웰은 천주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강림의 체험은 현실적으로 확실하지만 "성령의 세례" 교리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체험의 평가를 성경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정 반대로 돌려서 체험을 최상의 기준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성경으로 체험을 해석하지 않고 반대로 체험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성령은사주의자들의 성령체험에 대한 모든 판단의 최고기준을 성경에 두지 않고 그들의 주관적 체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실로 반 성경적이고 반 기독교적이며 광신적이고 사탄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

---

176) 같은 책, p. 46.

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하겠다.

## 2) 체험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결과

허버트 카아슨은 텍셀이 체험을 진리의 기준으로 높임으로서 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카아슨은 만약 체험이 진리판단의 표준이 된다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오류이며 무엇이 천주교의 종합 진리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가? 하고 반문하고 있다.

사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변화가 많은 주관적 체험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진리와 오류를 분별 할 수도 없고 어제의 진리가 오늘에는 비진리가 될 수 있는 등, 절대적 진리 없는 상대적 진리로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기록해 주신 영원불변의 객관적 진리인 성경을 부인하면 결국 혼란과 파멸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텍셀은 체험을 진리의 기준으로 높임으로서 더욱더 심각한 오류로 인도된다. 그는 로마 가톨릭교의 역할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진리의 섬광들이 하나의 초점으로 집결되는 일종의 종합(綜合)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단편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전체성 안에 모여든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만약 체험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오류이며, 무엇이 최후의 종합에 포괄되어야 하고 무엇이 배척되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절실한 체험들을 갖고 있다. 만약 체험이 궁극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열렬한 증거에 의해 보장되어지는 어떠한 체험도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역사적 기독교의 확신들로부터 이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텍셀은 최후의 결론을 회피하지 않는다(177)

최정원 목사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성령 아니고 악령을 받게 된다.”고 했다<sup>178)</sup>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성경말씀을 바르게 믿지 않으며 더욱이 전통과 교도권을 성경과 똑같이 믿으면서 체험위주로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겠는가? 악령이 임하겠는가? 이는 실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다.

### 3) 모든 종류의 체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텍웰은 아주 솔직하게 궁극적인 진리를 찾고 구원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주의·선(禪)불교 초월적 명상, 성령강림주의, 기타 모든 종류의 체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객관적인 불변의 진리를 부인하면서 각 종교나 각자의 주관적 체험을 통하여 궁극적 진리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이는 결국 자신들이나 추종자들을 똑 같이 비진리와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소경된 인도자들의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매우 솔직하게 궁극적인 진리를 찾는 이러한 탐구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주의, 선(禪)불교 초월적 명상(T.M.), 성령강림주의, 기타 온갖 종류의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성을 기쁨으로 받고자 추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sup>179)</sup>

---

177) 같은 책, p. 47.

178) 최정원 목사, 『하나님의 최대 은사』, (경북 : 임마누엘사, 1966), pp. 80-85.

179) 허버트 카아슨, 『천주교는 과연』, 박우석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4), p. 47.

4) 성령의 표준인 성경에 의해 모든 체험을 시험(판단)할 것  
 허버트 카아슨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매듭짓고 있다. 그는 신약성경에 있어서 믿음은 결코 암흑 속에서의 맹목적인 도약이 아니고 불멸의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롬 10:17)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변화무상(變化無常)한 체험을 의지하여 맹목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진리이신 성령의 말씀인 성경을 통한 인도에 겸손히 의지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하며 또한 “성령 자신의 표준인 기록된 성경말씀에 의하여 우리 자신과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의 체험을 시험(판단)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확고부동한 시험의 목표(표준)를 가지고 모든 종교와 개인의 체험들을 엄격하게 시험하여서 올바른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확실히 “이리 와서 함께 생각해보자”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성경의 접근방법이라기 보다는 현대 비합리주의의 접근 방법이 나타나 있다. 신약성경에 있어서 믿음은 결코 암흑 속에서의 맹목적인 도약이 아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거듭남의 기적을 통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롬 12:2; 엡 4:23, 5:10).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진보를 우리 체험들의 강도에 의해 평가하며 맹목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계몽된 정신을 지니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에 겸손히 의지하며, 성령 자신의 표준인 기록된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 자신의 체험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시험할 것을 목표로 한다<sup>180)</sup>

## 8. 천주교와 성령의 구체적인 상호관계의 추적

180) 같은 책, p. 48.

이상으로 여러 면에서 천주교와 성령의 일치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천주교와 성령의 구체적인 상호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 (1) 천주교는 성령을 오용하고 있다(칼뱅 작품전VI)

원래 기독교는 성령과 말씀의 산물이다. 그런데 천주교는 성령의 위치를 추락시키고 말씀의 권위까지도 전락시키고 말았다. 개혁자 존 칼빈은 트렌트 공의회가 성령의 이름을 도용한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그는 트렌트공의회가 성령이 아닌 사탄이 지배한 공의회였기 때문에 천주교가 성령의 도움으로 잘 마쳤다는 말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트렌트 공의회는 종교개혁의 와중에서 이탈리아 북부 트렌트에서 18년간 25차례 회의를 거쳐 마감한 반종교개혁 공의회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의회는 중세동안 쌓여온 인본적이고 이교적으로 변질된 천주교의 본색을 완전히 체계화하고 강화한 공의회였다. 천주교가 정통 기독교와 완전히 결별하고 담을 쌓고 변종된 기독교로의 출발을 공포한 공의회였다.

① 칼빈은 이러한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공의회를 ‘성령 안에서 합법적으로 모인 거룩하고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공의회’라는 식의 과장된 말로 부풀리면서 단순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공의회가 이름이 영예롭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모르는 선량들에게서 그들 자신에 대해 존경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합법적으로 모인 거룩하고 세계적인  
 보편적인 공의회라는 식의 과장된 말을 부풀리면서 단순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기 때문이다.

② 그는 공의회에 교황(전권대사)이 참여하고 주재(主宰)함으로 성  
 령 안에서 정당하게 모인 것으로 생각하는 천주교의 견해를 비판했다.  
 그는 ‘성령은 교황의 턱 짓 한 번으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불합리한  
 생각에 사로잡힌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공의  
 회에 교황의 세 특사(교황의 전권대사)의 주재가 ‘성령을 가져다 준  
 듯하다’고 비판하였다. 즉, 트레نت 공의회는 교황을 대리하여 공의회에  
 교황의 전권대사가 주재하였으니 항상 교황과 동행하는 성령이 그곳  
 에 함께하여 도와준 공의회라는 역설이라는 비판이다.

이는 마치 그들이 성령께서 교황의 턱 짓 한 번으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불합리한 생각에 사로잡힌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  
 나 어찌면 교황청의 세 특사는 성령을 가져다 준듯하다

③ 칼빈은 이어서 ‘인간이 성령을 파송할 수 있고 또 그가 원할 때  
 소환할 수 있다는 무례한 짓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하고 천주교가  
 성령을 하수인 같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발상을 책망하고 있다

인간이 성령을 파송할 수 있고 또 그가 원할 때 소환할 수 있다는 무례한  
 짓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의장임을 바  
 른 논거로 우리를 확신시키려 한다면, 그들은 먼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 모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sup>181)</sup>

181) 박건택 편역, 『칼뱅 작품 선집(VI)』 (서울 : 총신대학교출판부, 2010),  
 pp. 131-134.

우리는 칼빈이 천주교가 종교개혁의 와중에서 벌린 대 반역적인 트리트 공의회를 '성령 안에서 합법적으로 모인 거룩한...공의회 라고 자칭한 것을 맹렬하게 비판한 이유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할 줄 안다.

## (2) 성경 말씀 떠난 성령 자랑의 비판(존 칼빈)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제8장 13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칼빈은 천주교가 성령을 자랑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을 성령의 이름으로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천주교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 교리들을 제정 할 때에 성령의 이름을 차용(借用)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성령은 끊을 수 없는 유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되기를 바라며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에 이 점을 확인하셨다고 했다. 주께서는 교회에 근신할 것과 신중한 태도를 계속할 것과 말씀에 무엇을 가감하는 것을 금하셨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성령이 정하신 침범할 수 없는 결정인데 천주교는 이 명령을 어기고 교회가 말씀 없이 성령으로 지배될 수 있다<sup>182)</sup>고 공상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 핵심 : 성경말씀 떠난 비성경적 교리를 제정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결코 성령이 아니다!

---

182) 존. 칼빈, 『기독교 강요 4』, 김문제 역, (서울 : 세종문화사, 1980), p. 271.

지금 천주교는 성령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므로 성령은 떠나고 사탄이 성령의 이름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런데도 태연하게 '천주교는 성경의 저자인 성령이 지배하고 있으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새로운 교리들을 제정하는 특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로 자랑하고 있다. 천주교의 성경 말씀을 떠난 이러한 무도(無道)한 자랑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근거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1. 성령은 중세시대부터 서서히 천주교에서 떠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신에 사탄이 서서히 천주교를 점령하여 오다가 트렐트공의 회에서 완전히 장악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성령으로 위장한 사탄의 장악력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것이다.(「기만구조 교황의 죄」 389-410참고)
3.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사탄이 거의 완벽하리만치 천주교를 성령의 이름으로 정통 기독교로 위장시켜서 정통 기독교를 다시 천주교 안으로 통합시키는 데에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천주교의 <성령의 역사>라는 말의 도용(盜用)

천주교는 자신들에 대하여 ‘성령이 내재한다.’, ‘성령이 완전한 진리이로 인도한다.’, ‘성령은 교회를 새롭게 한다.’등등<sup>183)</sup>으로 말한다. 성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간적인 온갖 전통과 교리들과 교권을 제조하고 단순한 문헌서인 외경들을 거룩한 성경 안에 삽입하는 일과 기만, 탄압, 살상 등을 다 자행(恣行)해 놓고도 성령이 도우셔서 성취되었고 성령이 함께해서 승리했다고 자랑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과정은 문제가 아니다. 오직 그들의 목적이 표면적

---

183) 레오 엘더스 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해설총서 2』, 현석호 옮김, (서울 : 성바오로출판사, 1991), pp. 78-81.

으로 달성되면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었다고 말하면서 성령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 그러나 결단코 성령께서는 그런 인간들의 범죄행위와 함께 하여주시거나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다! 거룩하시고 무류하신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경을 떠난 그런 거짓과 포악을 일삼는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고 더욱이 그런 자들을 도우실수 없으시다 그들은 실로 이러한 성령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남용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저런 기만에 속지 안아야한다

#### (4) <천주교가 영속하고 변성하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제임스 C. 기본스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미혹한 그의 저서 「교부들의 신앙」에서 "천주교는 영속(永續)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8장 19-20절을 인용하여 그 근거로 삼은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구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

1. 주께서 교회와 함께 계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2. 주께서 교회와 항상 함께 계신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3. 주님의 영원하신 동거. "세상 끝날 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창립하는 그날부터 하루도 그침 없이 예수그리스도와 결합하여 항상 존재할 것이며, 세상 마칠 때까지 영속해야 할 것이다.<sup>184)</sup>

184) 제임스 C. 기본스, 『교부들의 신앙』, 장면 옮김, (서울 : 가톨릭출판사, 2006, 개정 초판 7쇄), pp. 71-72.

그는 천주교가 사도들을 계승한 유일하고 보편적이며 거룩한 교회라고 여기며 백일몽(白日夢)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당시의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이며 또한 그들과 똑같은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 주신 약속이다 결코 성령도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그 말씀으로부터도 멀리 떠나서 자신들의 임의대로 믿는 오늘날의 천주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이라고 정평이 나있는 천주교 신학자 한스 쾅 조차도 천주교의 영속, 불후에 대하여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기저기서 갈팡질팡하고 회의하게 된다 하더라도, 혹시 오류를 범하고 정도(正道)를 벗어나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진리의 영"이 "협조자"로 교회에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요한 14,16-17) 것이다 교회는 거짓의 세력에 굴복당하지 않을 것이다……교회는 파괴될 수 없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실성에 의하여 끈질긴 영속성이 주어져 있다. 온갖 실수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생명이 보존 될 것이다<sup>185)</sup>

천주교에 대한 냉철한 비판으로 이름이 나있는 천주교 학자 한스 쾅이 어떻게 된 일인지 여기에서는 이성적이지 않아 보인다. 물론 누구든지 2천여 년 동안 지속되고 발전되어 온 사실을 보고 그렇게 착

---

185) 한스 쾅,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옮김, (경북 : 분도출판사, 2005, 14쇄), pp. 144, 143.

각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지속 발전되었다는 사실로써 진리임을 입증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불교가 소멸되지 않고 잘 발전되는 것도 성령이 도와 주셔서 인가? 무엇보다 이슬람이 이처럼 흥왕하고 세계 제일의 교세를 가지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해서라는 말인가? 결코 아니다. 위의 두 예에서만 보아도 이런 외부적인 흥왕이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구약이나 신약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는 항상 극소수에서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그 소수가 다수를 이루게 되면 도리어 그 생명력이 쇠퇴하고 변질되어서 탈선 하는 예도 빈번히 있었다. 그러나 고목에서 짝이 나듯 죽은 대지에 새 불씨가 일어나듯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이(요 3:1-8), 불과 같이(행2:) 이동하면서 행하여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천주교가 인간의 수완과 권모술수나 계책으로 발전되고 사탄적인이며 기만적인 방법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참 진리에서 멀리 떠나고서도 잘된다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인간의 수완이거나 사탄의 도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줄 안다!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수가 되면 타락하고 제도화되고 우상숭배와 거짓 선지자로 사탄의 수하가 되어서 진실한 성령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살육한 일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단 한 두 사람을 일으켜서도 생명의 불길을 일으키곤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다수가 되고 제도화 되면 또 다시 성령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곤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도 철저하게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또 막강하게 역사적으로 축적된 재산과 부동산과 건물들의 힘을 빌리고 온갖 위장파위선과 사탄적인 기만정책으로 그 교세를 꾸준히 유지해오고 확대해

은 천주교는 감히 성령이 도우셔서 이렇게 잘되고 있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안된 말이지만 그렇고도 잘되고 있다면 (성령이 떠난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이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다른 영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실로 천주교가 뺏속깊이 명심하고 잊지말아야할 일일 줄 안다.

(5) 성령을 이용도구(심부름꾼)로 사용하는 천주교  
(구원의 도구로서의 성령, 천주교의 성령에 대한 세 가지  
중대한 범죄 행위)

이하는 벤자민 B. 워필드의 『구원의 계획』에서 인용한 것이다.  
워필드는 천주교의 사제주의와 성령의 관계에 대하여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사실을 지적하여주고 있다.<sup>186)</sup>

1) 천주교의 사제주의는 영혼이 성령과 직접 관계를 맺지 못하게 차단한다.

천주교의 사제주의적인 교리는 영혼이 구원 사역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영혼과 모든 은혜의 근원 사이에 자기들의 교회와 사제들을 끼어 넣어서 영혼이 그 기구(교회와 사제)들을 의지하게 유혹한다. 쉽게 말하면 천주교의 사제주의적인 구원교리는 영혼을 구원의 근원이신 성령에게서 따돌려서 거짓 교회인 자기들을 믿도록 만드는 간악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86) 벤자민 B. 워필드, 『구원의 계획』, 모수환 역, (경기도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8), pp. 71-73.

그러므로 이들에게 기만당한 사람들은 진실로 불행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세상에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구원의 고귀한 문제 앞에서 그 영혼들을 멸망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자들은 그 무겁고 중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2) 천주교의 사제주의는 성령을 언제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적인 힘과 같이 취급한다.**

천주교의 사제주의적인 교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됨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비인격적이고 자연적인 세력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천주교를 ‘구원의 기구’이니 또는 ‘구원의 창고’라고 하면서 저장된 성령의 구원의 능력을 필요할 때 마다 마음대로 꺼내어서 이용할 수 있는 축전기과 같이 여기는 것이다. 이는 지고한 인격적인 제 3위 성령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물리적 힘으로 전락시켜 자신들의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한낱 인간들의 손으로 구원을 베푼다는 소위 성사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장난인지 왜 깨닫지 못한다는 말인가?

**3) 천주교 사제주의는 성령을 사제들의 지배에 복종하게 한다.**

천주교 사제주의 교리는 사제들의 지배에 성령을 복종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성례(성사) 곧 은혜의 수단들은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는 가운데에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 그러나 천주교는 정반대로 성령이 은혜의 수단인 교회(사제)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적 수단이 되게하고 있다. 주도권은 은혜의 수단인 천주교(사제)에 있고 성령은 그 교회의 처리에 복종하는 하수인이 되

는 셈이다. 그래서 성령은 이 사제들이 부르지 않으면 독자적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천주교 사제주의의 구원교리는 명확하게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모욕하는 것이며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천주교는 인격적인 성령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이며 반면에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마술사와 같은 괴상한 종교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복음주의적인 기독교는 천주교의 사제주의 일체와 그들의 모든 구원의 도구(사제와 성사)들에서 등을 돌리고 인격적인 거룩한 영혼의 구세주만을 신뢰한다. 우리는 천주교의 거짓되고 헛된 이 모든 것들로 부터 빠져나와서 은혜로우신 구세주요 인격적인 주님과 거룩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인격적이시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로 겸손히 돌아가야 할 것이다.

## 9. 천주교의 영은 성령인가 다른 어떤 영인가?

(1) 성경에 없는 교리들은 성령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다.

천주교는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교리들을 성령이 성경 이외의 외경들과 인간들을 통한 전통으로 계시하여 전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게 한 성경은 영원한 절대 진리의 말씀이

다(마 5:17-20).

2. 이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눅16:17, 마 24:35).

3. 성경의 참 저자인 성령은 그분의 진실성 때문에(민 23:19) 그분이 기록한 성경에 없는 말이나 성경에 어긋난 말, 반대되는 말 등은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딤후3:16, 뱀후 1:20-21) 그러므로 외경 그리고 비성경적인 전통, 반성경적인 말들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4.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비성경적인 교리, 전통 제도, 의식(성례들), 성사들 그리고 비성경적인 마리아숭배, 미신적이며 모독적인 미사제사, 우상숭배 죽은자들을 위한 기도, 연옥사상 등등은 비 성경적이다 즉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는 기록하신 성경과 반대되는 말을 인간들의 전통을 통해서 전달하실 리가 없다. 성령께서는 두 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5. 이들의 비 성경적, 반 성경적인 교리들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임의적으로 제정되었거나 성령이 아닌 다른 영, 사탄의 영에 의하여 제정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6. 비성경적이거나 반성경적인 이러한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성경말씀 떠난 기적들, 영의 역사들(관상기도, 오순절 은사 운동 등)

천주교의 마리아와 관련된 기적들(예: 루르드의 기적 등)이나 관상 기도중의 기적들, 오순절 성령운동등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주장은 의

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말씀에 따르면 마리아는 찬양과 영광을 받을 대상이 아니며 그녀의 무 원죄탄생, 평생 동정의 주장 또한 비성경적이며 승천한 하늘의 여왕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리아를 그리스도에로까지 높이고 동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대 과오를 범하고 있는 천주교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리 없다. 그들의 소위 오순절 은사 운동들 또한 같은 이유로 다른 영의 역사로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들은 속은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 1) 천주교와 개신교회를 결합시키는데 성공한 사탄

천주교에서 개종하여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라는 책을 쓴 릭 존스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침내 사탄은 비 가톨릭 오순절 운동권과 역사적 로마 가톨릭 교회를 결합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놀라운 위업은 실제적이며 매우 강력한 영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영은 사도들이 죽은 지 수세기가 지난 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혼합체를 태동시킨 영으로, 결코 새로운 영이 아니다. 그 후 이 영은 오순절주의에 도달해서 그 곳으로 스며들어갔으며, 지금은 오순절 자녀들을 그들의 본래의 집으로, 즉 로마 가톨릭주의로 데려오고 있는 것이다.<sup>187)</sup>

그는 여기에서 고대에 혼합 기독교를 출산시킨 사탄의 영이 오늘날 개신교 오순절 운동권과 천주교를 결합시키는데 마침내 성공했다고 하고 있다. 이 오래 묵은 옛 영이 오순절주의 운동에 들어가서 그 자

187) 릭존스,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정동수, 박노찬역, (서울 : 도서출판 두루마리1998), p. 266.

녀들을 그들의 캄캄한 옛집인 천주교로 데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천주교에서 태어나 천주교에서 교육받고 살아온 릭 존스의 주장은 천주교와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의 실체를 체험적으로 명확하게 깨달은 경험자의 주장이기에 신뢰할 만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은사주의자들과 천주교 은사주의자들의 연합운동을 냉정하게 경계해야 될 줄 안다.

## 2)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

릭 존스는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거듭남을 주장하는 영이 진리에 대해 별로 혹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영이 사람들을 어둠으로, 혹은 실수로 이끌때 그것의 정체에 관해 모든 의심을 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것은 현 오순절 은사주의의 실제적인 이미지다. 오순절 은사 운동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을 오도하여 하나님ی 미워하시는 것과 친교를 맺도록 이끌므로, 그것은 어두움의 영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sup>188)</sup>

① 그는 만약 중생이나 성령세례를 주장하는 영이 성경진리에 대하여 별로 혹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

② 더욱이 이 영이 사람들을 거짓된 길로나 잘못된 예언 등으로 이끌면 그것은 의심 없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것이 현 오순절 은사주의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③ 오순절 은사운동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싫어하

---

188) 같은 책, pp. 267-268.

며 사람들을 비 진리로 오도하여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단(천주교) 등과 교체하도록 이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오늘날 개신교와 천주교 은사주의자들의 정체를 매우 선명(鮮明)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3) 오순절주의의 일치 및 통합의 영은 무수한 사람을 멸망의 길인 천주교로 이끌고 있다.**

과거에 자신이 천주교인이었던 릭 존스는 천주교 체제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신 제도라고 폭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오순절/은사주의를 일치 및 통합으로 이끄는 영은 수천만의 사람들을 기만과 잘못된 교리들과 우상숭배를 통한 멸망의 길로 오도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뼈저린 절규(絶叫)는 자신이 과거에 몸담았던 천주교이기 때문에 더욱 사무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애절(哀切)한 심정으로 인용하고 있다.

오순절/은사주의 일치 및 통합의 영은 수천만의 사람들을 로마 가톨릭교회의 거짓과 잘못과 우상숭배의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 가톨릭 체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반드시 멸망하겠다고 약속하신 제도이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내 백성이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며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sup>189)</sup>

---

189) 같은 책, pp. 278.

4) 지금 천주교는 성령은 떠나고 사탄이 성령의 이름으로 군림하고 있다.

첫째, 성령은 중세에부터 서서히 천주교에서 떠나왔다고 볼 수 있다. 대신에 사탄이 서서히 천주교를 점령하여 오다가 트렌트공의회에서 완전히 장악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성령으로 위장한 사탄의 장악력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것이다.(「기만구조 교황의 죄」 389-410참고)

셋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사탄이 거의 완벽하리만치 천주교를 정통 기독교로 위장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5) 천주교의 모든 거짓교리나 잘못된 의식은 사탄에게서 왔다.

천주교에서 개종하여 철저한 천주교 비판과 진정한 복음전파에 여생을 바친 제임스 G. 맥가티는 자신이 쓴 역작인 「가톨릭에도 복음이 있는가?」에서 아래와 같이 천주교를 비판하고 있다.

...이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완전히 반대하진 않는다. 이와는 정반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고, 그들의 예식에 성경을 사용하며, 그들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한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의 거짓 교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교활하게 모방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자들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속임수 뒤에 누가 있는가? 성경에 의하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딤후 4:1)고 한다. 궁극적으로 거짓은 그 근본이 옛 부터 거짓말쟁이인 “거짓의 아버지”(요 8:44) 사탄에게 있다.<sup>190)</sup>

190) 제임스 G. 맥가티, 『가톨릭에도 복음이 있는가?』, 조남민 역, (서울 : 한

그는 여기에서 천주교가 거짓 교사들(저자 주: 이단)이라고 폭로한다. 그들은 정통 기독교의 믿음을 흉내 내며 참 기독교의 믿음을 교활하게 모방하면서 많은 신자들을 멸망의 함정에 빠뜨리는 자들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드러낸 이단보다 더 교활하게 순진한 영혼들을 파멸로 이끄는 간악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기만적인 천주교의 터무니없는 속임수 뒤에는 성경에 경고한 바와 같이 미혹하는 영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그 근본이 옛 부터 거짓말쟁이인 "거짓의 아비" 사탄이라고 폭로하고 있다. 즉 그들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정통 기독교와 같이 교활하게 위장하여 신도들을 영원한 파멸의 길로 빠뜨리는 사탄적인 간계를 철저히 물리치고 성경말씀과 복음진리를 믿고 견지(堅持)해야 할 것이다.

# 제 6 장

## 마리아를 한 없이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늘의 여왕 섭정대비 마리아? : 천주교의  
불행한 최후)

천주교를 말 할 때에 마리아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마리아는 평범한 나사렛 촌의 처녀였으나 목수 요셉과 정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았다. 그 후에 그녀는 천주교에 의해 계속하여 높여져서 결국은 하늘여왕이 되어 왕관을 쓰고 하늘 보좌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본장에서는 마리아 교리들을 중심으로 이 마리아의 계속 높아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천주교가 마리아를 한 없이 높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추적하여 보려고 한다.

## 1. 마리아에 대한 허황된 교리

조영엽 박사는 그의 저서 「가톨릭교회 교리서비평」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성 버나드(St. Bernard)는 “마리아는 영원하신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여왕이라는 왕관을 받아쓰게 되었으며 그래서 자기 아들의 오른쪽에 왕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191)</sup>라고 했고 「가톨릭교회 교리서」 966 조도 “마리아가 지상생애의 여정을 마쳤을 때 몸과 영혼은 하늘 영광으로 올림을 받아 주님에 의하여 만물 위에 여왕(Queen)으로 존귀케 되었다”<sup>192)</sup>고 했다.

또 이 교리서는 마리아가 부활 승천 후 하늘의 여왕으로 앉아 있다고 한다.

가톨릭교회교리서 966조 …주님께로부터 만물의 여왕으로 추대 받았

191) 조영엽 박사 저, 『가톨릭교회교리서비평』, (기독교 문서선교회, 2010) p. 48. 재인용.

192) 같은 책. p. 48.

다……exalted by the Lord as Queen over all things, …193) 이 교리서는 계속해서 “거룩한 동정녀의 승천은 당신 아들의 부활에 특별히 참여한 것이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앞당겨 실현한 것이다.”고 기록하였다.

이 교리서와 조박사의 기록에 의하면 마리아는 죽은 후에 몸과 영혼이 부활하여 하늘 영광의 나라에 승천하여서 하늘의 여왕으로 추대받고 존귀케 되어 앉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앞의 성 버나드의 말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로저 오클랜드는 그의 저서 「새 포도주와 바벨론 포도나무」에서 「여신의 신화들」이라는 책을 아래와 같이 인용하고 있다

마리아 동상들과 그림들이 개인적 또는 공동체적인 숭상의 대상이 되었다. 동상들과 그림들은 겸손한 처녀보다는 왕관을 쓴 여왕을 묘사하고 있었다. 가끔 그녀는 마치 이시스가 그녀의 무릎에 이집트의 파라오들을 앉힌 것처럼 자신의 무릎에 면류관을 쓴 그리스도-왕을 앉히고 있다.<sup>194)</sup>

이 기록들을 보면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 관을 쓰고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그 보좌 우편 보좌에 당당하게 앉아있다 그뿐 아니라 그녀의 무릎 위에 그리스도를 앉히고 세계를 다스리는 섭정 왕후와 같이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마리아의 부활이나 승천기록은 없으며 더 더욱이 그녀가 천국의 여왕관을 쓰고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왕좌에 좌정하여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기록은 결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 천주교는 그만 성경말씀으로 돌아가서 현실을 직시(直視)하고 천 육백여년 간 가꾸어

193) 같은 책, p. 49.

194) 로저 오클랜드 지음, 『새포도주와 바벨론포도나무』, 스테반 황 옮김, (서울 : 밴드오브 퓨리탄스, 2010), p. 349. 재인용.

은 이런 허망 된 꿈에서 하루 속히 깨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 2. 각처에 출현(발현)하는 마리아 이야기들

### (1) 공식적인 마리아 출현 이야기들

성모 마리아의 발현은 결코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고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최소한 2만 1000번의 성모발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천주교가 진실성을 인정한 것은 일곱 차례의 발현 뿐이라고 한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곳 외에도 17개의 발현은 관할 주교가 최종적인 판단과 관계없이 성모 발현지를 공경해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고 한다.

성모마리아의 발현은 결코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다. 1986년 사라고사에서 열린 제42회 성모 주간에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최소한 2만 1000 번의 성모발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횟수는 기원 후 1000년부터 계산한 수치이다 20 세기에만 400여 차례의 발현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중 200번은 1944 년에서 1993년 사이에 일어났다<sup>195)</sup>

### (2) 비공식적인 마리아 출현 이야기들

천주교의 마리아 신앙에는 <마리아의 발현(發顯)(출현)>이라는 하나의 기현상이 추가되고 있다.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보고들은 3-4세기부터 나오고 있으며, 1531년에 멕시코에 나타나고 1830년에서 1990년대 사이에는 세계 도처에

195) 페터 제발트 지음, 『가톨릭에 관한상식사전』, 이기숙 옮김, (서울 : 보누스. 2008), p. 221.

10여 차례나 공식 인정받은 발현이 있었고, 천주교회의 공식인가나 동의를 얻지 못한 발현도 232건에 달한다고 한다.(한국가톨릭대사전 제7권 4591-4594) 그러나 그 외에도 프랑스만 해도 937개의 마리아 성지(발현지로서 순례지)가 있으며, 그녀는 세계의 구석구석에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196)

### (3) 모든 발현 마리아들의 메시지들

모든 발현 마리아들의 메시지(사적계시: 예언)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며 좀 다른 것도 있다. 천주교는 이를 사적(私的)계시라고 하며 그들의 공적 신앙 계시라고는 하지 않으나 자기들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사적계시로서 인정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것들은 다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발현 마리아들의 사적계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과거에 (1531-1933) 발현한 마리아의 메시지들(한국가톨릭대사전 제7권 4592-4595 참고)197)

나는 평생 동정이며 하느님의 어머니임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어려울 때에 정성을 다해 나를 찾는 이들에게 나의 자비를 드러내도록 이 자리에 성당을 짓기를 원한다.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는 지구 위에 서서 두 팔을 지구 위로 활짝 펼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위에는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당신께 의탁하는 우리를 위하

---

196) 데이브 헌트 지음, 『짐승위에 탄여자』, 정태윤 옮김, (서울 : 도서출판 누가, 2007), p. 347.

197)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서울 :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pp. 4592-4595.

여 빌으소서”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성모는 이때 자신이 보여준 모습대로 메달을 만들어 지니는 사람은 큰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파리 워뒤 박)

성모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죄인들의 화해자’ 라고 밝히면서 인류가 회개하여 하느님과 화해하면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벌을 받으리라고 하였다.(프랑스 라 살레트)

성모는 자신을 ‘원죄 없는 잉태된 자’ (Immaculata Conceptio)라고 밝히면서 기도와 보속 행위 회개를 촉구하였으며 특히 목주 기도를 권장하였다.(프랑스 루르드)

성모는 하얀 깃발 위에 쓴 “애들아, 언제나 기도하여라 내 아들은 너희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신다”라는 글씨를 보여 주었다.(프랑스 폼뎡)

성모는 흰옷을 입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오른편과 왼 편에는 성 요셉과 사도 요한도 함께 있었으며, 제대와 어린양 주위로 천사들이 돌고 있었다. 이 발현에서는 말씀으로 전한 메시지는 없었으나 미사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아일랜드 노크)

흰옷에 흰 망토를 걸치고 목주를 든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맨발로 구름을 밟고 선 모습이었다. 성모는 자신을 ‘로사리오의 여왕’이라고 칭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매일 목주 기도를 바칠 것과 죄인을 위해 희생할 것, 그리고 성모 성심을 공경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러시아를 당신 성심(마리아의 사랑)에 게 봉헌하고 매월 첫 토요일에 영성체할 것을 요청하면서 끊임없는 기도와 희생과 보속을 통해서만 세계 평화와 러시아의 회개 및 교회의 안정과 평온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언하였다.(포르투갈 파티마)

흰옷에 황금관을 쓰고 양손을 들어 티 없는 황금빛 성심을 드러내 보인 성모는 자신을 ‘원죄 없이 잉태된 티 없는 동정녀, 하느님의 어머니요 천상의 여왕’이라고 밝히면서 끊임없는 희생과 기도 및 죄인들의 회개를 원하였다.  
(벨기에 보랭)

성모는 자신을 ‘가난한 자의 동정녀’ 라고 칭하고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을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바치라고 하였다.(벨기에 바뇌)

이상 공인된 9개처에 발현한 마리아들의 메시지는 좀 다양하다

① 하나님의 어머니나 평생 동정녀 그리고 교회의 화해자, 가난한 자의 동정녀 등을 자칭했다.

② 목주기도를 많이 강조했다

③ 회개, 희생 보속행위도 강조했다

④ 기도를 5회 정도 강조했다.

⑤ 특기 할 것은 자신을 목주기도의 여왕이며 천상의 여왕이라고

한 것이다

⑥ 중요한 것은 ‘원죄 없이 잉태된 티 없는 동정녀’라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1830년에 있었는데 1854년 12월8일에 교황 비오 9세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라는 교리를 선포하게 한 전통적 근거 되었다. 그 뒤에도 발현 마리아들은 이 메시지를 두 번 더 강조했다.

이러한 발현 마리아들의 메시지는 대개 그동안 천주교의 마리아 교리들 등을 반복하여 강조한 것 정도이다. 이는 천주교의 그릇되고 비성경적인 마리아 교리들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원죄 없이 잉태된 자’라는 말은 원죄가 없이 잉태된 마리아라는 기상천외(奇想天外)한 발상으로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마리아 신격화의 근

거가 되었다 과연 이 시도는 성공하여 14년 만에 천주교의 무류의 교리가 되고 말았다. 이상으로 보면 여러곳에 나타나서 사적계시라고 전한 마리아들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마리아의 것이거나 더욱이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는 전혀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렇게 발현한 마리아들의 메시지에 특별한 의미를 두거나 신앙(교리)화 하는 일은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크게 잘못된 미신적인 행위라고 해야 할 줄 안다.

2) 그 외에 발현 마리아들이 전한 메시지들(모든 곳에서 마리아는 성체를 강조한다.)(『가톨릭 성체비판』 140-142)198)

성모는 로마의 마리아 로시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다. 1993년 6월에 성모가 부탁하셨다 '성체에 대한 그녀의 메시지들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한다.' 성모는 말씀하신다 “나는 성체의 어머니다.” 그녀는 이 위대한 성례를 위한 새롭고 강한 헌신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원하신다

영성체에 참여한 후 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성 변화된 제병이 내 혀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나는 “너는 지금 주님을 만났다”라는 성모의 음성을 들었다

너는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예수가 참으로 제병 안에 현존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 너는 그를 정말 만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성체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다는 사실을 믿어야한다

나의 아들은 언제나 성체 내에 있을 것이다. 정식으로 안수를 받은 법적인 대표자인 너희 사제의 거룩한 손은 언제나 성체를 통해 나의 아들의 몸과 피를 너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나의 아들은 너희에게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간다.

198) 로저 오클랜드, 『가톨릭 성체 비판』, 스테반 황 옮김,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pp. 140-142. 재인용.

오 예수님, 가장 복된 성례에 실제로 현존하시는 주님 내 몸과 영혼이 당신의 거룩한 마음과 하나가 되도록 저를 주께 드립니다 주의 거룩하신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제단 위에서 화체가 되어 희생으로 드려졌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왕국이 임하길 간구합니다

오늘날에 너희는 많은 성체 현상들이 발생하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너희는 복된 성체 안에 있는 나의 신적인 아들을 향한 전적인 경외감을 새롭게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감실(성체라는 빵을 넣어둔 껍)이 교회 내에서 마땅한 자리와 적절한 위치로 다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 외에 발현한 마리아들의 메시지를 보면 특색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 열거한 6개 처에 발현한 마리들의 메시지를 보면 장소와 시기는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발현 일시가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근거가 된 책자들과 로마에 나타난 시기(1993) 등을 보면 대개 1967-1993년 사이의 가장 최근의 사건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다양한 장소와 시기에 나타나서 전한 메시지는 모두 짜 맞춘 듯이 똑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성체에 대하여 몇 가지로 나누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① 나는 성체의 어머니다.
- ② 나는 이 위대한 성례(성체)를 위한 새롭고 강한 헌신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원한다.
- ③ 성체를 입에 넣은 후에 그 성체가 내 혀에서 움직이는데 “너는 지금 주님을 만났다”하는 성모의 음성을 들었다.
- ④ 너는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예수가 참으로 체병(성찬 빵)안에 현존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한다.
- ⑤ 너는 그를 정말로 만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성체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다는 사실을 믿어야한다.

⑥ 나의 아들은 언제나 성체 안에 있을 것이다.

⑦ 너희는 성체의 성녀들(the Handmaids: 성체 수녀회의 일종)의 기도를 잘 따라하라

“오 예수님, 가장 복된 성례에 실제로 현존하시는 주님. 내 몸과 영혼이 당신의 거룩한 마음과 하나가 되도록 저를 주께 드립니다 주의 거룩하신 마음은 이세상의 모든 제단 위에서 화체가 되어 희생으로 드러졌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왕국이 임하길 간구합니다.”

⑧ 오늘날 너희는 많은 성체 현상들이 발생하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⑨ 너희는 복되신 성체 안에 있는 나의 신적인 아들을 향한 전적인 경외감을 새롭게 하게 될 것이다.

⑩ 그리고 감실이 교회 내에서 마땅한 자리와 적절한 위치로 다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마리아의 메시지들은 한 걸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화체)된다는 그 빵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일관되게 먼저, 그 성체는 내 아들이다 고 하여서 성체의 빵이 마리아가 낳은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성체의 빵과 그리스도의 동일함을 부각(浮刻)시키는 기만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은 언제나 성체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여서 부활 승천하여 세상 끝날 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참으로 실재하는 그리스도(마 28:20)를 잊어버리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한낱 빵 조각 안에 그를 가두어 두고 그 물질을 그리스도로 믿고 경배하게 하는 옷어넘기기에는 너무 모독적인 연극을 연출하고 있다. 도대체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발상(發想)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이 사실(성체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서 위대한 성체를 위한 새롭고 강한 헌신이 온 세상에 퍼지길 원한다고 하면서 이 성체신앙과 숭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마침내 성모는 성체가 혀에서 움직이는 기적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성체현상(성체기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성체성녀들의 기도라는 것도 이러한 터무니없는 성체놀이를 날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최면(催眠)방법과 같이 보인다.

우리는 날로 증가하는 마리아 출현들과 이러한 메시지들과 기적들을 부단히 주시하면서 성령과는 관련이 없는 비 성경적인 거짓된 환상이나 계시, 기적들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하겠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희를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9-12)

(4) 마리아 출현 기적들은 사탄의 영들이 일으키는 일들이다(한 개종 신부의 고백, 「교황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295-296p).

살바토레 가르줄로 신부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1951년에 사제 서품을 받아서 활동 하다가 1977년에 주 예수의 복음으로 회심하여 기독교

교로 개종하였다. 그리고 사제생활을 하였던 지역에서 복음전파를 위하여 일하였다. 그런데 이 사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실제로는 그리스도보다 마리아를 추종한다 나는 사람들이 목주기도(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를 단조롭게 반복하는 기도)를 낭송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훈계한 적이 없다. 오히려 마리아가 일으켰다고 전해지는 기적 이야기들(저자 주: 발현 마리아의 메시지들과 거기에 수반하는)을 열심히 소개했다 그 기적이란 실제로는 흑암의 권세 잡은 자들(필자 주: 사탄의 영들)이 수백만 수천만의 영혼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낸 일에 지나지 않는데 말이다.<sup>199)</sup>

세계도처에서 출현하는 마리아들의 사적계시(메시지)들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체에 대한 것이다. 앞의 제 3장 뒷부분에서도 취급한 바와 같이 발현 마리아들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성체(뽕) 그리스도와 성체의 어머니 마리아가 앞으로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 시기가 아주 임박했다고 한다.

그러나 무수하게 세계 도처에서 출현하는 마리아의 메시지(예언)와 기적들(병자들 치유 받는 것과 기타)을 보면 무언가 의심스럽게 생각되는 점이 많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러한 거짓 마리아(성경에 없는 마리아)들의 다양한 발현과 여러 가지 예언들과 성체기적들은 결코 진짜 마리아의 역사이거나 천사나 성령의 역사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참 마리아나 천사나 성령은 이러한 반(反) 성경적인 현상들(영터리 메시지나 기적들)을 결코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겠

199) 리처드 베넷 · 마틴 버킹엄 편저, 『교황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이길상 옮김, (서울 : 아가페출판사, 2002, 1판2쇄), pp. 295-296.

지만 이 신부가 지적인 말이 정확하다고 본다. 발현 마리아들의 기적(예언)이란 실제로 흑암의 권세 잡은 자들(사탄의 영들)이 무수한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하여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조작해낸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5) 모든 마리아의 발현(출현)은 마귀의 속임수들이다.

천주교 네덜란드 암스텔담 교구의 주교와 부주교는 1996년 5월 31일에 공식적으로 출현한 마리아에 대하여 "모든 열방의 부인"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했다<sup>200)</sup>고 한다. 그런데 로저 오클랜드는 "모든 열방의 부인"의 출현은 마귀적 속임수들이다.<sup>201)</sup>고 지적하였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세계 도처에서 무수한 마리아들이 발현하여 갖가지 메시지들을 전해왔고 기적들도 일으켜 왔다. 그런데 이 마리아들이 성경의 진정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라면 누구나 다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개종한 신부도 흑암의 권세 잡은 사탄의 간계(奸計)라고 말했지만 “모든 열방의 부인”의 출현은 마귀적 속임수들이라고 한 오클랜드의 지적도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에리히 브뤼닝의 글에서는 그것들이 유령의 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마리아가 주님께로부터 하늘의 여왕으로 추대 받았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966항)는 근거를 들어서 이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섬기던 바 바벨론의 이방신인 하늘의 여왕(렘 7:18, 44:17, 18,

200) 로저 오클랜드, 『새 포도주와 바벨론 포도나무』, 스테반 황 옮김, (서울 : 밴드오브 퓨리탄스, 2010), pp. 342

201) 같은 책, p. 343.

19, 25)에서 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늘나라에는 여왕이 없고 왕은 그리스도 한분 밖에 없으니 천주교가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마리아는 이방여신이라는 말이다.

천주교도인 에피 마리아 스라데는 "에큐메니칼의 시간은 역시 동시에 스스로 마리아라 부르는 악마의 시간"이라고 하여서 마리아를 "스스로 마리아라고 부르는 악마"라고 하였다.<sup>202)</sup>

그리고 브뤼닝이 마리아 유행의 배후에 있는 영의 성격에 대하여 가톨릭의 마리아 현현-요람에 나오는 예를 들어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다."

"모든 은총의 중보자인 마리아를 통해서만 개종한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구출의 은총은 이미 모두 내 아들의 공로로 얻었고, 나는 공동 구원자로서 그와 더불어 바로 너희의 구출을 위해 고난을 받았다."

"하늘의 아버지가 나에게 전 세계를 넘겨주셨다."<sup>203)</sup>

브뤼닝은 이러한 발언들은 명령적이고 요구적인 성격으로 참 마리아의 겸손한 영의 성격이 아니라고 하였다. 자신이 하는 말을 따르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자신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라는 말과 자신을 통하여서 개종한 인류만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망령된 말들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간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의 공로로 얻었지만 자신도 그와 함께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므로

202) Brüning · Deppe · Gassmann, 『Projekt Einheit』, (Oerlinghausen : Betanien Verlag e. K, 2004), p. 44.

203) 같은 책, p. 44.

그와 함께 공동 구원자라는 절대 부당한 망발을 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전 세계를 넘겨주셨다는 등도 모두 참 마리아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일 것이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위장하고 나타난 사탄의 영이나 할 수 있는 망언이라고 할 것이다.

오토 마르크만(Otto Markmann)은 이렇게 말하였다.

마리아 현현(발현)은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다. 우리는 이 현현의 사실을 의심하지 않지만 아래로부터의 현현의 문제, 사람을 오도하기 위해 사탄이 흉내 내는 문제라는 것을 확신한다<sup>204)</sup>

이상으로 볼 때에 마리아의 출현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문제는 성경 말씀에서 이러한 마리아에 대한 근거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는 사람들을 오도하기 위해 사탄이 조작하는 일이라는 주장들이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자신을 마리아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결국 참 마리아가 아니라 사탄의 영들이 마리아를 사칭(詐稱)한 위장 자들 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6) 출현 마리아들은 유혹의 영이며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는 여신들이다.

데이브 힌트는 그의 저서 「짐승위에 탄 여자」에서 세계각처에 출현하는 마리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지난 60년간의 모든 교황들은 “파티마의 우리부인”을 인정하고 그 마리아에게 경의를

---

204) 같은 책, p. 45.

바쳐왔으며 그 신비적인 마리아의 “무염의 심장”에 바치는 헌신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바치는 헌신으로 대치해버렸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출현한 마리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을 거스르고 있으며 구주의 영광을 사이비 마리아로 역사하는 “미혹의 영”(딤펴전 4:1)에게 돌리고 있다<sup>205)</sup>고 하였다.

그리고 헛트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것이라고 경계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딤펴전 4:1)고 한 말씀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출현한 마리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의 충분함을 부인하고 만유의주로서의 그의 위치를 거부하면서 거짓 마리아를 그리스도 위에 올려놓는 결정적인 마귀의 교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헛트는 “구아달루페의 우리부인”이라는 출현 마리아는 이전에 자기에게 봉헌된 사당이 있는데도 또 사당을 지어 바치라고 명령을 하였고, 전 세계에 이러한 마리아를 위한 사당들이 수천 개에 달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과연 이 모든 사당들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신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이 마리아들은 전 세계의 천주교인들에게 일일이 다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들은 마리아를 하나님 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과거에 여신들이 지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여신이 멀지 않는 장래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sup>206)</sup>고 하였다.

이상으로 데이브 헛트는 세계 각처에 발현하여서 여러 가지의 이상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성당들을 짓게 하며 그곳들을 성지가 되게 하

205) 데이브 헛트, 『짐승 위에탄 여자』, 정태윤 옮김, (서울 : 도서출판 누가, 2007), pp. 353-354.

206) 같은 책, pp. 356-357.

는 마리아들은 “유혹의 영”이며 “마귀의 교리”들을 가르치며 과거의 여신들과 같이 머지않은 장래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적으로 각처에 출현하여서 신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천주교의 마리아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며 경계하여야 할 줄 안다.

### 3. 인위적이고 거짓된 마리아 교리들

이하에서는 천주교의 마리아 교리들을 열거하여서 간략하게 그 허구성(虛構性)과 거짓됨을 밝히도록 하겠다.

#### (1) 하나님의 어머니 (431 에베소 공의회 결의)

주후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는 격렬한 반대를 이단으로 잠재우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Theotokos)라는 교리를 결정하고 말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선의적으로 성자의 신격을 강화하기 위한(아들이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결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결의는 천주교가 온전히 대 이단화 되고 이방종교로 변종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의 절대 부당성

흔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빌렸다고 초기에는 대부분 그렇게 선의로 해석했다 이는 사실 중대한 실수였거나 아니면 고의적인 변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혹시 만

의 하나 이것이 선의의 결정이었다고 할지라도 천주교에서는 악용하고 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 이셨던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교리는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의미가 된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서운 망발(妄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이방 종교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2) <하나님>이라는 말은 주로 삼위 하나님 중 <성부>를 일컫는 것이니 이는 마리아가 <성부의 어머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표현도 불손(不遜)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중요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교리는 결단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 교리 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친 에베소 주민들의 역할

더욱이 당시 이 교리 결정전후의 주변상황을 보면 이 교리가 이방 여신 숭배의 영향을 받은 이방 신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업고 배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에베소 공의회 때에 당시 기독교 대중들과 헬라종교 출신의 지식인들이 이방 여신을 갈망한 것과 당시 교회 지도자들 사이의 술책과 음모는 제외하고라도 에베소 주민들이 거리에서 요란하게 시위를 함으로써 회의 참석자들에게 압력을 가하였다고 한다.<sup>207)</sup>

② 당시 사람들은 한 결 같이 에베소 공의회 결정에 지지했으며 공의회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횃불을 들고 행렬을 벌리면서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 이 결정으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하늘의 여왕으로 숭배하는 것이 영구히 그리고 엄숙히 확립되는 듯이 보였다.208)

③ 이제 마리아에게 교회적으로 신의 생모라는 호칭이 공식적으로 수여되었다는 결과가 알려졌을 때 시민들은 모두 거친 감격에 뛰쳐나와서 ‘신모(Theotokos)을 찬양하라’고 환호했다. 이것은 예전에 거기서 주민들이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카데미여!’ 하고 소리치며 그들의 동정녀 모신(母神)의 영광을 확인하려 했던 것의 반향처럼 울렸다. 교회회의의 감독들은 그 동안에 횃불과 화환(축하선물로 받은)을 들고 숙소로 돌아왔다.209)

이상의 역사적인 사실만 보아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에베소 공의회 결정의 마리아를 비 성경적으로 신격화하여 잘못된 이방 여신 숭배로 변질시키려는 당시 믿음이 없고 무지한 일반 백성들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 (2) 평생 동정녀설 (평생처녀설, 종신처녀설)

(451년 칼케돈 공의회 인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 동 교회헌장 52조. 교리서 499항).

207) Brüning · Deppe · Gassmann, 『Projekt Einheit』, (Oerlinghausen : Betanien Verlag e. K, 2004), p. 38.

208) 필립 샤프, 『교회사전집 3.』, 이상길 역. (서울 :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2004), p. 386.

209) Brüning · Deppe · Gassmann, 『Projekt Einheit』, (Oerlinghausen : Betanien Verlag e. K, 2004), p. 38.

마리아가 동정으로 어머니가 되었다는 신앙을 더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교회는 마리아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을 낳는 그 순간에도, 실제로 그 리고 평생 동정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기에 이른다. 사실 그리스도의 출생은 당신 어머니의 ‘완전한 동정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성화하였다.’ 교회 전례는 마리아를 ‘평생 동정’ (Aeiparthenos)으로 찬미한다<sup>210)</sup>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후에 형제들과 누이들을 낳았다는 사실은 아래의 신약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막 6:3, 3:32, 요 7:1-52, 행 1:15, 눅 2:7, 마1:25) 그런데 천주교는 비성경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만 낳고 일평생 숫치녀로 깨끗하게 산 순결무구(純潔無垢)한 여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리아가 계속 자녀를 낳지 않고 일평생을 동정을 지키며 살았다는 구절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위의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의 친형제들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고집스럽고 무리하게 평생 동정설을 억지로 주장한다는 말인가? 이는 천주교의 평생 동정설은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한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기만적인 날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3) 무 원죄 잉태설(무염시태, 원죄 오염 없는 잉태 설)

(1854년 비오9세 선언. 교리서 411, 490-493, 508항)

마리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에서 완전하게 보호되고 일생 동안 본죄에 물들지 않았다.<sup>211)</sup>

210) 주교회의의 교리교육 위원회, 『가톨릭교회교리서』,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1판 3쇄) p. 217.

211) 같은 책. pp. 219-220.

이러한 비성경적 일뿐만 아니라 반(反)성경적인 터무니없는 교리들을 성경 밖의 전혀 신빙성 없는 근거들을 끌어들이며 제조해내는 기술과 기만성에는 실로 경탄(驚歎)할 수밖에 없다.

이 교리도 명확한 성경말씀을 거슬러서 천주교가 창안한 도저히 따질 가치가 없는 거짓 교리이다. 다음 말씀만 인용하겠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눅 18:19).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이 말씀들은 아담의 자손인 인간은 모두 죄인(원죄)이며 선하신 한분 하나님 외에 선한 인간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다. 죄(원죄)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유독 마리아만은 이러한 인류 공통의 원죄가 없이 잉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성경의 진리인 원죄상태에서의 잉태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저들은 고의적으로 마리아를 인간들을 초월한 천사처럼 원죄나 자범죄(自犯罪)가 없는 슈퍼우먼(super woman)으로 창조하였던 말인가? 창조주요 구속주 이신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신적 형상과 존재방식을 버리시고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인간이 되기까지 하시지 않았는가?(빌 2:7) 그런데 어찌하여 저들은 마리아를 아담의 딸의 신분을 초월하여 예수님

의 대속이 필요 없는 초인(超人)으로 위조(偽造)하고 있다는 말인가?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고 평생 본죄(자범죄)없이 살았다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은 누구를 위하여 지어냈다는 말인가? 천주교의 이러한 황당무계한 발상들은 가히 사탄적 이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을 줄 안다.

#### (4) 평생 무죄설 (자범죄가 없다. 지속적 무죄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 56조, 교리서 411. 508항)

마리아는 최초로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죄에 대한 승리의 은혜를 입은 분이다. 그분은 원죄에 전혀 물들지 않았고, 지상 생애 동안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다.<sup>212)</sup>

천주교는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 되었을 뿐 아니라 평생 동안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는 교리를 추가하였다. 이는 위에서도 조금 언급 하였지만 평생 동정(童貞)교리보다 보다 더욱 불가능한 교리이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한 군데만 보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만일 우리가 범죄 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일 1:8, 10)

이 말씀은 명확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이며 복음진리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속에 있지

---

212) 같은 책. p. 183.

않다고 하신 것이다. 또 더 나아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중대한 죄를 범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이 원죄가 없다거나 자범죄(自犯罪)가 일생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평생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은 마리아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심지어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무서운 범죄임을 명심하고 그 교리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전 7:20).

### (5) 모든 은총의 중보자 (중재자, 중보 여인)

(1917년 베네딕트15세 선언. 교리서 968-971, 975, 2673 -2682항)

천주교의 마리아 교리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중보사역이다. 이는 중개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 교리서에서 마리아에게 네 가지의 칭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중개자이다. 중개자는 중재자나 중보자와 같은 이름이다.

실제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께서서는 이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시어 당신의 수많은 친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 주신다.…그 때문에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교회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재자라는 칭호로 불리신다.<sup>213)</sup>

천주교에서 개종하여 천주교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

213) 같은 책, p. 399.

헌신한 제임스 G. 맥카티는 그가 쓴 「가톨릭에도 복음이 있는가?」에서 다음과 같이 마리아의 중보역할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독특한 축복의 통로이며, 그리스도가 그녀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은총을 허락했고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는 신자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녀에게 빨리 가도록 권면한다고 하였다. 그리고…마리아의 중보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올 수 없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전 인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중보 여인이며 대언자이고 영광의 중보자<sup>214)</sup>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

천주교는 상투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리들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해명을 한다. 이 분명한 마리아의 중보사역을 주장하면서도 이와 같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은 교묘한 설명으로 마리아의 중보를 억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빼놓지 않고 이 마리아의 중보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사역을 침해하지는 않고 오직 종속적이며 협력적이라<sup>215)</sup>고 상투적으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종종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상투적이며 형식에 불과하고 그들은 거의 마리아의 중보에만 매달리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극단적인 한 사례를 보면 1981년 교황청 광장에서 배에 총격을 받

214) 제임스 G. 맥카티, 『가톨릭에도 복음이 있는가?』, 조남민 역, (서울 : 한인성경선교회, 2006), pp. 299-300.

215) 최창무, 『제2차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04, 제2판 2쇄), p. 164.

은 요한 바오로2세의 실화 이다. 그는 한 터키 청년이 쓴 총알을 맞고 쓰러져서 병원까지 앰블런스를 타고 가면서 15분 동안이나 "마리아, 나의 어머니! 마리아, 나의 어머니!"를 쉬지 않고 간청하여 불렀다고 한다.<sup>216)</sup> 하나님 아버지나 주님을 부르지 않고 마리아만 부른 것이다. 이렇고도 유일한 증보자는 그리스도이며 마리아는 종속적이며 협력적인 증보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다 잘 아는 한 승려(중)이야기가 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면서 위험해지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을 부르며 건너다가 더 위험해지자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불렀다는 이야기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승려도 위급할 때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인간 공통심리인데 하물며 하나님(그리스도)의 대리자라 자처하는 교황이 하나님은 부르지 않고 최후까지 마리아만 불렀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 교황은 하나님 신자인가? 마리아신자인가?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속주이시며 증보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한갓 인간 마리아를 비성경적인 거짓으로 승천까지 시켜서 그리스도 보다 인류에게 친절하며 그리스도도 거절하지 못할 유일한(실질적으로) 증보자라고 앞세우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실로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이며 배교이며 배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6) 부활 승천하여 하늘의 여왕이 되고 그리스도와 더욱 완전히 동화된 마리아 (마리아 부활 승천설, 하늘의 여왕 등극, 그리스도와 동화설) (1950년 비오 12세 선언. 교회문

216) 제임스 G. 맥카티, 『가톨릭에도 복음이 있는가?』, 조남민 역, (서울 : 한인성경선교회, 2006), p. 267.

헌 59항, 교리서 966,974항)

천주교는 2천년이 다 되어가는 1950년과 1954년에 교황 비오 12세를 통하여서 마리아에 대한 획기적인 교리를 제정해 내놓았다. 그것은 마리아가 부활 승천하여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어 하늘의 여왕으로 추대되었다는 것이다. 그 교리는 다음과 같다.

마침내 원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시어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는 지상 생활의 여정을 마치시고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시고 주님께 천지의 모후(여왕으로도 번역됨)로 높여지시어 군주들의 주님이시며(묵시 19, 16 참조)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신 당신 아드님과 더욱 완전히 동화되셨다<sup>217)</sup>

주님께 천지의 모후(저자 주: 여왕, 여신)로 들어 높여지시어,(저자 주:… exalted by the Lord as Queen over all things: 주님께로부터 만물의 여왕으로 추대 받았다.) 군주들의 주님이시며(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계19:16 참조),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신 당신 아드님과 더욱 완전히 동화되셨다.(교회헌장 59항. 교리서 966)<sup>218)</sup> (교황 비오 12세의 교황령: 「Munificentissimus Deus」 1950.)

이들의 이 명확한 교리는 한 문장 안에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① 마리아를 부활 승천시키셨다 이는 ‘들어 높여지시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217) 최창무, 『제2차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04. 제2판 2쇄), pp. 163-164.

218) 조영엽 박사 저, 『가톨릭교회교리서비평』, (서울 : 기독교 문서선교회, 2010), p. 49.

② 마리아를 만물(하늘)의 여왕으로 추대하셨다. ‘천지의 모후로···높여지시어’는 분명히 이런 뜻이다.

③ 마리아가 만왕의 왕이며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와 더욱 완전히 동화되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와 더욱(강조) 완전히(완벽하게) 동화(똑같이) 되었다는 뜻이다.

천주교는 이렇게 마리아를 신격화하여 하늘의 여왕, 군주들의 주님(만왕의 왕, 만주의주)이니 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 승천을 시켜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경말씀 어디에서도 이러한 말씀의 근거는 찾을 수 없다

## <마리아의 승천과 하늘여왕 됨, 그리스도와 동화 됨 교리>에 대한 간략한 탐구(探究)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해설 총서 2」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에 이 교리에 대한 약간 구체적인 해설이 나온다.

이 공의회 문헌해설 총서에서는 마리아의 승천과 모후성(여왕됨)에 대한 근거로서 이 헌장이 “성경을 떠나서”(성경인용 없이) 교황 비오 12세의 신조와 회칙만을 인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219)</sup>

### 1) 마리아의 부활 승천에 관하여

이 교리의 근거는 교황 비오 12세가 반포한 신조를 신중히 재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

219) 레오 엘더스 외, 『제2차바티칸 공의회 문헌해설 총서 2』, 현석호 옮김, (서울 : 성바오로출판사, 1991), p, 483.

이 신조는 교황 비오 12세의 교황령 (1950년) <무니피첸티스무스>에서 신중히 재기록 하였다고 했다. <Munificentissimus Deus>(아낌없이 주는 하느님, 지극히 자애로우신 하느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늘에 오르셨지만 마리아의 승천은 그리스도에 의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신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다.<sup>220)</sup>

그러므로 천주교가 신봉하는 마리아의 부활과 승천교리는 성경에서 근거를 댈 수 없으니 그저 “성경을 떠나서” 교황 비오 12세가 1950년에 반포한 교황령만을 신중하게 재기록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교황이 선포한 교황령 하나 만에 근거한 것임을 “신중하게” “재기록”했다는 표현으로 기술적으로 넘기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리아 부활 승천 교리는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성경말씀에 전혀 근거가 없는데 인간 교황의 단독적인 선포로서 천주교의 교리체제를 강화한 역할을 한 이 교리도 천주교에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다 주는 거짓된 교리이기 때문이다.

## 2) 천상천하의 모후(母后)로 개선한 마리아

이 교리의 두 번째 부분도 부활 승천교리와 동일하게 “성경을 떠나서” 교황 비오 12세의 마리아의 모후성에 관한 회칙 「앗 켈리 레지남」(Ad Coeli Reginam)을 인용하고 있다 이 「앗 켈리 레지남」은 ‘하늘의 여왕에게로, 마리아 여왕의 제헌’이라는 1954년 회칙이다.<sup>221)</sup>

이 현장은 마리아의 보편적 모후성을 선언한 비오 12세의 회칙 「앗

220) 같은 책, pp. 483-484.

221) 같은 책, pp. 482-483.

첼리 레지남」에서 마리아의 모후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회칙은 마리아의 모후로서의 품위를 뒷받침 하는 기초로서 “잉태하신 순간에 인성과 말씀과의 위격적 결합에 의해 인간으로서도 모든 것의 왕이시고, 주님이신 아들에 인간적인 생명을 주신 마리아의 신적 모성이다.”라고 명시하고 또 구원계획 안에서 마리아의역할도 역설하고 있다.

마리아는 그 신적 모성과 구원계획에서의 역할로써 다스리는 자들의 주님이시며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신 당신 아들을 닮은 자가 되기 위해 모든 이의 모후로서 높임을 받으셨다.<sup>222)</sup>

이 회칙의 내용은 세 가지로 되어있다 마리아가 천지의 여왕이라는 품위를 뒷받침하는 기초는 첫째, 인간으로서도 모든 것의 왕이시고 주님이신 아들에게 인간적인 생명을 주신 마리아는 만유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낳으신 신적인 어머니이니 하늘의 여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며 둘째 구원계획 안에서의 역할도 역설하고 있는데 이는 또 그리스도와 공동구속자 역할을 감당했으니 하늘의 여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그 위에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시며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자인 당신 아들과 동일하게 되기 위하여 하늘의 여왕으로 높이 추대를 받았으니 하늘의 여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한글 역에서 여왕을 모후로, 동일하게 되었다를 닮았다고 그 뜻을 약화시켜 번역한 것은 정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이 공의회 문헌해설서가 밝힌 마리아의 부활 승천과 하늘 여왕으로 추대됨과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됨의 교리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222) 같은 책, p. 484.

① 이 교리들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비성경적이며 반성경적인 것이다.

② 이 교리들은 교황 비오 12세가 단독으로 제정하여 선포한 단순한 인간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③ 이 교리들은 1950년과 1954년에 제정한 것으로서 최근에 나온 것으로 역사적으로도 그 가치가 더욱 크게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50여 년간 없었던 이러한 교리가 이렇게 뒤 늦게 만들어 졌으니 어떻게 신빙성이 있겠는가?

④ 이 교리들은 무엇보다도 마리아 신격화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제정의 목적이 크게 의심스럽고 매우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교리에 따르면 마리아는 어느 날(1950년 11월 1일과 1954년) 갑자기 부활 승천하여 그리스도와 더욱 완전히 동일하게 되어 천국의 여왕으로 등극하여서 천국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었다는 것이다. 실로 황당무계(荒唐無稽)하기 짝이 없는 사탄적인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⑤ 이 교리는 마리아가 그리스도와 심지어는 하나님과 동등(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한 만왕의 왕이며 하늘(만물)의 여왕이 되었다는 말로서 쉽게 말하면 마리아가 천지(만물)의 여신이 되었다는 말과 같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 외아들 그리스도와 동등(동일)한 신이며 만왕의 왕이니 마리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똑같이 믿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드리고 복종하며 섬겨야 한다는 결론(교리)이 성립되는 것이다.

어떠한가? 이래도 마리아가 신이 아니며 하나님 같이 숭배받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맹종(盲從)해도 되겠는가? 천주교의 마리아 신격화와 숭배의 증거가 그들의 신앙의 교리로 분명하게 온 천하에 밝히 공개

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들이 무슨 그럴듯한 말로 변명해도 결코 속아서 안 될 것이다

### 여왕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8월 22일)

조만규 신부가 쓴 「마리아, 은총의 어머니」에는 다음과 같은 "여왕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대한 기록이 있다

1900년부터 마리아에게 왕권(王權)적 권위의 영예가 주어져야 한다는 요청이 로마에 쇄도하였다. 그리스도 왕 축일이 제정된(1925년) 다음, 이러한 요청은 더욱 증가하였다. 1933년 포르토 사이드(Porto Said)의 대성당이 세상의 여왕이신 마리아에게 봉헌되었다. 비오 12세는 회칙 "Ad coeli Reginam"(하늘의 여왕께)을 통하여 마리아께서 여왕이심을 선언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만큼 마리아는 어머니이시며 또한 여왕이시다.(8월 22일은 축일로 지내는 기념일이 되었다.)<sup>223)</sup>

여기에서도 보면 마리아는 분명히 하나님께 만물(하늘)의 여왕으로 추대 받았고 그러므로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이며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더욱 완전히 같이(동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글 교회헌장과 교리서에서는 천지의 모후(母后)라고 번역하여서 여왕의 이미지를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리고 저자는 여기에서 아들이 왕이시니 마리아는 어머니(모후)이시며 또한 여왕이시다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 그리고 8월 22일을 여왕이신 복되신 마리아 기념일로 삼았다. 또 「천주교 용어사전」에서 '마리아의 호칭에 대한 설명을 보자.

223) 조규만 지음, 『마리아 은총의 어머니』, (서울 : 가톨릭대학교출판부. 제1판제1쇄. 1998), pp. 422-423. 재인용.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인간 마리아를 취하심은, 마리아께서 우리의 ‘여왕’ 이심을 의미한다. 교황 비오 12세는 성모님은 영혼과 육신이 그대로 천국에 계시기에, 천국에서 여왕으로 불리심을 상기 시킨바있다.<sup>224)</sup>

여기서도 명확하게 여왕임을 밝히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직접 인간 마리아를 취하신 것이 마리아가 우리의 여왕이심을 의미한다는 초 비약적인 억지주장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하늘(만물)의 여왕으로 확고하게 가르치고 있으며 그것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만왕의 왕이며 죄와 사망의 승리자라고 까지 가르치고 있음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천주교가 마리아를 이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좌에까지 끝없이 끌어올리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진 것일까? 무슨 저의(底意)로 이와 같은 엄청난 반역적인 죄악을 자행(恣行)하고 있다는 말인가?

(7)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바오로 6세 선언. 교리서 963항)

사실 동정 마리아께서는 ‘구세주의 참 어머니로 인정받으시고 공경받으신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어머니이시다. …왜냐하면 저 머리의 지체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도록 사랑…으로 협력하셨기 때문이다 “마리아께서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시다.”<sup>225)</sup>

224) 최형락 엮음, 『천주교용어사전』, (서울 : 도서출판 작은예수. 2006. 2차 개정 초판1쇄), p. 137.

225) 최창무 발행, 『가톨릭교회교리서』,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1판3쇄), p. 397.

교회의 어머니는 실질적으로 성령이신데(행 20:28, 엡 1:3, 약 1:18, 요 3:5-6, 행 2:1-47, 뵤전 1:23 ) 인간 마리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어머니라니 말도 안 되는 억지이다. 이 교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끝까지 통과되지 않았는데 교황 바오로6세가 연설 중(제3회기 1964. 11. 21)에 독단적으로 선포하여 버린 교리이다 그러나 이는 공의회 교부들(주교들)이 이런 명칭부여를 피했는데도 교황이 단독 선포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sup>226)</sup>(교황단독 교리제정권이 있음) 그런데 이 교리는 실로 천주교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인간들을 위한 교회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생각된다. 마리아가 그리스도지체들의 어머니라거나 교회의 어머니라는 성경말씀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 (8) 공동 구속자(The Co-Redeemer) 마리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 56조. 교리서 494, 964-970, 973항)

이렇게 아담의 딸이신 마리아께서는 하느님 말씀에 동의하시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고, 온전한 마음으로 아무런 죄의 거리낌도 없이 하느님의 구원의지를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당신 아드님의 인격과 활동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시어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드님 밑에서 아드님과 함께 구원의 신비에 봉사하셨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부들이 마리아께서 순전히 피동적으로 하느님께 이용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신앙과 순종으로 인류 구원에 협력하신다고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레네오 성인이 말한 대로, 그분께서는 ‘순종하시어 자신과 온 인류에게 구원의 원인이 되셨다.’…하와를 통하여 죽음이 왔고, 마리아를 통하여 생명이 왔다.(교회헌장 56조)227)

226) 레오 엘더스 외, 『공의회 문헌해설 2』, 현석호 옮김, (서울 : 성바오로출판사), 1991), pp. 499-500.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당신 아드님과 함께 수난하시고 순종과 믿음과 바람과 불타는 사랑으로 영혼들의 초자연적 생명을 회복시키시고자 온전히 독특한 방법으로 구세주의 활동에 협력하셨다.(교회헌장 61조)228)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인류의 공동구속자(The Co-Redeemer)로 가르치고 있다(교회헌장 56, 61조, 교리서 494, 963-973항). 마리아가 그리스도 잉태의 통보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십자가의 고통 등에 동참하므로 그리스도의 인류구속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에 봉사했으며, 인류구원에 협력하였고, 자신과 온 인류에게 구원의 원인이 되셨고, 인류가 생명을 얻게 하였으며, 구세주의 활동에 협력하셨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교리는 유일한 구속주인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반 성경적이며 모독적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위대한 희생과 사랑의 구속을 인간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성취했다는 것이다 즉 마리아와 협력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혼자 힘으로 못하고 마리아의 힘을 빌려서 했다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무효화 시키며 말살하는 사탄적인 발상(發想)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저들은 태연하게 저런 끔직한 죄악을 거룩한 구주에게 자행(恣行)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실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만행(蠻行)을 그리스도에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바른 정신을 가졌다면 이러한 무서운 적그리스도적인 폭언

227) 최창무, 『제2차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04, 제2판 2쇄), p. 161.

228) 같은 책, p. 165.

을 어떻게 감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천주교의 무엄(無嚴)하고 무도(無道)한 행위가 마리아라는 한 여자를 그리스도보다 높은 반성경적인 여신(여왕)으로 만들어서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간계(奸計)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저들은 마리아가 “그리스도와 공동 구속자”라는 교리 자체는 공식적으로 제정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개신교와 오해들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공동 구속자라는 칭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공식적인 선언에 의한 교리는 제정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상과 같은 그들의 최고 공의회 문헌과 실제적인 교리서에서 명확하게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여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교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 <마리아가 공동구속자라는 칭호를 보류한 이유>

「에큐메니칼 프로젝트」에서 떼페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교황 비오 12세 이전에는 마리아가 그리스도와 공동구속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그 후로는 개신교와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그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천주교는 당연히 구원이 마리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며 마리아는 인류를 구원할 뿐더러 그 구원을 성취하게 한다는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그들은 표현만 직접적으로 <공동구속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 내용은 마리아가 고통으로 구원하셨다는 등 비슷한 말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개신교의 반발을 사지 않고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우선 잠정적으로 그 명칭사용만을 보류하고 있

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실도 천주교의 기만성과 간교성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의 기만에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엄청난 반 그리스도적인 천주교에 일치나 그 어떠한 미명에라도 어리석게 끌려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공동구속자라는 칭호를 피우스 12세(1939-1958)이래 교회는 개신교와 오해들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당연히 교회는 그 길이 예수께로 인도하지만 바로 마리아를 거쳐간다는 것을 파악한다... 마리아는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을 가능하게 한다.<sup>229)</sup>

#### 4. 마리아에 대한 문제점들

천주교에 있어서 마리아는 최대의 암적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정직한 신앙인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 마리아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간단히 지적하여 보려고 한다.

##### (1) 천주교의 마리아는 성경에 없는 다른 마리아이다.

##### (인조(위조) 마리아)

위의 마리아 교리들(8가지)을 보면 하나도 성경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과연 이러한 마리아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아

229) Brüning · Deppe · Gassmann, 『Projekt Einheit』, (Oerlinghausen : Betanien Verlag e. K, 2004), p. 52. 재인용.

무리 성경의 권위를 짓밟고 자신들과 인간의 권위를 앞세운다고 해도, 어떻게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부인하고 비(非)성경적이고 반(反)성경적인 교리들을 양심적으로 창작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이런 행위는 심히 비양심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진리와 담을 쌓고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위조교리들을 양산(量産)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천주교의 이런 기발(奇拔)한 마리아 교리들을 볼 때에 비록 그것들이 상식이나 양식을 벗어난 것이지만 그들의 집요(執拗)한 집착(執着)에 대하여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들도 입버릇처럼 항상 앞세우는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다면 이러한 무엄(無嚴)하고 과렴치(破廉恥)한 행위들을 끝내 모른 채하실까?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이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불신하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성경에도 없고 성경과 전혀 다른 마리아들을 거짓으로 지어낸 사람들은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계 22:15)

(2) 천주교는 그리스도보다 마리아를 더욱 숭배하고 있다.

천주교는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만 숭배한다고 말하면서 마리아는 하나님과 다른 차원에서 공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

로 보면 그 말은 온전히 거짓말인 것을 알 수 있다.

### 1) 마리아상 숭배

마리아상 앞에다 촛불들을 켜놓고 기도를 하며, 그 앞을 지나가면서는 꾸벅꾸벅 절을 한다. 성당마다 앞마당에 마리아 상을 세워두고 있다, 거의 모든 성당안의 제일 앞 제단 뒤나 옆에는 예수상과 마리아상이 좌우에 세워져 있다 심지어 어느 성당 안 앞면 좌우에는 예수상보다 마리아상이 더 높게 세워져 있기도 하다. 마치 관문점 회의실 안 탁상위에 인공기를 태극기 보다 좀 높이 세운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서울의 모 성당의 제단 뒤에는 제일 앞 중앙에 조그마한 십자가 서 있고 그 뒤에 아기예수를 안고 서있는 마리아상이 더 높고 크고 두드러지게 세워져 있다 그 밑 좌우에 14명의 화상이 붙어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 성당 안 제단 뒤의 광경은 마리아의 위치가 가장 높고 크게 돋보이고 있으며 사실 그리스도는 잘 보이지도 않는 십자가와 마리아의 왼쪽 가슴에 앉긴 갓난 애기로 축소되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천주교의 대표이자 최고 권위자인 교황들이 발현처의 마리아상 등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진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사실들은 마리아 숭배가 아니고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인가?

① 성당 안팎과 가정 등에서 드리는 마리아상에 대한 촛불 기도와 배례

이러한 광경은 흔히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② 마리아 발현처 등에서 마리아 상 앞에 엎드려 드리는

### 열렬한 기도

이러한 대표적인 예는 교황이 파티마나 루르드 등의 성지 앞에서 마리아 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광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③ 산이나 기타 성지들에 세운 마리아상 에게 숭배와 기도를 바치는 일

사진이나 화면을 통하여서 직접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어쩌다 그들의 성지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 이러한 현상들을 목도할 수 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으나 어느 군중교구 주임신부(주교)가 신문에 올린 글을 보았다

#### 감악산 정상에 계신 성모님

우연한 기회에 주일날 오후 감악산 등산을 하게 되었는데 정상부근에 북쪽 개성방향을 향하여 서계신 성모님을 만났다...사단 군중참모로 군 사목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낮은 곳에서 성모님을 만난 기쁨에 성모님께 잠시 전구를 했다

"성모님 이 곳 감악산 자락에는 수많은 부대들이 있는 것 아시죠, 성모님께서서 그들을 잘 돌봐 주세요!"(가톨릭 신문. 2009. 9. 4. 11면)

이러한 일들이 천주교 사제들과 평신도들 사이에서는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이와 같이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는 결코 비밀도 아니고 백주에 온 세상에서 자행(恣行)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가 부인하겠는가?

### ④ 천주교인 묘지들 앞에 세워진 마리아 상들

필자는 서울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천주교인 묘원 한 곳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많은

무덤 앞마다 크고 작은 마리아상 들이 하나이상씩 세워져 있는데 반해 그리스도상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도 절대적 신앙 대상이 마리아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 2) 마리아를 향한 찬미들

승배(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찬미들을 보면 유명한 ‘성모 마리아’를 비롯하여 마리아를 찬미하는 많은 찬미나 노래가 있다. 그 중에도 천주교의 미사전례(공식예배)에서 부르는 찬미가(가톨릭성가: 수정판)를 보면 총 528곡 중에 성모에 대한 것이 52곡이나 된다. (참고: 특별 지정 없이 연중에 부르는 곡이 169곡, 미사곡 93, 성체에 대한곡 60곡, 성탄곡 22곡, 부활 14곡, 성령 12곡 등등) 이렇게 마리아에 대한 찬미가 <가톨릭 성가>의 10%나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말 이런 것이 마리아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해야 좋겠는가?

## 3) 어깨에 멘 마리아 상을 향한 열렬한 환호와 박수갈채

필자는 2013년 11월 9일에 서울 모 고등학교 강당의 마리아 사제운동 주최로 모인 한 모임(다락방 기도 전국 대 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목격했다. 수많은 꽃으로 장식한 가마위에 세운 마리아 상을 네 사람이 메고 입장 할 때에 수천명의 신도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 마리아 상을 향하여 절을 하면서 열렬히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호하는 것을 보았다 마리아 상을 메고 의자 통로를 세 번 오가며 입장하는데 계속해서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며 "어머니!"를 외치기도 하고 눈물들을 흘리기도 하는 광경을 목도하였다 이런 것은 마리아 승배가 아

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 4) 마리아에게 바치는 무수한 기도들(특히 묵주기도)

또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기도를 보면 거의 마리아가 들어 있다. 특히 천주교에서 제일 많이 바치게 하는 로자리오(묵주기도)는 매일 하나의 신비 (그 안에 5단씩의 묵상 제목이 있음)를 묵상하면서 한번에 60개의 묵주 알을 하나씩 굴린다. 매 단마다 10개의 염주알을 하나씩 굴리면서 전체적으로 사도신경 1번, 주기도 6번, 영광송 6번, 구원을 비는 기도 6번, 성모송 53번씩을 드리고 있다. 한 바퀴도는 데에 19개의 기도와 영광송들과 성모송53개 등을 바치는 셈이다.

한 번의 묵주기도에 53번이나 반복하는 가장 많은 기도 횟수를 자랑하는 성모송은 다음과 같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실로 천주교인들이 매일 자주 드리는 이 가장 중요한 묵주기도는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를 주기도나 다른 두 기도보다 10배 정도나 더 드리는 핵심 기도인 것이다. 즉 묵주기도 한 번에 주기도를 6번 하는데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는 53번을 한다는 것이다.<sup>230)</sup> 그래서 묵

230) 정진석추기경 지음, 『장미꽃다발』, (서울 : 가톨릭출판사. 2009. 개정3

주기도를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님에게 보다 마리아에게 거의 9배씩이나 더 많이 기도를 하면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공경만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새빨간 거짓말 아닌가?

### 5) 마리아 축제와 축일들

축일은 축제를 거행하는 날이다. 그리고 축일은 구세사나 거룩한 신비, 특히 하느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천사들, 성인들과 관련되어 전례(공식예배)적으로 특별히 기념하거나 공경하기 위해 정한 날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안식일, 유월절이나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등을 말하며 교회에서는 주일,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등등을 말한다. 더 나아가서 순교성인들이나 일반 성인들의 축일들도 많이 추가하여 지키고 있다.<sup>231)</sup>

천주교는 구약의 절기나 이방종교의 축제와 같은 축일을 매 년 중 계속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일년 동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축일은 성탄절, 부활 대축일, 주님공현축일, 주님세례축일, 재의 수요일, 예수승천, 성체와 성혈, 예수성심, 그리스도 왕 대축일등 년중 9회이다.

그런데 마리아에 대한 축일은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주님 탄생예고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방문축일, 성모 일곱가지 기쁨 축일, 성모승천 대 축일, 복된 동정녀 마리아 탄생축일, 성모마리아 성명(聖名)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대축일등 8일이 나 된다. 거기에다 기념일로는 루르드의 복되신 마리아 기념일, 파티마의 복되신 마리아 기념일,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 기념일, 가르멜산의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 기념일, 성모 대성전 봉헌 기념일, 여왕

판2쇄), pp. 20-27.

231) 염수정 발행, 『한국 가톨릭 대사전 제11권』, (한국교회사연구소. 서울 : 분도출판사. 2005) pp. 8275.

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통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목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등 축일에 준하는 기념일이 9일이나 된다<sup>232)</sup>

그리고 1년 365일 내내 월별로 매일 세계도처에서 그들 나름대로 지내는 고유한 신심으로 <성모 마리아축일표(365일)>가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스텐리 마투 체위스키 신부가 만든 것으로 1년 12개월 마다 한 달씩 달력의 매일에 축일의 이름을 기록하고 주로 해당되는 지역에서 그 지역을 위한 마리아를 기념하여 축일로 지킨다고 한다<sup>233)</sup>

명절이나 절기와 같이 기념하며 축하하고 미사드리며 찬미하는 이러한 마리아 축일들이 그리스도 축일보다 배나 더 많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혹은 지역별이라고 할지라도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성모 마리아 축일표를 따라서 마리아 축일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마리아 숭배가 얼마나 지극한가를 알 수 있게 하고도 남는다. 이러한 마리아 축일 이 한 가지 사실만 논한다 하더라도 천주교는 무엇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는가? 이렇고도 천주교는 마리아를 공경만 하고 숭배하지는 않는다고 발뺌할 수 있겠는가?

## 6) 마리아 성월(聖月)

그 위에 어느 달을 특별히 정하여 연중 그리스도, 마리아, 성인께 봉헌하여 특별한 은혜와 전구를 청하고 그 모범을 따르도록 교회가 지정한 성월(聖月)이 있다 한국 천주교에서 일반적으로 지내는 성월은 성 요셉 성월(3월), 성모 성월(5월), 예수 성심 성월(6월), 순교자 성

232) 페터 제발트 지음, 『가톨릭에 관한 상식사전』, 이기숙 옮김, (서울 : 보누스. 2008), pp. 220-221.

233) 최정오 역편, 『마리아 사전』, (서울: 도서출판 작은예수, 1999, 5판), pp. 418-429.

월(9월), 목주기도 성월(10월), 위령 성월(11월)등이 있다<sup>234)</sup>

이 성월을 보면 마리아와 마리아의 목주기도 성월이 연중 두 번으로 예수님에 대한 성월 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천주교가 마리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이 숭배하거나 그 이상으로 숭배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실은 핑계할 수 없는 명백한 마리아 숭배이다.

### 7) 마리아에게 바친 기념 성당들

전 유럽과 미국과 기타 세계적으로 마리아에게 바친 성당들은 수를 셀 수 없이 많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당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 어찌하여 인간 마리아에게 봉헌한다는 말인가?

### 8) 레지오 마리아(Regio Mariae : 마리아 군단)의 조직과 활동

성모님을 따르면 길 잃지 않고.

성모님을 부르면 실망치 않네

성모님을 생각하니 해매지 않고.

성모님이 붙드시니 떨어질 리 없네

성모님이 감싸면 두렵지 않고

성모님이 이끄시니 지치지 않아.

성모님의 도움으로 목표에 이르나니

(성 베르나르도) 235)

234) 최형락 엮음, 『천주교 용어사전』, (서울: 도서출판 작은예수. 2006. 2차 개정 초판1쇄) p. 255.

235) 끈칠리움 레지오니스, 『레지오 마리아 공인 교본』, 대한민국 세나투스 옮김, (서울 : 가톨릭출판사 1986), p. 469.

천주교에 마리아 단체들이 많다고 한다. '마리아 사제단도 있고, 그 중에 청색군(Blue Ammy)은 2천만 이상의 회원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성당 등에 까지 조직을 가진 최대단체인 「레지오 마리아에」(LEGIO OF MARIAE 마리아의 군단)는 전세계의 거의 모든 천주교인들을 하나의 군대조직과 같이 엮은 것으로 보인다.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 ① 시작

1921년 9월 7일에 아일랜드 더블린 시에서 시작 되었다.

레지오 마리아에 단원들의 첫 번째 입단 회합은 1921년9월 7일 저녁 8시 곧 성모성탄 축일 전야에, 아일랜드 더블린 시 프란시스 거리, 마이러 하우스(Myra House, Francis Street, Dublin, Ireland)에서 열렸다.<sup>236)</sup>

### ② 명칭

레지오 마리아에는 교회가 공인한 신자 단체로서,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강력한 지휘 아래, 세속과 그 악의 세력에 끊임없이 대적하는 교회의 싸움에 복무하기 위하여 형성된 군단이다 레지오의 사령관인 마리아는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사탄과 그 무리들에게는-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분이시다<sup>237)</sup>

### ③ 목적 (내부적 목적)

레지오 마리아에의 목적은 단원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있다. 이는 교회의 지도 밑에 마리아와 교회의 사업에 기도

---

236) 같은 책, 3.

237) 같은 책, p. 1.

와 적극적인 협력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기 마리아와 교회의 사업이란 뱀의 머리를 바수고 그리스도 왕국을 발전시키는 일이다.<sup>238)</sup>

레지오 마리아의 명칭은 "마리아의 강력한 지휘아래에서 세속과 그 악의 세력에 끊임없이 대적하는 천주교의 싸움에 복무하기 위하여 형성된 군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군단의 목적은 천주교의 지도아래 마리아와 교회의 사업(사탄의 세력을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에 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함으로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있다고 한다. 이는 마리아 군단의 내부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레지오 군대의 외부적 목표

위에서 마리아 군단의 일반적이며 내부적인 목적을 말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 군단이 외부적으로 수행할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이들 내용을 다 소개하지 않고 그 제목들만 참고로 기록하려고 한다.

1. 당면한 실제 활동
2. 멀고 큰 목표 - 사회속의 누룩
3. 모든 사람을 함께 어울리게 하는 일
4. 하느님을 위한 고귀한 사업

(전투적 무신유물론과 유물독재주의 체제(공산주의 세력)와의 대결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것<sup>239)</sup>)

이 마리아 군단의 외부적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제시한 <하느님을 위한 고귀한 사업>인 것 같다. 그 최소의 요지는 천주교의 사랑의 진영과 무신앙 제국(진영)의 대결에서 무력으로가 아니

238) 같은 책, p. 5.

239) 같은 책, pp. 55-63.

고 영적 신앙적 힘으로 그들의 잔악한 행위를 끝까지 견디어 내며 자유와 신앙의 불꽃을 살려냄으로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기필코 거둔다고 하고 있다. 즉 마리아 군단은 금세기 최악의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 앞에서 그들의 신앙의 단합된 강력한 힘을 통하여 공산주의 세력을 물리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마리아 사제단>은 공산주의가 와해된 상황에서 공산주의 보다 더욱 잔악하고 무서우며 새롭게 대두된 프리메이슨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조직임을 알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자 공산주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마리아 군단의 노력은 과연 성공하였는가? 결코 아니다. 공산세력의 와해는 다른 세력의 막후 활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안다.

## ⑤ 레지오 마리에 공인 교본에 나오는 몇 가지 마리아 사상

레지오 마리에 공인 교본에 눈에 띄는 특별한 사상 몇 가지가 나오고 있다. 그 중에 네 가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 1) 연옥의 모후(여왕) 마리아

이 교본에서 마리아는 연옥의 여왕이라는 사상을 밝히고 있다. 빈센치오 페레리오성인과 몇 성인들은 마리아가 연옥의 모후이심을 명백히 선언했다고 한다. 그리고 몽포르의 성 루도비꼬·마리아는 이 믿음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촉구하며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와 보속(죄 값을 치르는 것 : 현금, 기부, 미사제사 봉헌 등등)을 마리아의 손에 바치기를 당부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존재하지도 않는 연옥에까지 마리아의 왕국을 확대하고 마

리아를 그 연옥의 여왕(신)으로 모시고 그 마리아에게 연옥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보속을 바치라는 성인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레지오 마리아 운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연옥은 마리아 왕국의 일부를 이룬다. 거기에도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 그들은 이속고 사라질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마리아가 연옥의 모후이심을 명백히 선언한다. ...그는 우리의 기도와 보속을 마리아의 손에 맡기기를 당부한다<sup>240)</sup>

## 2) 천상군단 (모든 천사들)의 총사령관 마리아

다음에 이 교본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한 교황 요한 23세의 감탄문을 볼 수 있다. 그는 천사들의 여왕이여! 라고 외치며 마리아가 하늘의 천사군단에 둘러 쌓여 항상 호위 받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황홀하며 기쁨 가득한 하늘의 광경이라고 감탄하고 있다. 마리아가 천군천사군단의 총사령관(여왕)이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성사시킨 유명한 교황의 환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레지나 안젤로룸(Regina Angelorum)! 곧 천사들의 모후여! 우리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천사들의 군단에 둘러싸여 늘 호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황홀한 일이며 얼마나 기쁨에 찬 하늘나라의 광경인가! - (요한 23세)

마리아는 하느님 군단의 총사령관이시다. 천사들은 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마리아의 지극히 영광스러운 부대를 이루고 있다.-(부돈/Boudon : 천사들)<sup>241)</sup>

240) 같은 책, p. 169.

241) 같은 책, p. 81.

이는 실질적으로 하늘 천사들의 총지휘자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한을 박탈한 월권행위이며 도저히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거짓주장에 동조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교황의 감격적인 주장에 따르면 모든 천사들의 총사령관이 마리아라면 교황이나 마리아를 그렇게 믿고 숭배하며 그녀에게 온갖 기도를 다 바치고 있는 천주교는 세상에 아무것도 걱정 할 것이 없을 것이다. 교황과 레지오 마리아 군단과 천주교의 이러한 주장은 절대 불가능한 한 토막의 상상영화에 불과하게 보이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 3) 성부는 구원 사업이 마리아에게 매이도록 하셨다.(공동 구속자로)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511, 969항)<sup>242</sup> 마리아가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구속사업을 이루었다고 밝힌 것과 같이 이 마리아 군단의 공동 교본도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내게 말씀하신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고 승낙한 말에 구세주의 탄생과 구속사업이 매어 달리게 되었다고 놀라운 감격을 발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잉태부터 십자가상의 운명까지도 마리아가 함께하며 협력했기 때문에 성취 가능한 것이었으니 마리아는 그리스도와 공동 구속자라는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성부께서는 구원 사업이 마리아에게 매이도록 하셨다... "하느님께서 저 나자렛의 여종이 '내게 이루어지소서' 라고 한 말씀에 구세주의 등장이 매이도록 만드셨다고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sup>243</sup>)

242) 주교회의의 교리교육위원회, 『가톨릭교회교리서』,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제1판 3쇄), pp. 220, 399.

더욱이 여기에서 교황 베네딕 15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성모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자께 대한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진정으로 포기하셨다. 그리하여 당신의 힘이 미치는 한, 하느님의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당신 성자를 제물로 바치셨다. 그러므로 성모님은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다."<sup>244)</sup>

즉 마리아가 자신의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성자를 인류구원의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성모는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인류를 구원한 공동구속자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 말은 결국 마리아의 협력(바침)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인류구속의 대업이 성취되지 못 하였을 것이니 사실 마리아는 그리스도보다 실질적으로 인류구원에 더 큰 공로자가 된다는 결론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이러한 저들의 주장은 유일무이한 인류의 구속자 그리스도에 대한 최대의 모독이 되는 사탄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마리아 없이는 참 그리스도교도 없다. 하나님의 계획도 이뤄질 수 없다.

이 공인교본은 마리아가 없다면 참 그리스도교도 없고 구원사업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다고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이 무한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로부터 이 동정녀를 복되다 일컬어야 한다. 이 땅 위에 그리스도교를 가져오게 하신 마리아는 그리스도 신자의 공경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sup>245)</sup>

---

243) 폰질리움 레지오니스, 『레지오 마리아에 공인 교본』, 대한민국 세나투스  
출판, (서울 : 가톨릭출판사 1986), p. 417.

244) 같은 책, p. 420.

245) 같은 책, p. 418.

둘째, 구원 사업은 성부와 마리아가 공동으로 마련해 주신 은혜이다. 그러므로 성부께 드리는 감사의 말씀과 함께 마리아께 대한 감사의 말씀이 나와야 한다.<sup>246)</sup>

셋째, 성령께서는 항상 성모님과 함께 일하신다. 성모님은 "공현"때에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신 강림 때도 필요하다. 그리하여 성모님은 모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끝까지 필요하시다. 성모님이 빠지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성모님이 안 계시면 은총이 베풀어지지 않는다. 이는 우리를 압도하는 엄청난 사상이다.<sup>247)</sup>

「레지오 마리아에 공인교본」에서 주장하는 이 내용은 실로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며 마리아 숭배를 합리화하고 있다.

① 이 땅에 그리스도교를 가져오게 하신 것이 마리아이니 마리아는 천주교 신자의 공경대상이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 때문에 이 세상에 천주교가 존재하게 되었으니 신자들이 그를 공경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② 더 놀라운 이야기는 인류구원의 대 사업이 성부와 마리아가 공동으로 마련해주신 은혜라는 말이다. 그러니 성부에게 감사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마리아에게도 감사를 드려야 합당하다는 기세 대단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인류구속의 대사를 마리아가 협력하므로 그리스도가 성취 할 수 있었다는 저들이 이제는 인류구원의 대업도 성부와 마리아가 공동으로 이루어 준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덧붙이면서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고 있다.

---

246) 같은 책, pp. 418-419.

247) 같은 책, p. 421.

③ 마지막으로는 더 기절(氣絶)할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항상 마리아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 없이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다는 주장이 아닌가? 그리고 성모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절대필수적인 존재라는 파격(破格)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때에도 성령이 함께함 같이 성모가 필요했고, 오순절 성령강림 때도 성모가 꼭 필요했고, 성모님은 모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끝까지 필요하다. 심지어 성모님이 빠지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까지 한다. 더욱이 성모님이 안계시면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지 않는다고 까지 큰소리를 하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마리아가 주재자이고 하나님은 그 밑에 속한 일종의 협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무지하고 무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두려움을 모르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상으로 마리아 군단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그중에도 특이한 것은 이 군단에서 주장하는 마리아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들이다. 마리아를 연옥의 여왕, 천사군단의 총사령관, 성부께서 구원사업을 마리아 없이는 안 되게 하셨고, 마리아를 통하여서만 교회가 세워지게 되며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심지어는 성모가 하나님의 모든 일에 끝까지 필요하고 성모가 빠지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성모가 안계시면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마리아를 성부나 성자나 성령보다 더 높이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래도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존경의 대상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 (3) 헨리 나우웬 신부가 천국에서 만난 마리아

헨리 나우웬은 그가 지은 책들을 통하여 한국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천주교 신부로서 명문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인기있는 교수였으나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 지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여생을 봉사한 일로 성자와 같이 추앙받는 인물이다. 또 영성운동가로 50여권의 책을 써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정통적 천주교 신부인 그는 그의 영성운동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하여 기독교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동성애자라는 비난도 피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나우웬이 어느날 갑자기 자폭용 폭탄 같은 책을 출판했다. 제목은 「거울 너머의 세계」이다. 그는 그 책 표지 상단에 “이 작은 책은 내가 당했던 한 교통사고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이다. 이 책을 쓰는 이유는 간단하다.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며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다. 만일 이것을 글로 쓰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해야 하는 나의 소명에 충실하지 못한 셈이 될 것이다.”<sup>248)</sup> 사실 그는 천주교 신부로서 발표하기 어려운 간증을 여기에 발표했다. 그가 살 가망이 없는 위기의 수술대 위에서 겪은 체험은 사실 천주교 신부답지 않았고 성경적인 기독교인들의 경험과 비슷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마 그는 글로 발표하기를 매우 꺼려했고 큰 용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책을 출판한 것 같다

248) 헨리 나우웬, 『거울 너머의 세계』, 윤종석 옮김, (서울 : 두란노서원, 2013, 46쇄 발행), p. 9.

실감나는 앞 뒤 이야기는 다 잘라내고 마리아 접견기록만을 옮기려고 한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고통이 끝난 문턱 저편에 서서 나를 ‘저편의 나라’로 부르고 계셨던 것이다,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도 거기에 서 계셨으나 존재는 가까운 느낌이 훨씬 덜했다. 뒤쪽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 처음에 나는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느껴져서 마리아는 거의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았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마리아는 거기에 있었고 내 마음과 당신 아들의 마음의 만남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된다. 얼마나 자주 기도했던가 “성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우리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 주소서.” 나는 ‘지금’과 ‘내가 죽는 그 시간’이 하나로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는 그녀에게 집중하지 못했으나 그 곳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sup>249)</sup>

나우웬의 이 천국 체험담은 간단하지만 실로 많은 교훈을 들려주고 있다.

1) 마리아는 천국에서 한 평범한 시민일 뿐이다(마리아 교리는 다 거짓이다).

나우웬은 여기에서 평생 입으로 시인하여온 <성모>라는 존칭을 쓰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불렀다. 그 존재는 가까운 느낌이 전혀 없었으며 뒤쪽에 멀리 남아서 거의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았고 조용히 두 사람의 극적인 만남을 지켜보기만 하면서 단순히 그곳에 계시기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

249) 같은 책, pp. 47-48.

마리아는 천주교에 있어서 실로 엄청난 우주적 존재이다 그런데 나우웬이 천국에서 만나본 마리아는 너무 평범했고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하나의 평신자에 불과했던 것이다. 마리아는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 주지도 않았고 천군천사들을 동원하여 자신을 기쁘게 맞이하여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중재자도 아니었던 것이다.

하늘의 왕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여왕도 아니었고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인류를 구원한 공동 구속자도 결코 아니었다. 더욱이 신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는 중보기도자도 아니었다. 단지 그녀는 모든 신자들과 같이 천국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여 사는 은총을 입은 한 인간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나우웬은 평생 자신이 믿고 가르쳤던 바와는 거리가 먼 마리아 때문에 크게 실망하였겠으나 그 사실을 표현하지는 못하였고 어떻게든 마리아를 부각시켜 보고 싶었으나 양심적으로 그저 거기에 계셨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나우웬은 여기에서 천국에서 만난 마리아가 천주교에서 천수백 년 동안 믿고 가르쳐온 마리아가 결코 아님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 2) 묵주기도와 성모송은 무가치한 것이다.

묵주기도와 그 안의 성모송은 천주교 최고의 기도이다. 일평생 손에 들고 다니면서 암송하며 밤낮으로 외운 기도의 주인공은 바로 마리아였던 것이다 그런데 나우웬의 죽음의 문턱 마지막 고비에서는 그 묵주기도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과 ‘내가 죽는 그 시간’ 그 순간까지 기도해 달라고 평생 기도했는데 마리아는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는 그들의 마리아 신앙과 마리아에게 한 기도가 전혀 허사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뿐이시다**(부처나 모하멧이나 그 어떤 신도 아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르친 것들, 그리고 관상기도의 경험 등에서 시도되었던 가르침의 견지에서 보면 천국의 주인은 부처도 될 수 있고 마호멧이나 다른 신들도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막상 천국에 가서 보니 천국의 주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분뿐이셨던 것이다. 이 사실은 이 체험 간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① 예수님은 저편에 서서 나를 저편의 나라로 부르고 계셨던 것이다.

나우웬이 천국 문턱에서 자신을 그 나라로 부르시는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하였다. 부처나 마호멧이나 그 어떤 신도 없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곳에 서서 자신을 이 나라로 들어오라고 환영하며 부르고 계셨던 것이다! 그렇다.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나라의 왕이시며 구주이신 것이다.

② 예수님의 임재하심은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명확하게) 느껴졌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임재하심의 의식이 손으로 잡듯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정말 산 사람을 만난 것과 같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많이 믿고 의지하던 마리아는 뒤쪽 멀찍이에서 나우웬과 예수님의 만남을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한다. 이는 천국의 주인공은 석가나 알라나 그 어떤 다른 신도 아니고 더욱이 마리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

임을 알 수 있다.

나우웬의 이 짧은 체험담은 그가 소중히 여기고 용기를 내어서 전 세계에 간증할 정도로 강렬하고 확실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그가 평소에 세상에서 알고 믿던 것과는 아주 다른 경험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경험담을 세계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록하여 출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천국문안에서 경험한 이 짧은 나 극적인 사실은 천주교인들은 물론이지만 다른 기독교인들과 모든 사람들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4) 하나님께서 나우웬에게 특별한 은혜로 귀한 체험을 하게하신 이유

이상으로 죽음의 고비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헨리 나우웬의 핵심간증을 읽어보고 간략하게 평하여 보았다. 필자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추가하여 기술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나우웬을 통하여서 천주교인들을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러한 체험을 하게하신 것으로 보인다. 나우웬은 자신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간증하며 살아야하는 사명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가?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이 책 한권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주신 뜻이 “이제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필자 주 : 그 동안의 잘못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은 것”<sup>250)</sup>이라고 고백한 대로 진실로 성경대로의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길을 바르게 전파했는지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재생후의 그의 변화된 행적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

---

250) 같은 책, pp. 58-59.

다. 후에라도 그의 변화된 후의 좋은 생활담(간증거리)이 발견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는 심장마비로 64세의 젊은 나이에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 때문에 더 이상 유일한 생명의 복음을 더 잘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안타까우며 아쉽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간증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우웬의 잘못된 종교다원사상이나 그릇된 신학사상은 다 씻어내 주시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5) 나우웬에 대한 필자의 아쉬운 소견

필자가 이 책을 읽고 느끼는 소견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보았다.

① 나우웬은 이 귀한 생명의 체험을 한 뒤에 지금까지 천주교에서의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자백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②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구속주 이심을 고백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③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간증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성체가 아니고 직접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야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④ 마리아는 중보자도 공동구속자도 아니고 하늘여왕도 아니니 그에게 기도와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⑤ 종교다원주의를 확실하게 회개하고 청산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⑥ 정직하게 이상과 같이 고백하고 성경적 복음신앙을 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면 기독교로 개종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 5. 천주교의 실질적인 최고신은 마리아가 아닌가?

이상과 같이 마리아에 대한 천주교의 교리들과 실제 숭배사실들을 살펴보면 마리아가 천주교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리아에 대한 천주교의 교리들은 처음부터 무언가 수상한 낱새가 보였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부터 황당(荒唐)한 것이었다. 그 이후에 그러한 황당무계(荒唐無稽)한 교리들이 꼬리를 물고 창작되어 왔다. 이제는 거의 종착에 도달한 것 같이 보인다. 그들의 인위적인 마리아 교리들의 면면을 보아서도 천주교의 실질적인 최고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주장의 극소 부분만 들어보아도 그 실체는 뚜렷이 드러나 보인다.

다음에는 천주교의 이러한 마리아의 실제 위치에 대한 그 소수의 의견 몇 가지만 들어보겠다.

“2천 년 전 신약성서의 모든 문헌에서 외면당한 여인이 오늘 메시아의 권좌에 앉아 있다.”<sup>251)</sup>

“여기서 한 가지 모순이 발견된다. 동 시대의 저자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여인은 그로부터 3세기 뒤에 신의 어머니, 그리고 교회의 여왕 또는 어머니로 선포된다. 그리고 수많은 작품들 속에서 마리아는 머리에 왕관을 쓴 모습으로 등장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sup>252)</sup>

251) 자크 뒤켄 지음, 『마리아』, 고선일 옮김. (서울 : 빛살무늬. 2005), p. 4.

252) 같은 책. p. 7.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카를 융은 가톨릭 교회가 성모승천 교리를 선포함 (저자 주: 1950년 11월 1일)으로써 고대 이교적 여신숭배로 돌아가기 위한 ‘결정적인 일보를 내딛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1951년에는 그것이 ‘최근 400년 이래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사건 이었다’라고 쓴다.” 253)

"제네바 대학 종교사 교수인 필립 보르조는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로마 문화권에서 환관 사제들이 섬겼던 대 여신이자 신들의 어머니인 시벨레 신화를 오랫동안 연구했다. 연구 결과, 그는 수세기 동안에 걸친 대결 끝에 ‘마침내 승리한 그리스도교는 신들의 어머니인 시벨레 여신이 앉았던 것과 놀랍도록 흡사한 왕좌에 마리아를 앉혀 놓고야 말았다’라고 지적했다.”<sup>254)</sup>

“마리아 숭배사상은 로마교회의 마리아론보다 먼저 생겨났다. 마리아에 관한 교리나 마리아와 그리스도, 마리아와 신자들의 관계에 관한 교리는 동정녀에 대한 존경 (hyperdulia)이 과도하게 높아져 가면서, 그리고 마리아의 생애 중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는 축제일을 가지면서 점차적으로 생겨났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이미 있던 것에 대한 정당화 내지 해설에 불과했다

로마교회의 마리아론은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성(童貞性), 가범죄(可犯罪)로부터의 해방, 유전적인 죄로부터의 해방이란 세 단계로 이어진다

이러한 마리아 숭배사상의 발전은 기독교 미술사에 잘 나타나 있다. ‘초대 교회 시대의 초기 그림들은 마리아를 단순히 한 여인으로 표현했다 그 다음에는 어머니와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온다. 그후에는 보좌에 앉은 성자와 관을 쓴 어머니가 나왔다. 그러나 어머니는 성자보다 낮은 곳에 앉아 있다 그후에는 관을 쓴 어머니가 성자와 같은 위치에 앉아 있다. 그 다음에는 성모가 성자보다 더 높은 보좌에 앉아 있다.’

끝으로 로마교회의 그림에는 영원한 성자는 세상을 멸망하려는 진노의 모습으로,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성자의 보응으로부터 세상을 중재, 간구, 구속하

253) 같은 책. p. 202.

254) 같은 책. p. 209.

는 권한이 있는 의미를 담은 증보자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마리아 숭배 사상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는 성자 때문에 여인이 존경을 받다가 나중에는 성자보다 여인이 더 높은 존경과 경배를 받는다.” 255)

천주교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을 앞세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리아가 최고의 신인것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결의한 때로부터 출발된 것이고 그 후에 계속 추가된 마리아 교리들은 마리아를 최고의 신으로 추앙(推仰)하기위한 수순(隨順)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위의 주장들을 보면 천주교의 마리아교리들과 실질적인 마리아 숭배의 지향(指向)하는 목표가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 신기한 사실은 무려 1천 6백여 년 동안 제조된 마리아 교리들이 초지일관(初志一貫)하게 어느 한 사람의 작품처럼 통일성과 발전성이 보인다는 점이다. 즉 첫 스타트(start)가 잘되었고 (그 안에 다음 일곱 개의 마리아교리가 함유(含有)되어 있음) 그 뒤를 이어서 릴레이(relay) 경주와 같이 7개의 배턴(baton)을 멋지게 잘 넘겨왔다. 그럼 이제 골인(종착)지점에 도달하였는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어떤 경탄(驚歎)할 마리아 교리가 또 준비되고 있을까?

그들이 거룩한 구전(口傳)으로 전달되었고, 글로 전달된 성경보다 실질적으로 더 권위가 있다는 가장 탁월한 전통(傳統)의 창고에서 끄집어내어 창작했다는 그들의 반(反)성경적 교리들을 보자 엄밀하게 말하면 일부 교부들이나 학자들의 탈선된 주장이나, 무지하고 미신적이며 또한 우상 숭배적이며 이교적인 대중의 탈선된 습관을 그들이 말하는 소위 거룩한 교황들과 주교들(교도권)이 포용(包容)해서 제조한

255) 필립 샤프 저, 『신조학』, 박일민 편역. (서울 :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3. 4판발행), pp. 55-56.

것들이다. 그들이 절대 무류의 교리로 승화(昇華)시킨(?) 걸작품이라는 것들이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찬탈(篡奪)하고 그 위에 하나의 여인을 세워 숭배하자는 것이란 말인가? 아니면 그 여인은 하나의 임시 대리(代理)자로 세워놓고 실질적인 전권(專權)은 교황과 주교들이 지상에서 행사(行使)하려는 저의(底意)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도 아니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1600여년의 천주교 역사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어떤 영(靈)의 음모(陰謀)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일까?

2천 년 전 한 무명의 여인이었던 자가 신의 어머니, 하늘의 여왕, 교회의 어머니, 메시아의 권좌에 좌정하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등장하는 모습들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사건에 불과할까?

이 시대 최고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천주교가 성모승천 교리를 선포함으로써 고대적 이교의 여신숭배로 돌아가기 위한 결정적인 일보를 내딛었다”는 예리한 평가가 정곡(正鵠)을 찌른 것이 아닐까?

또한 필립 보르조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고대 이교의 여신이 앉았던 왕좌와 놀랍게도 흡사한 왕좌에 마리아를 앉혀놓은 의도는 무엇이란 말인가? 왜 미개한 시대에 섬기든 이방종교의 여신을 천주교에서 재생(再生)시키고 있다는 말인가? 혹시 그 여신을 이용하여 무지한 백성들을 통제하며 권력을 행사하며 세계를 지배하려는 흑심(黑心)에서 여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천주교는 자기들의 소원대로 교리들을 창작해 왔다 물론 마리아 교리들도 그렇게 제조해 왔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리아를 부활 승천시켜서 하늘의 여왕의 왕관을 씌워서 상지옥좌(上之玉座)에 좌정(坐定)시키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만왕의 왕(만주의 주)이요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주로 까지 동화(同化)되게 했다.(교회헌

장 59항, 교리서 966항)

그렇다면 앞으로 천주교는 마리아에 대하여 어떤 교리를 더 창작할 것인지 아주 흥미진진(興味津津)하게 기대가 된다. 혹시 마리아가 성령이라든지(이미 이 사상은 드러나고 있다 : 마리아는 성령과 완전무결하게 연합되어 있다. 「짐승위에 탄 여자」 342p) 더욱이 삼위일체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이도 이미 마리아의 예언에 등장했다 : 「천주교 정체파악시리즈」 (1) 271p. 참고) <최고의 신 마리아>정도가 되지 않을까?

## 6. 마리아가 실질적인 천주교의 최고신이라는 근거

### (1) 마리아 교리들이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위에서 열거한 대로 마리아에 대한 8가지의 교리들은 모두 전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성경적이며 반(反)성경적인 교리들이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발상(發想)부터가 마리아 신격화의 신호탄이라고 보아 마땅할 것이다. 계속해서 <원죄 없이 태어났다>든지, <평생 처녀>로 살았다든지, 더 나아가 <평생 무죄> 즉 범죄(자범죄)없이 살았다든지, 더 더욱이 <부활승천>하였다는 기상천외(奇想天外)한 교리, 또 <교회의 어머니>라는 갈수록 태산 같은 선언, <군주들의 주님, 만왕의 왕과 죄와 사망의 승리주와 같이 완전히 동화된 하늘의 여왕>이라는 노골적인 표현,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지는 <중보자(중재자)>와 <공동-구속자>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상의 교리들은 마리아를 그리스도와 동등시 한다거나 오히려 더 높이려는 의도에서 치밀하게 창안된 작품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2) 교황들이 그렇게 믿어왔다.

거의 많은 교황들이 마리아에 대한 신앙이 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네 교황의 예만 들어 보겠다.

### 바오로 6세

저는 이러한 바람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손과 마음에 기쁘게 맡겨 드립니다,오늘은 특별히 성모님께 봉헌된 날이며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 아침에 성모님께서서는 성령께서 이끄신 복음화의 시작을 기도하시며 지켜보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복음화의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sup>256)</sup>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교황 재위 제 13년/ 1975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 축일/ 교황 바오로 6세)

바오로 6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이어 받아서 성공적으로 잘 끝마친 교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교황이 그 공의회 폐막 10주년을 맞이한 교황의 권고의 제일마지막을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로 맺고 있다. 자신의 소원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손과 마음에 기쁘게 맡겨드립니다’라고 마리아

256) 장익 발행, 『교황 바오로 6세의 권고. 현대의 복음선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 3판2쇄), pp. 79-80.

에게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복음화의 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교황이 전 세계의 천주교도들에게 보내는 중요한 권고문의 마지막 대목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마리아에게 소원 성취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황 이야말로 인간 마리아를 하나님 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대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요한 바오로 2세

대표적인 교황으로 요한 바오로2세의 예를 들겠다. 이 교황은 마리아에게 아주 깊은 헌신을 한 사람이었다. 그는 주교로 서품을 받을 때에 발 앞쪽에 마리아를 존귀히 여기는 'M'자를 새긴 주교 옷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의 좌우명으로 '완전히 당신 것입니다.'(토투스 투스: Totus Tuus)를 채택했다 이 말은 마리아와 관련하여 자신은 '완전히 당신 것입니다.'라는 의미였다. 이것은 동정녀 성모 마리아에게 자신의 성직서품을 완전히 봉헌한다는 표현이 되었다.<sup>257)</sup>

이 교황은 1981년 5월 13일 마리아를 존귀히 여기는 축제일에 흰색 무개차를 타고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 속을 돌다가 한 터키 청년이 쏜 총탄을 맞았다 이 교황은 병원에 도착할 때 까지 반복해서 "마리아, 나의 어머니! 마리아, 나의 어머니!"라고 간청하였고, 15분 동안 그 기도는 교황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sup>258)</sup>

그리고 1982년 5월 13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2세는 포르투갈의 파티

257) 제임스 G. 맥카티 저, 『가톨릭에도복음이있는가?』, 조남민 역, (서울 : 한인성경선교회. 2006) p. 266.

258) 같은 책, pp. 264-267.

마 성모 마리아 성당앞에 높이 세워진 연단 위에서 (20여만 명의 가톨릭 교인들 앞에서) 총격사건 1년이 되어 완전한 회복을 마리아에게 감사하고 그녀에게 온 인류를 축성(築城: 사람이나 물건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거나 사용되도록 전적으로 바치는 것) 기도를 하였다.

거룩한 하나님의 어머니, 우리는 당신의 보호에 의지합니다...성모와 시녀의 사랑으로 우리의 세상을 감싸 주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당신에게 의탁하고 당신에게 봉헌합니다...오! 성모여! 세상과 모든 사람과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에게 위탁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 축성 자체를 당신의 모성의 자애로움에 두며 당신에게 맡깁니다 오! 한 점의 흠이 없는 완전히 순결한 마음이며! 우리를 도우사 악한 위험을 이기게 하소서...오! 그리스도의 어머니여!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받으소서. ...세상의 역사에 당신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무한한 능력을 한 번 더 나타내소서. 그 권능이 악을 멈추게 하소서 양심을 변하게 하소서 모든 희망의 빛을 위해 당신의 순결한 마음이 드러나게 하소서<sup>259)</sup>

이 기도를 보면 이 교황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위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곡히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마리아에게 전폭적으로 호소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철야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애절하게 매달려 호소하며 간구하는 것과 같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고 있다.

이 교황은 과연 마리아에게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며 또한 마리아가 자기를 저격범의 총알에서 벗어나게 구해주었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교황은 사실 참 창조주이시며 인류의 유일한 구속주이신 하나님

---

259) 같은 책. pp. 292-294.

아버지와 그리스도만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 사실은 천주교의 최대의 무지이며 불신앙이요 배도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무엇보다 결국 이 교황의 이상의 기도들과 믿음과 헌신은 하나님께가 아니고 마리아에게 바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천주교의 최고권위자요 무류권을 가진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이렇게 마리아를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천주교 전체의 모범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이 교황의 이러한 행위를 볼 때 천주교가 마리아를 최고의 신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 교황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첫 번째 회칙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은 기도로 마치고 있다.

우리는 성모님께 교회를, 교회의 사명을 그리고 사랑의 봉사를 드립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어머니께서는 세상에 참된 빛을/ 당신의 아드님  
 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주셨나이다./ 어머니께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 온전히 자신을 맡기시어 / 하느님에게서 흘러 나오는 / 선의 샘이  
 되셨나이다 /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여 주소서. / 저희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  
 소서. /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어 / 저희도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 목마른 세상 한가운데에서 / 생명의 물이 솟아  
 오르는 샘이 되게 하소서.

(로마 성 베드로좌에서 / 교황 재위 제1년 / 2005년 12월 25일 / 예수성탄  
 대축일 교황 베네딕토16세 )260)

여기에서 전 교황의 마리아 신앙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기도문은 먼저 성모에게 온전한 헌신사로 시작하여 감사를 드리고 간구를 드리는 순서로 되어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봉헌기도 : 하나님께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천주교회와 천주교의 사명과 사랑의 봉사를 바친다고 기도하고 있다.

2) 감사 : 하나님께가 아니고 마리아가 세상에 참된 빛과 예수님을 주셨다고 감사드리고 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선의 샘이 되신 것을 감사드리고 있다

3) 끝으로 네 가지 간구를 하고 있다. ①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여 주소서 ② 저희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주소서 ③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 주소서 ④ 목마른 세상에 생명의 샘이 솟아오르는 샘이 되게 해 주소서

이상의 이 교황의 기도를 보면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마땅히 드러야 할 헌신과 감사와 기도를 모두 인간 마리아에게 바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천주교의 최고 권위자인 교황의 이 기도문은 그가 하나님보다 마리아를 더욱 믿고 의지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교황의 이와 같은 기도를 종합하여 보면 그에게는 최고신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아니고 마리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것은 교황이 등극하여 보낸 첫 회칙의 끝에 결론적으로 드리는 기도문이었다.

---

260)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회칙, 강우일 발행,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1판 12쇄), pp. 79-80.

베네딕토 16세는 그 후의 다른 회칙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며 마치고 있다.

거룩한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저희 어머니시여 저희에게 당신과 함께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그 분 나라에 이르는 길을 저희에게 보여 주소서! 바다의 별이시여 저희에게 빛을 비추시어 저희의 길을 이끌어 주소서.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 교황 재위 제3년/2007년11월 30일/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에 교황 베네딕토 16세)<sup>261)</sup>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는 이 회칙도 마지막을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로 마치고 있는데 세 가지 기도가 구구 절절히 간절한 호소로 이루어져 있다 교황의 이번 기도도 하나님보다 마리아를 더욱 믿고 의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또 다른 회칙인 「진리 안에서의 사랑」에서도 이러한 기도로 마치고 있다.

바로 6세기에서 교회의 어머니로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의 거울이시며 평화의 모후(저자주: 여왕)로 공경하는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하느님께 전구(轉求: 저자 주; 천주교에서 성모와 그 밖의 성인을 통해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시어 우리가 ‘한 인간 전체와 전 인류의 발전’을 이루는 과업에 지속적으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힘과 희망과 기쁨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교황재위 제5년 / 2009년 6월 29일 / 교황 베네딕토 16세)<sup>262)</sup>

261) 베네딕토16세의 회칙, 장익 발행,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1판 1쇄), p. 79.

262)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회칙, 강우일 발행, 『진리 안의 사랑』, (서울 ; 한

이 교황은 이번 기도에서 마리아에게 교회의 어머니요 정의의 거울이시며 평화의 모후로 공경하는 동정 마리아라고 부르고 나서 마리아에게 우리를 지켜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그녀에게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서 한 개인과 전체와 인류의 발전을 이루는 과업에 지속적이고 전적으로 헌신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이 기도 또한 하나님께 직접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보다 마리아를 더욱 신뢰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 교황 프란치스코 회칙

새 교황 프란치스코는 <신앙의 빛>이라는 회칙의 제일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마쳤다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우리 신앙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기도드립니다.

어머니 저희의 신앙을 도와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과 부르심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전략) 저희의 신앙에 부활하신 분의 기쁨의 씨앗을 뿌려주십시오. 믿는 이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희 길을 밝히는 빛이 되시도록 그분의 시선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물지 않는 날이신 그리스도, 당신의 아드님, 저희의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신앙의 빛이 저희 안에서 계속해서 강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교황재위 제1년 신앙의 해 2013년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교황 친필 싸인) 프란치스코)<sup>263</sup>

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p. 117.

263)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앙에 관한 회칙 『신앙의 빛』, 김영선 역,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년 제1판 3쇄), pp. 86-87.

교황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어머니시며 우리 신앙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기도드리자는 서언을 말하고 했는데 이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교황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적절한 표현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모든 천주교인들과 특히 천주교의 머리인 교황의 절대적인 기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에 많이 생략하고 적은 교황의 이 기도만도 여섯 가지의 청원 기도로 되었다. 이 청원들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직접 드려야 하는 것인데 이 교황은 모두 일일이 마리아에게 간구하고 있다. 천주교의 우두머리이고 총 대표이며 최고의 권위자이며 무류의 교황의 이와 같은 기도 하나만 봐도 천주교가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나갔으며 마리아를 하나님보다 더 믿고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을 줄 안다.

#### 교황 프란치스코의 교황 권고

교황 프란치스코는 현대 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의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마쳤다.

동정 성모 마리아님, (전략) 경청과 관상의 동정녀, 사랑의 어머니, 영원한 혼인 잔치의 신부, 교회의 지순한 모상이시여 교회를 위하여 전구하시어 교회가 스스로 자기 안에 갇히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세우려는 열정에 불타오르게 하소서. (전략) 살아 있는 복음의 어머니, 작은이들을 위한 기쁨의 샘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알렐루야!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교황 재위 제1년 신앙의 해를 마치며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교황 친필 싸인) 프란치스코)<sup>264)</sup>

264) 현대 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년, 제2판 5쇄), pp. 221-223.

많이 생략하고 조금만 기록한 교황의 이 기도를 눈여겨보자. 먼저 이 기도에서는 기도의 대상인 마리아에 대한 다양한 호칭이 보인다. ‘동정 성모 마리아님, 경청과 관상의 동정녀, 사랑의 어머니, 영원한 혼인잔치의 신부, 교회의 지순한 모상, 살아있는 복음의 어머니, 작은 이들을 위한 기쁨의 샘’등 일곱 가지의 칭호로 부르고 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붙이는 칭호와 같이 가지 가색으로 더 많을 줄 안다. 이러한 사실은 교황과 천주교의 마리아 신앙의 강도(強度)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님께만 향해야하는 신앙의 열도를 인간 마리아에게 쏟고 있는 모습은 가히 애처롭게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황의 기도 내용은 ‘전구(轉求)하시어’와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하는 것이다. 이는 같은 내용으로 마리아나 성인을 통하여 바라는 바를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전달하는 기도이다. 교황은 마리아에게 교회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고 또 마리아에게 저희를 위하여 대신 빌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천주교의 전형적인 기도를 보니 애석(哀惜)하게 보인다.

이상 네 교황들의 권위 있는 문서들의 마지막에 올린 일곱 개의 기도문을 보면 모두가 마리아에게 직접 기도하고 있다 마지막 기도 끝만 대신 기도해 달라고 했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 하듯이 직접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다. 이 네 교황은 사도좌에서 올린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에게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모두 마리아에게만 하고 있다. 과연 이런 교황들을 하나님의 종중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들의 기도를 보면 마리아는 인간 중에 최고의 공경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아니 하나님보다 더욱 믿는 신앙의 대상이며 승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기도들을 보아도 마리아

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화된(동일하게 된),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고의 신이 된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들 교황들의 기도가 또한 마리아가 천주교의 실질적인 신앙의 대상이며, 최고의 신이 된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마리아 종교>요 마리아를 최고의 신으로 신봉하고 숭배하는 <마리아교>라고 하는 세평을 부인 할 수 없을 줄 안다. 그래서 사탄은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교리를 출발점으로 해서 마리아 신격화 작업을 집요하게 계속해 왔다. 그 결실로 마리아는 명실 공히 하나님의 권좌를 찬탈(篡奪)하고 최고의 하늘 여왕좌에 앉아서 교황과 모든 천주교도들의 숭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고 있다. 마리아가 모든 성체(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존하며, 성령과 완전히 연합하고 심지어는 천사들의 총사령관이며, 그리스도 재림의 총지휘자라는 발현한 마리아의 계시까지 공공연하게 전파(傳播)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정도까지 되었는데 어느 누가 마리아가 천주교의 실질적인 최고신이라는 주장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 7. 결국 천주교는 마리아종교로 종착하게 되지 않을까?

천주교내의 마리아 숭배와 마리아 운동들은 도를 넘어서 최고의 여신으로 추앙되고 있다. 즉 마리아를 여왕과 여신 곧 최고의 여신으로 높여서 숭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명확히 천주교가 고대의 여신 숭배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마리아 신격화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인위적이고 거짓된 마리아교리들>에서도 밝혔지만 천주교의 마리아교리들은 그 출발부터 신격화의 것이었다. 개신교 신학자들도 천주교가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교리를 합리화하는 논리에 속아 넘어간 이들이 많지만 그 교리는 마리아 신격화의 신호탄이었다. 그 후에 계속 추가되어온 7개의 마리아교리는 실로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고도 남았다. 마리아가 승천하여 하늘의 여왕으로 존귀하게 추대 받아서 "군주들의 주님이시며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신 당신 아드님과 더욱 완전히 동화되셨다."(가톨릭교회 교리서 966조)는 교리는 마리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화하고 있다. 이제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그들이 더 나아갈 곳이 있을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마리아 신격화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편의상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과 그 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과거의 마리아 신격화(이교적 여신화)

천주교는 A.D. 431년의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교리를 시발점으로 하여서 마리아를 이교신화하고 우상화하여 숭배해 왔다. 그 후에 계속 추가되는 마리아교리들도 마리아 신격화를 더욱 강화하여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마리아를 최고로 공경할 뿐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고 숭배해온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이 천주교 전 역사에서의 마리아 신격화의 현실이며 결실이었다.

## (2) 최근의 마리아 신격화(프리메이슨: 뉴에이지의 인신(人神)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부터 이 마리아 신격화는 정 반대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마리아가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으나 결국 그것은 뉴에이지적인 인신화의 절정이라는 것이다. 즉 뉴에이지는 '만물은 신이고 모든 사람도 신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신격화는 결국 뉴에이지의 신관을 극명하게 대변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즉 천주교가 마리아를 최고의 신과 동일화 한 것은 뉴에이지(프리메이슨)의 '모든 인간은 신이다.'는 사상의 모델케이스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부터 진보적인 세력이 거의 주도하여 옴으로 발전되어온 것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1600여 년간 이교신화와 우상화로 숭배해 온 마리아 신격화는 결국 '모든 인간 신격화라는 프리메이슨(뉴에이지) 신관으로 전락하여 곤두박질하여 종국으로 굴러가게 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이 끝 모르는 마리아 신격화와 숭배는 뉴에이지의 인신(人神)으로 둔갑하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천주교 교황이나 당국자들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과거와 같이 마리아 숭배를 계속 장려할 것이며 또 보수적인 일부 주교들이나 신부들은 마리아 신격화와 숭배를 계속 강화하여 나아가리라고 본다.

뉴에이지(프리메이슨)사상은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자신들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들이 창조주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세계를 건설하여 살기 좋은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천주교의 주류사상으로 침투하여 발전되어온 이와 같은 사상과 행동은 결국 제2의 바벨탑 사건으로 경

계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상과 운동의 결말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다. 요한 계시록 18장과 19장에 이미 제2의 바벨론 제국과 그 지배세력에 대한 극명한 심판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예고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2천 년 전의 하나님의 이 경고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① 마리아는 최고의 인본주의의 정점

에리히 브뤼닝은 『에큐메니칼 프로젝트』에서 프리메이슨적 사상의 총화가 특징인 교황 바오로 6세가 인본주의의 최대 상징인 마리아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목할 발언을 했다고 기록했다

성육신은 사람이 되시려고 끝없이 내려오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무한히 올라가신 사람이시고 이 승귀의 정점은 가장 성스러운 마리아이다...아마도 이 동기로부터...왜 인본주의가 바로 오늘날 모두의 의식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최고의 표현을 찾는 자는...마리아에게서 최고의 인본주의의 정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정식으로 심연이 열리는데, 즉 마리아가 최고의 인본주의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말할 때 교황 바오로 6세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아래서 인본주의적 사고의 원형을 이해한다. 바오로 6세는 프리메이슨으로서 자기가 무엇을 말했으며 왜 말했는지 아주 잘 의식했다<sup>265</sup>고 했다.

브뤼닝은 프리메이슨이며 프리메이슨적 사상의 총화가 특징인 교황 바오로6세가 천주교에서 그동안 발전시켜온 마리아 신격화 교리가 결

265) Brüning · Deppe · Gassmann, 『Projekt Einheit』, (Oerlinghausen : Betanien Verlag e. K, 2004), p. 45.

국은 “마리아에게서 최고의 인본주의의 정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로 귀결됨을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교황의 주장은 천주교 천 수 백년간의 마리아 신격화교리들이 결국은 프리메이슨의 마리아 인신화로 종결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천주교가 그동안 온갖 공력을 쏟아 부어 제조한 마리아 신격화 교리들은 허무맹랑하게 끝장이나고 결국은 사탄의 목적에 이용당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 ② 이 새로운 인본주의의 탄생은 프리메이슨적 인류의 이상과 일치

브뤼닝은 계속해서 마리아를 최고의 인본주의의 정점으로 삼은 천주교의 행보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카톨릭교는 물론 새로운 인본주의의 탄생을 통한 세계의 하나 됨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종교들에 대한 에큐메니칼주의의 수렴작업에 봉사한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은 인간들이 다양한 종교들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사랑 안에서 화해되는 하나의 세계문명이라는 프리메이슨적 인류의 이상과 일치한다.<sup>266)</sup>

천주교는 출발부터 인본주의였다. 점차적으로 신본주의의 진정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사상들(전통)로 교리들을 제정하여 왔으며 교황과 교도권을 최고의 권좌에 올려놓고 심지어는 그들의 선언한 내용의 무류(無謬)성까지 선포했다. 그들은 화려한 성당들과 복장, 그리고 음악들과 의식들로 위장하고 사도 전래성을 조작한 채 자기들만이 유일한 참 교회라고 기만하고 있다.

---

266) 같은 책 p. 45.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천주교가 이제 뉴에이지(프피메이슨) 사상과 결합되면서 서서히 기독교적 가면을 벗겨내고 인본주의적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또한 에큐메니칼 주의를 통하여 모든 기독교의 일치통합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면서 나아가서는 모든 종교의 화해와 하나됨을 추구하며 결국은 "하나의 세계"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형조 목사는 『기독교 종말론 가이드 북 타작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나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인 록펠러는 뉴욕에 있는 자신의 땅을 내놓고 UN건물을 짓게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지금까지 UN을 사용하여 그들의 야망인 세계정부의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sup>267)</sup>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정부는 프리메이슨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천주교가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인 뉴에이지(프리메이슨) 사상과 일치해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 사실은 천주교가 적그리스도의 시녀가 되리라는 우려스러운 결과를 예견하게 한다

이상으로 마리아에 대한 사실들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세간에 ‘천주교는 마리아교’라는 말이 소위 무식한 사람들의 풍설(風說)만이 아니고 변명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줄 안다.

## 8. 천주교에 대한 마지막 경고

267) 이형조 목사, 『기독교 종말론 가이드 북 타작기』, (서울 : 세계제자훈련원, 2012), p. 36.

(1) 천주교의 호언장담(豪言壯談)(천주교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영속된다)

제임스 C. 기본스는 「교부들의 신앙」 제6장 <교회의 영속성>에서 천주교가 불변하고 불멸하며 계속 발전하면서 억만년 영속의 약속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제도는 시대와 경우를 따라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가톨릭 교회만은 변하지 않는다. 모든 건축물은 머지않아 파괴를 면치 못하나, 하느님의 건축물인 교회만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돌맹이 하나도 굴러 떨어지지 않는다. 온 세상을 누르던 대제국도 하루아침에 붕괴되기도 하지만, 가톨릭 교회만은 영구히 건재할 뿐 아니라 시대가 지날수록 더욱 발전되어 나간다.

…로마의 국민 됨이 그렇게도 큰 영예라면 2천 년 역사와 현재의 전 세계적 보편성과, 장래 억만 년 영속되리라는 약속을 지닌 가톨릭교회의 신자 됨이 과연 얼마나 더 큰 영광이 되겠는가.”<sup>268)</sup>

기본스의 이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모든 제도는 변하지만 오직 천주교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말은 천주교의 외형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진리와 거룩함이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변질과 변종(變種)의 역사로 도배한 천주교에 도저히 해당되지 않는 주장이다.

---

268) 제임스 C. 기본스 지음, 『교부들의 신앙』, 장면 옮김, (서울 : 가톨릭출판사, 2006. 개정초판 7쇄), pp. 80-81.

2) 천주교만은 반석위에 세워졌으므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천주교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Petros : 한 돌맹이)라 내가 이 반석(Petra : 바위 즉 주님자신을 가르침)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 18)하신 말씀을 아전인수 격으로 곡해하여 왔다 그들은 명확한 원어의 의미를 곡해하여서 베드로 위에 천주교를 세웠다고 억지 주장하여 왔는데 천주교는 곡해된 대로 그 어떤 권세도 천주교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천주교가 역사적인 곡해를 묵과(默過)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신약의 서신들이나 요한 계시록에(로마서16:, 고전 후, 갈라디아, 요 1, 2, 3서, 계시록 2:, 17: 18: 등 ) 범죄하는 교회들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3) 대제국들은 다 붕괴되어도 천주교만은 영구히 건재하고 더욱 발전되어 나간다는 주장과 2천년 역사와 현재에 전 세계화된 교세와 장래 억만년 영속되리라는 약속을 지녔으니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지금까지 천주교의 역사를 보면 그 곤욕(困辱)스럽고 저주(咀呪)스러운 변질과 변종(變種)으로 점철(點綴)된 간악한 것이었지만 마치 오뚜기 같이 억척스럽게 잘 버티어온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장래에도 자기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호언장담 할만도 하다 그러나 아직 역사는 진행 중이며 역사의 예언된 종말과 최후 심판을 보기 전에 이러한 장담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을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준엄한 선고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 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야,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계 18:4-8)

## (2) 가장 잔인한 살인기구 등으로 가장 많은 신앙인을 살해한 천주교

천주교는 인류역사상 가장 잔인한 살인기구(종교재판소)로 많은 신앙인을 살해한 것과 자체적으로 살해한 수천만의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의 무죄한 피에 대하여 절대로 자유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교회사의 대가 필립 샤프는 “스페인 종교재판소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수가 이교 로마에 의해 순교한 신자들의 수보다 많으며, 한 황제의 재위 기간에 홀란드 한 지방에서만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희생된 개신교 신자들의 수가 처음 3세기 동안 로마 제국에서 희생된 그리스도인들의 수보다 많다는 계산이 나왔다.”<sup>269)</sup>고 했다.

그리고 다른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하고

---

269) 필립 샤프 저, 『교회사전집 7. 독일종교개혁』, 박종숙 역,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p. 497. 재인용.

있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카톨릭 제도가 생겨난 600년부터 현재까지 신중하고 믿을만한 역사가들은 5천만 명 이상의 인간 가족이 카톨릭 박해자들에 의해 이단 이라는 죄목으로 살육되었으며, 카톨릭 제도가 존재한 전체 기간 동안 매년 평균 4만 명에 대한 종교적 살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로마 카톨릭주의의 역사(History of Romanism)", 도월링(Dowling)저. pp. 541, 542. New York: 1871.270)

“전제적인 정부들과 동맹을 맺어, 10세기 동안 지상 인구의 거의 1/3에 대해 철 홀을 휘두르고 폭력적인 살인을 통해 약 6천 8백만 명의 거주자들을 지면에서 일소한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문명화된 세계의 거의 반을 암흑과 속박에 묶어둔 것은 사고일 뿐인가?” 리만 비체르(Lyman Beecher)'서양을 위한 탄원(Plea for the West)' pp. 130-131.271)

“한 마디로 말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놀라워하고 분개한 세계의 면전에서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억제할 수 없는 권리를 위해 인간 가족이 내세우는 모든 요구를 사그라지게 만들려는 그의 확고한 결심을 정립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인 살육을 통해 약 6천 8백 50만 명의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시민의 자유의 적인 카톨릭(Popery an enemy to civil liberty), 브라운리. 1836, pp. 104-105. 272)

또 데이브 헌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우리는 요한이 본 이상과 역사를 통해서 진실을 배워야 한다. 짐승 위에 탄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이다(계 17:6). 그것은 무서운 장면이다 그러나 오직 로마(저자주: 천주교와 교황청) 외에는 어

---

270) 데이빗 플레이스티드 저, 『로마와 순교자들의 피』, (서울 : 생명의 서신.

2006 초판. 재인용), p. 4.

271) 같은 책. p. 10.

272) 같은 책. pp. 10-11.

면 다른 도시도 그 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역사가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시민은 로마 가톨릭 교인이 되어야 했다. 교황에게 진정한 충성을 바치지 아니한 자는 대역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형벌은 사형이다. 이것이 바로 수백만의 인명을 도살한 근거였다. 수세기 후에 마치 회교도들이 자행한 것과 같이, 이교도화한 천주교가 전 유럽에 강요되어서 굴복치 않을 때는 고문과 죽음만이 백성들의 운명이 되었다.

그리하여 로마 가톨릭교는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심한 박해자가 되었다. …왕들로 하여금 그의 신하들에게 기독교(가톨릭)를 믿게 하라고(명령함으로써) 이노센트 3세(교황)는 … 어떠한 로마 황제가 그의 전 통치 기간 중에 살해한 숫자 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한 나절(한 오후)에 도살해 버렸다.’

…이집트의 작가 롤로 아메드(Rollo Ahmed)는 서술하기를, 종교재판 제도는 ‘생명과 재산과 도덕과 인권을 파괴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에 알려진 가장 무자비하고 포악한 제도’라는 것이다. 가톨릭 신도인 액튼 경(Lord Acton)은 종교재판소를 “살인기구”라고 칭하고, 교황들은 ‘위풍 있는 살인자들일 뿐 아니라, 살인을 그리스도교회에 합법적 근거로 만들었으며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sup>273)</sup>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역사상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심한 핍박을 가한 당사자이며, 이방신을 섬기는 로마와 회교도들이 살해한 숫자 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한 자이다. 그리스도인의 박해와 처형에 있어서 로마교회를 능가한 자들은 모택동과 스탈린 밖에는 없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지는

---

273) Dave Hunt 저, 『집승위에탄여자』, 정태운 역, (서울 : 도서출판 누가, 2007), pp. 189-190.

않았다 ‘성도들과 예수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로서 로마 가톨릭에 필적할 종교 단체는 단 하나도 없다.”<sup>274)</sup>

최소한 극히 적은 위의 기록들만 봐도 천주교가 신앙과 교리적인 배도와 함께 무수한 복음적인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데에 대한 하나님의 추상같은 공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충 보아도 자기들보다 교리적으로 건전했던 네스토리우스주의자들과 정통적인 발도파에 대한 수 세기에 걸친 잔혹한 박해와 소탕작전을 통한 수십만의 끔찍한 학살, 그리고 종교개혁 전과 그 후를 통하여 학살한 기독교인들과 소위 종교재판소를 통하여 학살한 기독교인의 수는 도저히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니 말이다.

### (3) 피 값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심판의 경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하겠다. 이하의 말씀들은 이상의 본서의 모든 내용에만 따라도 천주교에 적중(適中)되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

274) 같은 책. p. 204.

### 헬라인에게라(롬 2:5-10)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살후 1:8-10)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계 17:3-6)

네가 본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계 17:16)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계 18:24)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계 19:1-2)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

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 21:8)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계 22:15)

## 간곡한 권면

필자는 지금까지 천주교의 허상을 파헤쳐서 그 정체를 들추어내 보이기 위하여 미력이나마 노력해 보았다. 시간과 지면과 여러 가지 제약 상 살살이 다 기술하지 못하고 그것도 줄필로 잘 표현하지 못한 점을 진실로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천주교 형제자매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싶다. 본인에게도 가까운 집안에 천주교 신도들이 몇 가정 있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이 글을 썼다. 그리고 본인은 천주교에 대하여 아무 사심 없이 오직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썼다. 쓰다 보니 생각 외로 엄청난 사실들이 발견되어서 본인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본인은 어디까지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였다. 이 점을 이해하고 진지하게 읽어주기 바란다

간곡히 권면하고 싶은 당부는 천주교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기독교인 여러분과 독자여러분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진리를 탐구(探究)하게 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기 위하여 신구약 정경(66권)과 초대 교회와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서 순수한 진리와 복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곡히 권면한다. 그리하여 우리 죄를 단번에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유일한 대속(代贖)주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의 뜻을 따

라서 죄와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권면한다 여러분이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속하여 주셔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영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우리 모두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결언

본서는 무엇보다 천주교의 그릇된 교리들과 그에 따른 의식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허상을 밝히고 더 나아가서 허상을 쫓는 그들의 허무한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선 그들의 일곱 가지 중요 교리를 통해서 가능한 한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 허상을 밝혀 보았다. 그러나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니 좀 전문적으로 들어간 감이 있으나 천주교 정체 이해의 서론 정도로 가볍게 소화하기 바란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마귀의 특성 중의 하나로 자기를 변장하는 데는 끝도 없고 한계도 없다고 한 말과 같이<sup>275)</sup> 천주교의 온갖 변장과 위장은 많은 사람을 오도(誤導)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여기에 기재된 실화들과 천주교의 실체에 대한 간략한 서술들을 통하여서 독자 여러분이 천주교의 정체파악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주교 안에서 진정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275) 마틴 로이드 존스 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평가』, 정동수 역, (서울 : 말씀과 만남. 2003) p. 20

필자는 사심 없이 진실하고 정확히 쓰려고 노력했으나 건강과 연구의 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독자제현의 사심 없는 충고와 지도를 부탁하고 싶다 그리고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변혁과 개혁을 위한 불씨가 되기를 염원하며 썼다. 또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 갈길을 몰라 방황하는 모든 분들과 무엇보다 장님이 된 지도자들을 만나서 위험한 멸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는 무수한 심령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썼다. 필자가 비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천주교의 근본적이며 본질적으로 크게 잘못된 교리들에 집중하였음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따라서 천주교의 지역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가지나 잎이나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씨와 뿌리에 있기 때문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마태 복음 7장 19절)

오늘날의 기독교회는 외부의 천주교를 비롯한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기독교 말살을 획책하는 세력들과 내부의 교리적, 실질적인 배교적 불신 세력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위기 속에 처해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마지막 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능력의 최후승리로 전개될 것을 절대 확신하여야 하겠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불변하신 능력과 사랑을 굳게 믿고 기만적인 사탄의 세력들에 동요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힘차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기를 바란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 하나님의 격려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5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요한 계시록 2장 26-2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39절)

# 부록

최근 천주교의 급격한  
인본주의(뉴에이지: 프리메이슨)화  
현상의 의혹

(이하는 독자제현의 연구 자료로 제공한다)

원래 천주교는 4세기부터 인본주의 기독교로 발전되어 왔다. 그렇게 인본주의로 점점 발전하여 오던 천주교는 종교개혁의 와중에서 열린 트레نت 공의회에서 완전히 인본주의 종교로 탈바꿈하고 말았다. 그러던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서는 그 인본주의를 더욱 철저히 위장시키고 변종시켜 놓았다. 그리고 2차공의회 후에는 천주교에 미리 침투한 인본주의는 놀라운 속도로 교황청을 장악하고 천주교 전체에까지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본 부록에서는 독자들의 연구 자료로 최근 천주교의 이처럼 급격한 인본주의화 현상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제공하기로 한다.

## 1. 천주교의 프리메이슨화 과정에 대한 의혹

천주교의 인본주의라는 말은 자유주의, 진보주의 또는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다. 그런데 천주교의 이러한 인본주의화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 그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다.

### (1) 천주교 출판사에서 뉴에이지의 책들을 발행하고 판매함

최근 유명한 뉴에이지 지도자인 매튜 폭스의 저서 「창조영성 길라잡이 원복(原福)」과 「우주 그리스도의 도래」를 천주교의 분도출판사에서 발행했고 천주교 서점(바오로 딸)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저자 매튜 폭스는 파리의 가톨릭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도미니칸 수도회 소속의 신부로서 34년 동안 가톨릭 사제였으며 미국에서 한 가톨릭 대학에서 활동했으나 1993년에 바티칸으로부터 축출당했다

그러나 성공회에서 그를 영입하여 지금은 미국 성공회 신부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인물의 철저한 뉴에이지적 저서를 오늘날은 천주교 출판사에서 출판 할 뿐만 아니라 천주교 서점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하기 힘든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 수녀의 말에 의하면 천주교 당국에서 허가하지 않는 책은 천주교 출판사에서 발행할 수 없으며, 천주교 서점에서 판매도 할 수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그 서술 퍼런 천주교 교도권이 지금 뉴에이지(프리메이슨) 사상서적을 출판하는 것과 그것의 판매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2)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팽팽한 대결

요즈음 평화방송에서 명강사로 뜨고 있는 차동엽 신부(보수주의)는 뉴에이지의 신영성운동을 공격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가톨릭 근본주의의 도전」(우리신학연구소 발행 한상봉 지음)에서는 뉴에이지의 신영성운동 등 뉴에이지 사상을 옹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276)</sup> 이를 보면 현재 한국의 천주교만 해도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팽팽히 대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인다.

## (3) 진보 측과 보수 측의 심각한 내분

276) 한상봉, 『가톨릭근본주의의 도전』, (서울 : 우리신학연구소, 2007), pp. 112-115.

랄프 맥키너니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현대 가톨릭의 위기진단』에 의하면 천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진보(자유주의)측이 승리했으나 그 이후에 보수측이 장악했으며 1968년 이후 계속해서 보수와 진보 양측이 상당히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다<sup>277</sup>고 한다. (여기에서 진보측은 프리메이슨(뉴에이지) 지지 세력으로 보통 알려지고 있다.)

#### (4) 새 교황 프란치스코에 대한 의혹

새 교황 프란치스코 1세는 근래의 교황들이 경계하고 멀리한 것으로 알려진 예수회 출신이다. 최근에 예수회는 프리메이슨과 통합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다. 만일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 새 교황은 프리메이슨(뉴에이지) 교황이라는 칭호를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

#### (5) 발현 마리아의 두 부류

근래에 와서 세계 도처에서 발현(출현)하는 마리아들이 급증하고 있다.(수천수만 건) 그 중에 특기할 사실은 정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두 마리아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첫째는 마리아 사제운동을 주도하는 마리아요, 둘째는 『세상을 향한 마리아의 메시지』라는 책에 수백의 마리아로부터 온 메시지를 담고 있는 뉴에이지의 마리아이다.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 마리아는 전의 마리아들과 다른 마리아라고 하고 있

277) 랄프 맥키너, 『현대가톨릭의위기진단』, 이재룡 옮김, (서울 : 가톨릭출판사, 2000), pp. 88-106.

지만 안디옥 가톨릭교회의 오스트레일리아 대교구 대주교인 프랭크 버기는 위의 책을 극찬하며 추천하고 있다<sup>278)</sup>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발현한 마리아도 두 부류가 되는 셈이다. 이는 이전의 거의 모든 마리아는 보수측의 마리아이고 다음의 뉴에이지 마리아는 진보측의 마리아가 되지 않을까? 현재 천주교는 보수와 진보가 팽팽히 대결하고 있다는데 서로 양극으로 정반대의 사상을 가진 이 두부류는 과연 어떻게 융합하거나 대결해 나아갈지 그 행보가 매우 궁금해진다.

## (6) 프리메이슨의 교황청 침투 시기

1877년경에 이태리 프리메이슨 로지의 형제(회원)인 교황청 추기경 국무대신이 있었다는 기록을 보면 프리메이슨이 교황청에 침투한 시기가 이미 오래전 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다.(「악마가 사랑한 여인」 100p)<sup>279)</sup>

## (7) 교황청에 프리메이슨 100여명 존재 시기

1978년에는 교황청 관료들 가운데에 국무원장 장 비요 추기경을 비롯하여 일루미나티(프리메이슨) 회원이 100여명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교황 요한 바오로 1세는 취임하자마자 그들을 단번에 모두 제거하려 하였는데 그 전날 밤에 오히려 자신이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말았

278) 로저 오클랜드, 『새 포도주와 바벨론 포도나무』, 스테판 황 옮김, (서울 : 밴드 오브 퓨리탄스, 2010), pp. 184-187.

279) 마리 에머리, 『악마가 사랑한 여인』, 가톨릭다이제스트 역, (서울 : 도서출판 흰물결, 2005), p. 100.

다. 이 사건은 일루미나티의 독살이었다는 강력한 주장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sup>280)</sup>

## (8) 교황청이 프리메이슨의 본거지가 되었다는 마리아의 주장

유명한 마리아의 사 계시(예언 1993, 1995년)에서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프리메이슨이 그 자체의 악마적 세력으로 간교하게 교회에 숨어 들어와서 그들 세력의 본거지를 바로 교회의 심장부, 곧 내 아들 예수님의 '대리자'(교황)가 살고 있는 곳에 세우고, 여기에서 세계도처로 그 악한 영향을 퍼뜨리고 있다.”<sup>281)</sup>

이상의 몇 가지 사실들만 약간 살펴보아도 오늘날의 천주교의 프리메이슨화 현주소를 대략 엿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2. 천주교가 프리메이슨의 종교가 되고 있다는 의혹

### (1) 프리메이슨 종교란 무엇인가?

프리메이슨이란 하나의 비밀결사인데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조직이라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

280) 임종태, 『악마들의 거처 바티칸』, (서울 : 도서출판 다른우리, 2009), p. 165.

281) 스테파노 곱비,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박요한 실비아 옮김,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12), pp. 1060, 1093, 1186-1187.

데 이 조직은 단순한 정치권력 쟁탈만이 아니고 그 뿌리 깊은 곳에 종교가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종교는 영지주의와 뉴에이지의 이원론, 범신론, 내재신론적, 혼합 종교적인데 심지어는 사탄(루시퍼)숭배 종교라고도 한다. 철저히 기독교의 유일신 여호와와 그리스도는 배제하고 그 자리에 결국 사탄을 올려놓고 숭배한다고 한다.<sup>282)</sup> 이러한 프리메이슨의 사탄숭배 종교에 대해서는 여러 책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악마가 사랑한 여인」, 「악마들의 거처 바티칸」, 「경제 묵시록」에서만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사탄종교인 것을 알 수 있다.

## (2) 프리메이슨 종교는 적그리스도의 세계종교 통합인 사탄종교이다.

이형조 목사는 「기독교 종말론 가이드 북 타작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종교들이 저마다 갖가지 형상의 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 신들은 하나의 가이드(우상)일 뿐이며 결국 최종적인 신은 곧 자기 자신(자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최종적인 약속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기독교도 결국 이런 인본주의 사상으로 집결될 것입니다. 바로 ‘종교통합’입니다 사탄은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된 ‘신’을 찾아냈습니다. 곧 ‘자아’이며 이 정신을 일깨워 주는 것이 ‘뉴에이지 사상’입니다.<sup>283)</sup>

282) 이형조, 『타작기』, (서울 : 세계제자훈련원, 2012), pp. 183-192.

283) 같은 책, p. 195.

이 목사는 여기에서 프리메이슨 종교는 뉴에이지 사상에서 나온 것임을 말하고 있다 뉴에이지 사상은 결국 사탄의 작품이며 사탄은 뉴에이지를 통하여 최종적인 신은 인간자신이라고 속이고 이 ‘자아 신’ 신앙으로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는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신’사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라고 할 때에 쉽게 믿고 따르게 하며 루시퍼 숭배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하게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탄의 간악한 기만술은 이렇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탄적인 뉴에이지 사상과 그에 따르는 세계종교통합운동을 철저히 경계하고 그러한 프리메이슨 종교를 단호하게 배격해야 할 것이다.

### (3) 바티칸의 공식적 부활절 철야 미사에서 부른 루시퍼 칭송영창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참석한 로마 바티칸의 공식적인 부활절(2012년 4월) 철야 미사에서 루시퍼(사탄)를 칭송하는 영창을 올려 충격을 주고 있다.

“불타오르는 루시퍼가 인류를 찾으신다. 내가 말하노니 오, 루시퍼여 당신은 결코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루시퍼)의 아들입니다. 지옥으로부터 돌아와서 평화로운 빛을 비추었던 그는 살아 있고, 그리고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십니다.”(여기서 저들이 말하는 지옥에서 돌아올 루시퍼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284)

284) 제시팬 박, 『당신은 과연 준비되어 있습니까?』, (서울 : 인채출판 토파민, 2012), p. 61.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은 전 세계의 천주교가 총궐기(總蹶起) 할 사건이 아닌가? 그런데 어떠한 궐기 소식도 듣지 못했다. 과연 이런 천지개벽 할 사건은 교황이 시킨 것일까? 아니면 밑에 보좌관들 중의 프리메이슨이 기습적(고의적)으로 자기들의 노래를 삽입하게 한 것일까? 만약 교황이 시킨 것이라면 말 할 것도 없고 설혹 교황의 허락 없이 부하들 중의 누가 시켰다고 할지라도 이는 교황청이 프리메이슨에게 점령당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 3. 새 교황과 프리메이슨의 관계에 대한 의혹

여기에서 참고로 새 교황의 즉위 후에 행한 몇 가지 발언을 참고로 인용하여 보겠다.

#### (1) 하느님은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분이다 【바티칸 CNS】

교황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께서는 결코 만질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본질, 또는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파악되는 신비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간존재이자 인격이라고 말했다.(가톨릭신문. 2013.4.28자 10면) 교황은 여기에서 오직 영으로 계시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으신 그 진리를 오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어이없게도 하나님을 인간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러한 신관은 완전히 인본적이고 합리적이며 자유주의적인 것이다. 이는 정통적이며 성경적인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 (2) 동성애자들에 대해 정죄할 수 없어(프란치스코 교황, 동

## 성애 발언 논란)

교황은 2013년 7월 29일 브라질에서 열린 가톨릭세계청년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동성애자인 누군가가 주님을 찾으려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그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우리는 사람을 소외시키지 말고 사회속으로 융화해야 한다."는 가톨릭 교리문답서를 인용해 우회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동성애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진짜 문제는 성적 지향성이 아니라 이를 위한 정치적 로비"라고 지적하면서 바티칸 내에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로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기독교신문. 2013. 8. 11. 12면)

교황은 동성애 관련 발언 중에서 문제는 로비스트(정치세력)라고 했는데 천주교 내에 하나님과 같은 최고무쌍의 권위를 가진 무류한 교황이 자기 수하들인 바티칸 내의 정치적 로비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는 발언을 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할 것이다.

### (3) 교황, 이탈리아 언론과 인터뷰 【바티칸 CNS】

이 인터뷰에서 교황은 몇 가지 교황청 개혁에 대한 발언을 하였는데 이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맹목적인 시장 경제에 대한 더 강한 통제가 중요하다...만약 필요하다면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개입할 필요도 있다."고 하였다고 한다.(가톨릭 신문. 2013. 10. 13. 8면) 그러나 교황의 이같은 발언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주장하고 있는 위협천만한 것이다. 이러한 의심되는 사회주의적인 발언들은 교황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도 16

세 등의 사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현한 회칙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런데 현 교황 프란치스코는 과거의 교황들 보다 사회적 관심이 더욱 많은 것 같이 보인다.

물론 이러한 발언은 성경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나 성경은 분명히 어떠한 이유로든지 인간의 자유와 생명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공상주의는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파괴하였으며 장차에 자칫 잘못하면 인권과 정의와 평등의 이름으로 개인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을 말살 할 위험성이 사회주의 사상 가운데 내포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현 세계적인 종교계와 경제계에나 정치계에 확산되고 있는 통합과 통제사상은 성경과 정통 기독교사상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수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황들의 이러한 발언들은 선의적으로 훌륭한 견해라고 칭찬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의 부정적이며 역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전 인류적인 재앙은 과거 그 어떤 독재제국의 피해보다 상상을 초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 안다

무엇보다 최첨단 과학과 무기들을 통한 인류의 노예화를 획책하는 세력이 있다는 정보들을 결코 무시할 수없는 현실에서 기독교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의 하나라도 이러한 현실의 실현을 크게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교황의 사회주의적인 발언들은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4) 진보측(프리메이슨)의 새 교황 선출을 통한 진보적 교리 통과 설

바티칸 전문가 마틴 말라키<sup>285)</sup>는 천주교 진보파의 새 교황 선출을 통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바티칸 전문가 마틴 말라키는…자신의 소설 「바람이 휩쓸고 간 집」에서 바티칸 내의 진보세력들(로마 교황청에 있는 전통주의자들과 맞먹지만, 권력의 자리를 장악하고 있는)과 UN과 같은 국제 휴머니스트 기구들(필자 주 : 프리메이슨 세계정부세력들)과의 ‘목시적동맹’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혼과 피임, 여성 사제, 낙태, 그리고 동성애에 관한 교리를 바꾸는 것이다. 이 강력한 동맹은 그들의 진보적이고 지구적인 정신을 공유하는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마틴은 음모에 대한 생각을 떨쳐 버린다. 교회 안팎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구를 위한 동일한 진보적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다. 마틴은 그의 소설이 결코 허구적인 것이 아님도 인정한다.<sup>286)</sup>

마틴은 여기에서 천주교 내부의 프리메이슨 세력과 외부의 국제적 프리메이슨 세력 간에 ‘강력한 목시적 동맹’이 결성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또한 새 교황과 프리메이슨의 관계를 짐작하게 하기도 한다. 마틴의 이와 같은 주장이 적중할 것인지는 머지않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부록은 독자 여러분이 천주교의 최근 급격한 인본주의 화에 대하여 연구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사용되도록 그 근거만 간단히 제공하는 것이다.)

285) 구영재, 『에큐메니즘의 이상과 우상』, (서울 : 안디오크, 2001년, 재인용), p. 24. 말라키 마틴 박사는 요한 23세의 측근이었으며 교황청 신학교수를 역임한 전 예수회 사제이다.

286) 피터 존스, 『교회와 사탄의 마지막 영적전쟁』, 이공식 옮김, (서울 : 도서출판 진흥, 2001), pp. 404-405.

## 존 밀턴의 애도 시

오! 주여, 주님의 죽음 당한 성도들의 원한을  
보수하소서.

그들의 뼈가 차가운 알프스산맥 위에 흩어졌나이다.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막대기와 돌을 섬길 때, 그들은  
주님의 진리를 그토록 순결하게 변함없이 지켰나이다.

주님의 책에 그들의 신음을 꼭 기록해 주소서.  
저들은 주님의 양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주님의 양떼들이 피에 주린 피이드먼트(주: 서북부  
이탈리아 지방)사람들에 의하여 피 흘리며 죽어가나이다.

아이를 가진 어머니도 돌에 맞아 쓰러지나이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골짜기와 하늘까지 울려 퍼집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와 재는 지금도 폭군들이 난무하는 온  
이탈리아 땅에 씨가 되어 수백 배의 결실로 자랄  
것입니다.

그 폭군들은 주님의 방침을 깨달은 후에 바벨론에 임할  
재난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2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발더파 운동은 순수한 성경적이며 복음적인 신앙과 전도운동이었다. 그들의 신앙과 주장은 초대교회

와 같았으며, 종교개혁자들과 거의 같았다. 천주교 당국은 처음에는 이들에게 관대하였다. 그러나 이운동이 자신들에게 점차 위협이 된다고 느낀 후로는 법으로 금지하였다. ... 결국 종교재판이 시작되면서 수년 동안 피의 살육이 감행되었다. 수천 명이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었으며 그들의 고향은 황폐한 사막이 되었다. 그 뒤로도 무려 7세기 동안이나 무자비한 박해와 살육이 계속되어서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 성도들이 희생당하였다. 이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을 지닌 선민 곧 알프스의 이스라엘로 간주하였다. 그 박해는 마침내 크롬웰의 줄기찬 항의와 해 군력과 군사 행동을 통한 위협으로 종식되었다.(저자 주: 일시적으로)

당시의 박해는 올리버 크롬웰의 서기였던 존 밀턴의 14행시에 나타나 있다. 밀턴은 계시록 16장19절과 17장5절을 배경으로 이 시를 썼다.]<sup>287)</sup>

---

287) 서요한, 『중세교회사』, (서울 : 그리심, 2003), pp. 751-752.